

HOMO MIGRANS

Vol.24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21

May

특집 · 이주와 인종주의의 문화사:
전쟁이 만든 혼종적 정체성 읽기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24(May 2021)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윤용선(한성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문종현(세종대)

학술이사 구지훈(창원대)

김대보(원광대)

라영순(중앙대)

이은영(부산대)

정재현(목포대)

대외협력이사 김정식(신라대)

다문화교육이사 윤종필(동국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오영인(평택대)

편집위원 양재혁(성균관대)

정용숙(춘천교육대)

김정욱(인천대)

허 현(충남대)

고유경(원광대)

이용재(전북대)

문경희(창원대)

이경일(경성대)

정대성(부산대)

신동규(창원대)

해외편집위원 Klaus DITTRICH(EdUHK)

Kyungmi KIM(Paris 7)

감사

마은지(송실대)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

회비 10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4호(2021년 5월)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지은이 ·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21년 5월
ISSN: 2093-3061

<편집자의 글>	5
<특집논문> 이주와 인종주의의 문화사: 전쟁이 만든 혼종적 정체성 읽기 ·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Vertreibung und Flucht) _____ 신정훈 7	
· 노라 켈러의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 _____ 신영현 38	
·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_____ 홍상현 73	
<일반논문>	
·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_____ 박민경 105	
·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_____ 최강화 135	
·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_____ 박해운 158	
<연재> 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 ① : 혼종성과 타자의 인식 ·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_____ 양재혁 199	
<연구회 회보>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법>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연구회 회칙>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May 2021
ISSN: 2093-3061

<Editorial>		5
<Special> The Cultural History of Migration and Race: Reading Hybrid Identities by the War		
· West Germany's Culture of "Flight" and "Expulsion" Remembrance _____ Shin, Junghoon		7
· A Study on <i>Comfort Woman</i> : Hybrid Identity Appropriated through Antiphonal Narration and Free Direct Speech _____ Shin, Younghun		38
· Joo Myung-Duck's <i>The Mixed Names</i> , which we opened again in the era of "migration-multicultural Korea" _____ Hong, Sanghyun		73
<Article>		
· An examination on the Japan Policy of the Ungjin Dodok-bu _____ Park, Minkyung		105
· A Study on the Change in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Before and After Corona Outbreak Using the Text Mining _____ Choi, Kanhwa		135
· Gondon Childe's Refutation on the Ideolog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Nazi Archaeology, 1933-1935 _____ Park, Haewoon		158
<Serial Articles> Historical Theory of Homo-Migrance ① : Recognition of Hybridities and Other		
· Re-reading(or Re-writing) Michel de Certeau's Historiography in the Hybrid Era _____ Yang, Jaehyuk		199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4호는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이 만들어낸 혼종적 정체성을 “이주와 인종주의의 문화사”라는 특집으로 엮어냄과 동시에 “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호 특집주제를 다룬 신정훈은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추방이나 피난의 역사를 공유하는 독일 실항민들의 희생사를 설명하면서 ‘난민’, ‘실항민’ 등 다양한 층위가 중첩되는 혼종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신정훈은 독일인들의 강제이주 경험을 단순히 피해 사례의 하나로 수집하고 정리하려 했던 서독 정부와는 다르게 실항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희생자담론에 주목하고 있다. 신영현은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 위안부 여성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1997년 출간된 소설 『중군위안부』의 저자 노라 켈러의 서술기법을 통해 보여준다. 즉, 신영현은 저자 켈러가 자유직접화법과 교호적 소설쓰기 방법으로 침묵당한 희생자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두 제국주의(미국과 일본) 문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나 모두에 해당되는 혼종적 정체성을 같은 여성(딸)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다문화 한국’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에서 홍상현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낳은 ‘혼혈 고아’의 서사를 작가 주명덕의 사진전을 통해 소개한다. 부연설명도 없는 근접촬영으로 부각시킨 ‘혼혈 고아’의 사진전 속 모습이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는 홍상현은 주명덕의 사진전이 사진기록을 통해 작금의 다문화 한국을 설명하는 확장적 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인종주의의 특징과 혼종적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외에도 박민경은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에서 원거리 통치

체제와 피통치자의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배자에 대한 정치, 문화적 통합 전략과 그에 대한 저항의 길항관계를 고찰한다. 이 논문은 특히 백제멸망 이후 당나라가 백제 고토에 설치한 웅진도독부가 당나라의 관료가 아닌 백제계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관청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민경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당시 웅진도독부의 친당적 성향을 시대적 한계로 지적하는 동시에 백제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웅진도독부를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최강화는 20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19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와 다문화와 관련한 키워드들의 변동 간의 관계를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해 측정한다. 다양한 키워드들의 질적 변동을 추적함으로써 최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해운은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를 통해 20세기 전반 선사고고학계를 대표하는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의 역사관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박해운은 차일드가 19세기를 대표했던 유럽중심적 노르만주의를 반박하는 방법으로 동방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사실, 즉 문화사적 방법론으로 증명했음을 강조한다.

이번 호를 시작으로 『호모미그란스』는 “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이라는 연재를 기획했다. ‘호모미그란스’에 대한 우리 학술지의 연구 성과가 현상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론적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연재로 양재혁의 연구를 소개한다.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읽기」에서 양재혁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지적한 역사가 세르토의 역사서술에 대한 (재)사유를 제안한다. 양재혁은 세르토에게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이지만 그 누구만의 고유영역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혼종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호모미그란스』는 이동(이주)하는 인간에 대한 활발한 역사이론 연구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 특집 ■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Vertreibung und Flucht)

: 독일인 희생자 담론과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신정훈

I. 머리말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침략을 통해 강탈했던 지역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 1919년 베르사유 조약(Friedensvertrag von Versailles)에 의해 이미 축소되었던 영토마저 온전히 보전할 수 없는 처지였다. 소련과 미국, 영국 정상들은 1945년 8월 2일 체결된 포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을 통해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Linie)을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새로운 경계로 정하여, 1937년 당시 독일제국 (Deutsches Reich) 면적의 약 1/4을 차지했던 동방영토 (Ostgebiete)¹⁾를 폴란드와 소련에게 할양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독일과 폴란드 국경의 최종적인 확정을 추후로 예정된 평화회의 때까지 유보함으로써 장차 영토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오데르-나이세 선 구획에 이어 연합국들은 ‘동방영토’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과 동·중부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계 주민들을 오데르-나이세 선 이서(以西) 지역으로

1)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동방영토는 동프로이센(Ostpommern), 동포메른(Ost-Pommern), 동브란덴부르크(Ost-Brandenburg), 슐레지엔(Schlesien) 지역을 의미했다.

이주시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독일인들을 소 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족 간 갈등을 영구히 제거하려 하였다.²⁾ 그런데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以東) 지역의 독일인들은 1944년 가을 이미 소련군의 동진을 피해 오데르강 서안으로 상당수가 피신해 있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지만 1945년 7월 오데르-나이세 선을 통제하던 소련군과 폴란드 당국에 의해 귀향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국들이 그들의 이주 계획을 결정한 것은 소련과 폴란드의 행위를 추인해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출신 독일인들의 규모는 1950년을 기준으로 동서독과 오스트리아를 합쳐 약 1200만 명(서독: 790만, 동독: 410만, 오스트리아: 37만)에 달하였다.³⁾ 포츠담 협정은 동·중부유럽 거주 독일인들이 “질서정연하고 인도주의적인 방식(in ordnungsgemäßer und humaner Weise)”으로 “이송(Überführung)”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피난(Flucht)’과 ‘추방(Vertreibung)’이란 용어로 명명된 강제이주 과정에서 독일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쟁 당시 소련군뿐만 아니라 과거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은 동·중부유럽인들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난’과 ‘추방’ 이후 서독에 정착한 동·중부유럽 출신 독일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빈민과 실업자로 전락해 있었다. 난민(Flüchtling) 또는 실향민(Vertriebene)⁴⁾으로 불린 이들은 1950년 당시 서독에서만 약 790만

2) Wolfgang Benz, ed.,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Ursachen, Ereignisse, Folgen* (Frankfurt am Main: Fischer, 1988), p. 8

3) Arnd Bauerkämper, “Deutsche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aus Ost-, Ostmittel- und Südosteuropa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se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Klaus J. Bade, Pieter C. Emmer, Leo Lucassen & Jochen Oltmer, eds., *Enzyklopädie Migration in Europa: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07), p. 478.

4) Vertriebene의 직접적 의미는 ‘추방된 자’이며, 이 용어에는 고향을 상실한 동방영토 주민들의 희생과 이들을 추방한 동구권에 대한 반공주의적인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역사적 의미로서의 한국의 ‘실향민’이란 단어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실향민’이란 용어에도 Vertriebene란 단어와 같이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고향을 잃었다는 반공주의적 인식이 숨어

명에 달했으며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주했기 때문에 당장에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서독 주민들 집에 얹혀 살거나 철판으로 이루어진 반원형 막사(Nissenhütte)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독 주민들로부터 나치의 동조자들 혹은 부랑자 취급을 받았으며,⁵⁾ 더 나아가 같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간주되며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는 서구(Westen)의 ‘동부 지역(Osten)’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시선뿐만 아니라 나치 시대 이 지역 출신들을 ‘열등인종(Untermensch)’으로 취급했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⁶⁾

실향민들이 경험한 ‘피난’과 ‘추방’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일상에서도 터부시되었다. 이는 1950년대까지 전쟁이라는 참혹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침묵하려 했던 정서가 유럽사회를 지배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독일인들의 ‘추방’을 결정한 당사자 중의 한명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1946년 9월 19일 취리히 대학의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참혹한 경험들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이 끝없는 불행과 진정으로 궁극적 파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 과거의 모든 범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망각

있기 때문이다. Matthias Stickler, *“Ostdeutsch heißt Gesamtdeutsch”: Organisation, Selbstverständnis und heimatpolitische Zielsetzungen der deutschen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2* (Düsseldorf: Droste, 2004), pp. 9-1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91-394쪽 참조. 한편,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이하 동독)에서는 소련에 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실향민’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이주자(Umsiedler)’ 또는 ‘새로운 시민(Neubürger)’만 있을 뿐이었다. Arnd Bauerkämper, “Deutsche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aus Ost-, Ostmittel- und Südosteuropa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se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p. 483. 동독의 ‘이주민정책(Umsiedlerpolitik)’과 통합과정은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und “Umsiedlerpolitik”: Integrationskonflikte in den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en und die Assimilationsstrategien in der SBZ/DDR 1945-1961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4)를 참조.

5) Andreas Kossert, *Kalte Heimat: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Vertriebenen nach 1945* (München: Siedler, 2008), p. 12.

6) *Ibid.*, p. 71.

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독일 사회 역시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국가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⁸⁾ 다만, 서독의 전후 복구 사업 가운데 극심한 빈곤과 차별을 겪는 실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회통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난’과 ‘추방’이란 이슈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동방영토 수복이라는 외교적 ‘재건’ 과제도 남아 있었다.⁹⁾ 이러한 정책적 목표 앞에서 실항민들은 ‘전쟁 희생자(Kriegsopfer)’로 간주되었으며 ‘독일인 희생자 담론(deutscher Opferdiskurs)’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희생자 담론은 실항민부(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에서 기획한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의 출판으로 이어졌으며 이 『자료집』은 서독 초기에 ‘추방’과 ‘피난’의 기억을 공식적으로 다룬 결과물로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추방’과 ‘피난’의 기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동서독 통일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희생의 기억’ 또는 ‘희생서사(Opfererzählung)’가 통일 이전 시기에 얼마나 대중적 관심을 받았는지

7) Winston Churchill, 1946, “Churchill’s speech in Zurich”, https://www.churchill-in-zurich.ch/site/assets/files/1807/rede_winston_churchill_englisch.pdf (검색일: 2021년 1월 25일), p. 2.

8) Aleida Assmann, 2016,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uploads/2016/06/vortrag_aleida_assmann_heinrich-boell-stiftung_flucht_und_vertreibung.pdf (검색일: 2019년 8월 29일), pp. 4-5; Arnd Bauerkämper, *Das umstrittene Gedächtnis. Die Erinnerung an Nationalsozialismus, Faschismus und Krieg in Europa seit 1945*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2), p. 372; Constantin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Die Vertriebenen und der deutsche Opferdiskurs”,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53(2005), pp. 874-877.

9) Bernd Faulenbach, “Flucht und Vertreibung in der individuell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Erinnerung”, *BIOS*, 21(2008), p. 107; Kossert, *Kalte Heimat*, p. 87.

에 맞추어져 있었다.¹⁰⁾ 독일인 희생자 담론이 냉전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에서의 반공주의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주요 논점이 아니었으며 담론에 직접 개입한 ‘희생 당사자’로서의 실향민 단체들(Vertriebenenverbände)의 역할도 이러한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서독의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한 희생자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의 역할과 더불어 실향민 단체들이 그것에 기여한 바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추방’과 ‘피난’이라고 명명된,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독일인 강제이주가 통일 이전 서독의 기억 문화와 반공주의의 맥락 아래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향민 단체들이 반공주의를 도구로 하여 시도한 ‘자기희생자화(Selbstviktimisierung)’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서독의 주요 정당들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성립 직후 냉전 체제 하에서 동방영토 상실과 실향민문제(Vertriebenenfrage)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의 편찬 배경과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독일인 희생서사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료집』의 영향을 받은 영화 〈고텐하펜에 밤이 내렸다(Nacht fiel über Gotenhafen)〉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당대 대중문화에 남겨진 독일인 희생자 담론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익단체로서의 실향민 단체들과 관련 언론이 스스로 내세운 ‘희생서사’를 관찰시키기 위해 『자료집』 저자들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10) 이와 관련해서는 R. M. Douglas & Martin Richter (Übersetzer), “*Ordnungsgemäße Überführun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ünchen: C.H.Beck, 2012), pp. 430-434 참조.

II.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서독 정치권에서의 '독일인 희생자' 담론

1949년 9월 20일 독일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기민련) 소속의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연방의회에서의 정부연설(Regierungserklärung)을 통해서 실항민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실항민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백만 명씩 사망한 실항민들의 운명”이란 말을 통해 사실상 그들이 ‘전쟁 희생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그는 동방영토 상실과 추방에 대한 책임을 포츠담 협정에 공동서명한 미국과 영국 정부에게는 묻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을 소련과 폴란드에 전가하였다.¹¹⁾

아데나워를 비롯한 서독의 유력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포츠담 협정과 실항민문제에 초당파적으로 접근하였다.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이하 자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는 1949년 9월 12일 연방의회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체(Staatsform)’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수백만 명의 고향 없는 자들의 끔찍한 국내 이주(furchtbare Binnenwanderung)”를 계기로 “향우회(Landsmannschaft) 개념”이 독일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¹²⁾ 여기서 말하는 향우회는 실항민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추방’이후 실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호이스는 실항민들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고향인 ‘동방영토’ 역시 독일이란 국체의 일부임을 시사하였다. 그에게 있어 ‘독일 동부 지역(der deutsche Osten)’은 단순히 ‘곡창지대’나 ‘감자밭’이 아니

11)Konrad Adenau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5. Sitzung, Plenarprotokoll*, 01/5(20. September 1949), p. 22, pp. 28-29.

12)Theodor Heuss, “Ansprache des Bundespräsidenten”,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2. Sitzung, Plenarprotokoll*, 01/2(12. September 1949), pp. 10-11.

라 ‘독일인들의 고향’이었다.¹³⁾

전후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의 당 대표이자 서프로이센(Westpreußen) 출신이기도 했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는 나치 정권에 강력히 저항했던 인물임에도, 동방영토 문제에서 반공주의적이면서도 영토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는 1945년 10월 쾰른에서의 대중 연설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이 국경선(오데르-나이세 선) 저편 독일의 모든 제곱미터 땅을 얻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¹⁴⁾ 슈마허의 이러한 비타협적인 입장을 토대로 사민당은 ‘전쟁 없는 영토 수정주의’ 노선을 공고히 하였다.¹⁵⁾ 이처럼 단호한 영토 수복 의지를 내비친 슈마허는 기본적으로 전후 처리가 독일에게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 1947년 전당대회에서 그는 “독일이 이미 적절하게 산정된 청구액보다 더 많은 피해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배상의 사례로 “1300만 실항민들”로부터의 “약탈품”과 “독일 영토의 상실”을 지적하였다.¹⁶⁾ 이처럼 슈마허는 서독 초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실항민들의 ‘희생자성(Opfertum)’과 독일이 입은 피해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들 중의 한명이었다.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1949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에서 오데르-나이세 선을 ‘평화선(Friedensgrenze)’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는 당대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⁷⁾ 영토 수정주의를 거부하는 공산당의 입장

13) *Ibid.*

14) Helmut Bärwald, *Kurt Schumacher: Arbeitshilfe Nr. 64 (Bonn: Pfenningberg, 1995), pp. 13-14, Matthias Müller, Die SPD und die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7: Eintracht, Entfremdung, Zwietracht (Berlin: Lit Verlag, 2012), p. 33에서 재인용.*

15) *Ibid.*, pp. 44-45.

16) Kurt Schumacher, “Deutschland und Europa”,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vom 29.6. bis 2.7.1947 in Nürnberg*, pp. 44-45.

17) “Bundestagswahlprogramm der KPD 1949”, Günter Judick, Josef Schleifstein & Kurt Steinhaus, eds., *KPD 1945-1968: Dokumente*, Bd.

은 서독의 다른 정당들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조차 실항민들의 ‘희생자 지위(Opferstatus)’를 부정할 수 없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실항민들이 추방당함으로써 재산을 잃고 빈곤상태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였다.¹⁸⁾ 다만, 공산당은 실항민을 ‘이주자(Umsiedler)’ 혹은 난민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소련이 가담했던 ‘추방’과 그들을 연관 짓지 않으려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그들을 ‘히틀러 전쟁의 희생자(Opfer des Hitlerkrieges)’로 간주하였다.¹⁹⁾ 공산당은 실항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전쟁부담을 조정(Lastenausgleich)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은 토지개혁과 전쟁·나치 범죄자, 통화개혁의 수혜자의 재산 몰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 실항민들의 상황이 서독을 공산화시키려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공산당은 실항민들을 다른 ‘나치범죄정책 희생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자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²⁰⁾

실항민들의 ‘희생자화’ 과정에는 실항민 출신 연방의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비율은 연방의회에서 1949년에서 1976년까지 평균적으로 8퍼센트에서 12퍼센트 사이를 오갔다.²¹⁾ 실항민 정치인들은 우선적으로 각자가 속한 정당에 정치적인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지역적인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그들의 출신지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넓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중부유럽 지역 출신 독일인들이 ‘피난’과 ‘추방’ 때문에 사회적 계층 하락을 겪

1 (Neuss: Edition Marxische Blätter, 1989), p. 291.

18)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Integrations- und Erinnerungspolitik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6(2008), pp. 119-120.

19) “Bundestagswahlprogramm der KPD 1949”, p. 293.

20)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p. 120; “Erklärung des PV der KPD zur politischen Lage”, *KPD 1945-1968: Dokumente*, Bd. 1, p. 227, pp. 243-245.

21) Wolfgang Fischer, *Heimat-Politiker?: Selbstverständnis und politisches Handeln von Vertriebenen als Abgeordnete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74* (Düsseldorf: Droste Verlag, 2010), p. 66.

었다는 집단 고유의 의식(kollektives Sonderbewusstsein)을 공유하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를 세계 대전의 희생자로 여겼다. 이러한 ‘집단의식’을 토대로 실향민 정치인들은 실향민 정책에서 초당파적인 의사결정자이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실향민들이 피난과 추방을 통해서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 보전을 규정한 전쟁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과 실향민들의 서독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연방 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제정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실향민의 이해를 대변하였다.²²⁾

이처럼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서독 정치인들은 정당과 이념을 막론하고,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실향민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보았다.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통하여 소련의 전쟁 범죄와 독일에 부과된 과도한 처벌을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실향민을 나치정권 피해자와 비교함으로써 양 집단 사이에는 소위 ‘희생자 경쟁(Opferkonkurrenz)’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집단을 위한 보상안들이 논의되었고, 실제 1952년에는 실향민을 위한 전쟁부담조정법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한 룩셈부르크 조약(Luxemburger Abkommen)도 체결되었다. 1953년 3월 18일 연방의회에서 룩셈부르크 조약 비준과 실향민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희생자성’이 부각되었고, 실향민들도 유대인들처럼 ‘민족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졌다.²⁴⁾ 사민당 소속의 실향민 의원인 리하르트 라이츠너(Richard Reitzner)는 “실향민들의 운명은, 특정 민족 소속(Volkszugehörigkeit)이란 이유로 그리고 패배한 히틀러 전쟁을 이유로 책임을 떠안은 집단의 운명”이라고 강

22) *Ibid.*, pp. 137-138, pp. 172-173, p. 255.

23) Constantin Goschler, *Wiedergutmachung: Westdeutschland und die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1945-1954*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1992), pp. 202-203.

24) Robert G. Moe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1(1996), pp. 1016-1017.

조하였다.²⁵⁾ 실항민들이 겪은 ‘피난’과 ‘추방’은 전쟁 책임의 대가로서 독일민족(deutsches Volkstum)에게 가해진 일종의 ‘박해’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초반 실항민과 유대인 희생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마련되었지만, 국가 재건을 위한 ‘망각’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홀로코스트’와 ‘추방’ 문제 모두 서독의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비로소 1980년대에 유대인절멸에 대한 기억이 폭넓게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인 강제이주와 관련된 기억은 그보다 더 늦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²⁶⁾ 다만, 서독 초기부터 ‘독일인의 희생’에 대한 초당파적인 정치적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은 적어도 ‘위로부터’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는 실항민들의 피해 경험담을 직접 수집·보존하여 이들의 ‘희생서사’ 만들기에 직접 개입하였다.

Ⅲ.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 과 독일인 ‘희생서사’의 시작

아데나워 총리는 첫 정부연설에서 ‘추방’에 관한 모든 법적, 사실관계 자료를 진정서의 형태로 만들어 연합국 측에 제공하는 계획을 공언한 바 있었다.²⁷⁾ 이러한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실항민부에서 출판한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이하 『자료집』)이었다. 『자료집』 편찬 사업은 서독 초기 저명한 역사학자인 테오도르 쉬더(Theodor Schieder)²⁸⁾의 주도 하에 1951년에서 1961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진행

25)Richard Reitzner, “Rede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254. Sitzung, Plenarprotokoll 01/254*(18. März 1953) p. 12236.

26)Assmann,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p. 6.

27)Adenau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p. 29.

28)쉬더는 독일의 사회사와 구조사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학자

되었다.²⁹⁾ 이 사업에 의해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총 다섯 편의 본편과 세 편의 별책으로 구성되어 출간된 『자료집』은 기본적으로 실향민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책의 서문에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현재의 폴란드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주변)과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 살았던 독일인 인구 현황을 집적하고, 실향민들의 구술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추방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³⁰⁾

였지만, 1945년 이전 '동유럽연구(Ostforschung)'를 통해 나치 팽창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역사가로도 유명하다. 그와 관련된 논쟁은 송충기, 「역사학과 과거청산: 나치시대 역사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사학』, 제80권(2005) 참조

29) 이 프로젝트의 위상은 그것에 참가한 주요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58년에서 1962년까지 독일 역사가 협회장을 역임했던 한스 로스펠스(Hans Rothfels), 쾰른대 철학부 학장을 지낸 페터 라쾨브(Peter Rasow), 1972년에서 1976년까지 독일 역사가 협회장을 맡았던 베르너 콘체(Werner Conze)와 같이 권위 있는 역사가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더불어 당시 젊은 세대에 속했던, 뮌헨 현대사 연구소장을 지낸 마르틴 브로샤트(Martin Broszat), 빌레헬트 학과의 창립자들 중의 한 명인 한스 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구성한 학술위원회(Wissenschaftliche Kommission)가 『자료집』 전체의 편집과 서문의 서술방향을 결정하였다. Mathias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Großforschungsprojekt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46(1998), pp. 345-353 참조.

30)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Bd. I, 1-3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Bd. II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Bd. III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Bd. IV, 1-2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Bd. V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ommern 1945-46, Aufzeichnungen von Käthe von Normann*, 1.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5);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2. Beiheft (Bonn: Bundesminis-

이 총서는 포츠담 협정에서 예정된 평화회의에서 오테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에서 발생한 비인도주의적인 추방의 실상을 연합국 측에 알리고, 독일 실항민들의 ‘고향 땅에서 살 권리(Recht auf die Heimat 이하 고향권)’를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다.³¹⁾ 오테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을 다룬 첫 번째 편에서는 실항민들의 ‘희생자성’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해당 지역에서 ‘피난’과 ‘추방’에 의해 사망한 독일인들의 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약 20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숫자는 전쟁말기 이 지역의 독일인구 추정치에서 1950년 동서독에서 살았던 실항민들의 숫자를 제한 값이었다.³²⁾ 이러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 정해진 희생자 수는 사실상 신뢰하기 어려웠는데, 교회에 의해 설립된 ‘교계실종자조사협회(Kirchlicher Suchdienst)’의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피난’과 ‘추방’에 따른 사망자는 47만 3013명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희생자 수 부풀리기’는 당대의 반공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독 재무장과 주권회복 문제가 대두되며 반공주의가 한창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료집』 프로젝트는 소련을 비판하는 프로파간다 성격을 띠게 되었다.³³⁾

『자료집』은 본편 전체에 걸쳐 ‘추방’과 ‘피난’ 당시 독일인에게 가해진

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7);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Bericht aus Ost- und Westpreußen 1945-1947, Aufzeichnungen von Hans Graf von Lehndorff*, 3.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60).

31)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pp. 360-368.

32) 피난 이전에 사망한 해당 지역 출신 군인들, 폭격 희생자와 1950년 당시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던 독일인들의 숫자도 제외하였다.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p. 158 E-160 E.

33) Ingo Haar, “‘Bevölkerungsbilanzen’ und ‘Vertreibungsverluste’: Zur Wissenschaftsgeschichte der deutschen Opferangaben aus Flucht und Vertreibung”, Josef Ehmer, Ursula Ferdinand & Jürgen Reulecke, eds., *Herausforderung Bevölkerung: Zu Entwicklungen des modernen Denkens über die Bevölkerung vor, im und nach dem „Dritten Reich“*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 272, p. 277.

소련군과 동유럽 파르티잔들의 성폭행, 살해, 약탈 등 전쟁 범죄를 조명하고 있으며, 소련으로의 ‘유형(Deportation)’과 ‘전쟁 배상 조치(Reparationsmaßnahmen)’로서의 강제노동과 재산몰수 등도 다루었다. 독일 실항민들은 소련군과 동유럽인들로부터 자의적, 체계적 보복을 당하며 동구권이 불세비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동시에 겪은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러한 ‘희생서사’에서 독일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운 소련군과 동유럽인들도 일부 등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었다.³⁴⁾ 이 본편 가운데 대다수의 실항민들이 살았던 ‘오데르-나이세선 이동 지역’과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다룬 편들에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특히, 전자에서는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주된 원인을 복수심에서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소련군의 전쟁 범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련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문제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한 전통과 관념’을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여성을 승자의 전리품’으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몇몇 실항민들의 경험담에 근거하여 아시아 출신 군인들에게서 ‘일종의 아시아적 정서(gewisse Züge asiatischer Mentalität)’, 즉, ‘무절제함(Maßlosigkeit)’과 ‘야만성(Wildheit)’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자료집』에서 드러난 이러한 반공주의는 아테나워 시대 기독교민주주의자와 실항민들 사이에서 퍼져있었던 ‘반아시아·반러시아적’ 반공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악셀 쉴트(Axel Schildt)가 지적한대로 이 같은 반공주의는 1950년대 서독 사회에서 매우 번성하였다.³⁶⁾

34)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 65 E, p. 86 E, p. 91 E, p. 104 E;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pp. 111-112.

35)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 61 E.

36) Axel Schildt, “Antikommunismus von Hitler zu Adenauer”, Norbert Frei & Dominik Rigoll eds., *Der Antikommunismus in seiner Epoche: Weltanschauung und Politik in Deutschland, Europa und den USA* (Göttingen: Wallstein. 2017), pp. 193-194.

이처럼 『자료집』은 당대의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범죄를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추방’과 ‘피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나치의 침략과 전쟁 범죄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편에서 나치에 대한 비판은 단지 전쟁 말기 피난과정에서 독일 주민들을 적절한 때에 철수시키지 않았던 당 기구의 오판에 한정되었다. 반대로, 지역행정조직과 국방군은 피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했던 것으로 기술하였다.³⁷⁾ 당과 다른 국가기구들을 분리함으로써 국방군을 사실상 피난민의 ‘수호자’로 여겼으며, 독일군은 침략자인 적군을 상대로 독일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난민들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인들은 철저히 ‘희생자’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소련과 동유럽 ‘가해자’들의 ‘잔학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추방’과 ‘피난’ 과정에서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는 나치의 전쟁 범죄와 자주 동일시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³⁹⁾

『자료집』 편찬 프로젝트는 첫 번째 편인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편 출간 이후 나치 과거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지나치게 반공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 때문에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편에서 원색적인 반공주의는 일부 완화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에 나치즘이 동유럽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던 국외 독일인들(Volksdeutsche)에게 미친 영향이나, 그 이후 나치 정권이 이들을 무장친위대(Waffen-SS)로 징집했던 사실이 기술되었다.⁴⁰⁾ 더 나아가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쉬더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치 과거사 정리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대두된 학문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보고

37)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p. 12 E-13 E, pp. 25 E-26 E.

38) *Ibid.*, p. 14 E, p. 18 E, pp. 36 E-37 E, p. 45 E.

39) *Ibid.*, p. 133 E, p. 138 E;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pp. 70-71, p. 79.

40)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pp. 18 E-34 E;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pp. 27 E-58 E;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pp. 27 E-75 E.

서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¹⁾ 이렇듯 정부와 학자 간의 갈등 속에서 『자료집』은 부분적으로 나치의 국외 독일인에 대한 ‘민족정책(NS-Volkstumspolitik)’을 언급함에 따라, 평화회의에서 ‘추방’의 실상을 고발하는 역사적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애초의 정치적 목적과 상당부분 어긋나게 되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평화회의가 열리지 않자 『자료집』을 활용할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 다소 모호한 결과물로 남게 된 『자료집』은 본래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대중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⁴²⁾ 다만, 서독 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전쟁가해국의 국민으로서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의 기억들을 일찍이 집적함으로써 당대의 ‘독일인 희생서사’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⁴³⁾

『자료집』의 영향은 1960년에 상연된 〈고텐하펜에 밤이 내렸다〉⁴⁴⁾라는 영화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나치의 여가단체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의 여객선으로,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병원선이자 난민대피선으로 활용된 빌헬름 구스틀로프(Wilhelm Gustloff)호가 1945년 1월 30일 발트해에서 소련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동프로이센(Ostpreußen) 출신 프랑크 비스바르(Frank Wisbar)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생존자들의 증언들과 더불어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

41)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pp. 378–385. 『자료집』 편찬과정에서 발생한 학술과 정치상의 문제들과 논쟁에 관해서는 프로젝트 책임자 슈더의 논문 Theodor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8(1960) 참조.

42) Mathias 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Hintergründe – Entstehung – Ergebnis – Wirkung”,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50(1999), pp. 116–117.

43) Robert G. Moe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 84.

44) Alf Teichs, Otto Meissner (Producer) & Frank Wisbar (Director) (1960): *Nacht fiel über Gotenhafen* [Film]. Germany: Deutsche Film Hansa GmbH & Co.

집』도 참조하였다.⁴⁵⁾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는 구스틀로프함 침몰사건뿐만 아니라 동프로이센 주민들의 전반적인 피난 과정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의 잔학성과 복수심을 엿볼 수 있는 독일 민간인 사살 장면과 소련 작가 일리야 에렌부르크(Ilja Ehrenburg)의 ‘독일인을 살해하라’는 전쟁 프로파간다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반볼셰비즘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물론, 감독은 전쟁 중에도 살롱에서 유희를 즐기는 구스틀로프 선원들과 밀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연행되는 유대인을 대비시킴으로써 나치 범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의 이야기를 시종일관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피난과 배의 침몰 과정에서 고통 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독일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영화에서 일종의 ‘속죄양’의 역할로서 나치 정권과 남성들의 전쟁 책임을 대신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는 유대인 박해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자료집』의 한계를 일부 넘어섰지만, 어디까지나 소련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독일인들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의 ‘희생자성’을 드러내려 했던 『자료집』의 기본 서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IV. ‘능동적 희생자’로서의 실향민들

실향민들은 서독의 정당들과 정부가 부여한 ‘희생자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시 서독 내 실향민들의 두 이익단체인 피추방독일인중앙협회(Zentralverband vertriebener Deutscher)와 동부독일향우회연합(Vereinigte Ostdeutsche Landsmannschaften)의 대표들은 1950년 8월 5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실향민 헌장(Chartha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을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서 실향민들은 노골적인 ‘자기희생자화’를 시도하였다.

45) Michael Ennis, “Opfer und Täter in den Gustloff-Filmen von Frank Wisbar”, Bill Niven, ed., *Die “Wilhelm Gustloff”: Geschichte und Erinnerung eines Untergangs* (Halle: Mitteldeutscher Verlag, 2011), pp. 214-221; “Anti-Bolschewismus: Aus jenen Tagen”, *Der Spiegel*, 3(January 13, 1960), pp. 59-60.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상실했다. 고향이 없는 자들은 이 대지 위에서 이 방인이다. 신은 인간을 각자의 고향에 두었다. 강제로 인간을 고향에서 이 탈시키는 것은 그를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견뎌내고,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고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현실화되도록 요구할 자격이 있음을 느끼는 바이다. … 세계의 인민들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고통의 당사자인 실향민들의 운명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⁴⁶⁾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바라보았으며 스스로를 “지난 수년간 끔찍한 경험을 감당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피난’과 ‘추방’에서 희생당한 독일인들의 숫자를, 『자료집』에서 제시한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 35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실향민들로서는 이러한 피해가 고향을 강제로 떠남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실향민 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향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실향민 현장’ 발표 이후 피추방독일인중앙협회는 실향민들에게 천부인권이나 다름없었던 고향권이 1948년 12월 10일에 선포되었던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권리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서 ‘선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향민들은 수동적인 희생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희생자성’을 ‘추방’과 ‘피난’의 기억 문화에서 관철시키려 하였다.⁴⁸⁾

46) Werner Blumenthal, ed., “Charta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Eine Dokumentation von Stellungnahmen, Reden und Entschließungen des Bundes der Vertriebenen – Vereinigte Landsmannschaften und Landesverbände. Teil 1: 1949–1972*,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4), pp. 17–18.

47) “Heimatrecht – Menschenrecht: Zum Tag der Menschenrechte”, *Vertriebenen-Korrespondenz*, 20(December 9. 1950), pp. 1–3.

48)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p. 877.

『자료집』은 전반적으로는 실항민들의 ‘희생자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이 자료집 가운데 ‘자기희생자화’에 반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항민 단체들과 관련 언론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집』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쉬더에 따르면 별책으로 출판된 주데텐 독일인(Sudetendeutsche) 마가레테 쉘(Margarete Schell)의 일기와 본편 가운데 하나인 ‘헝가리’ 지역을 다룬 책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⁴⁹⁾ 전자에 대한 비판은 주데텐 독일인이 편집장으로 있던 실항민 전문 신문 『페어트리베넨-안차이거(Vertriebenen-Anzeiger)』⁵⁰⁾에 게재되었다. 그 주요 비판점은 쉘의 박해 경험이 주데텐 독일인의 ‘보편적이고도, 사실에 부합하는’ 희생서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주데텐 독일인들에게 그것은 마치 추방 당시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였다. 쉘은 프라하 출신 배우이자 라디오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여성으로서 독일인 ‘희생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 당시 나치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소련군의 성범죄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사실 그녀는 나치 당국으로부터 유대계라는 의심을 받으며 인종주의적인 차별을 당하며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도 있었다. 물론, 막상 소련군이 프라하를 점령하자 보복의 두려움을 느꼈고, 일종의 포로 생활을 하며 소련군 장교들의 허드렛일을 돕는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녀는 러시아인들과 체코인들로부터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서술을 남겼다. 이 때문에 그녀의 일기는 반공주의적인 의도에서 “서독의 실항민들, 특히 프라하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을 멸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프라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물에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다.⁵¹⁾

49)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p. 14.

50) Tobias Weger, “Volkstumskampf” ohne Ende?: Sudetendeutsche Organisationen, 1945-195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8), p. 604.

51) “Tagebuch einer Bevorzugten”, *Vertriebenen-Anzeiger*, 27(July 5, 1958), p. 3;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p. 19; David Hertl, 2020, “Margarete Schellová popsala zážitky českých Němců po konci války”, <https://plus.rozhlas.cz/margarete-schellova-popsala-zazitky-ceskych-nemcu-po-konci->

『자료집』의 헝가리편과 관련된 논쟁에서 해당 지역 출신 독일인들은 그것이 나치 정권과 국외 독일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을 문제 삼았다.⁵²⁾ 이 때문에 헝가리 독일인 민족지학자 요한 바이드라인(Johann Weidlein)은 『자료집』이 “중요한 지점들에서 추방자의 입맛에 따라” 서술되었다며 헝가리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⁵³⁾ 그는 “헝가리 독일인 역사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상”을 전달할 목적으로 헝가리 독일인들과 나치 정권과의 관계를 다룬 자료집을 스스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바이드라인은 자료집 서두에서 1933년 직후 나치즘이 헝가리 독일인들에게 곧바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프란츠 안톤 바쉬(Franz Anton Basch)의 증언을 끌어들었다. 그런데 그는 나치 정권이 인정한 헝가리 독일인 민족지도자(Volksgruppenführer)이자 전후 헝가리에서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한 인물이었다.⁵⁴⁾ 바쉬에 따르면, 헝가리의 독일 소수 민족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독문학자 야콥 블라이어(Jacob Bleyer)는 히틀러 집권 이전부터 나치즘과 파시즘을 반대했다고 한다. 바쉬를 포함한 블라이어의 후계자들은 ‘헝가리 거주 독일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헝가리 협정 (Deutsch-ungarisches Protokoll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deutschen Volksgruppe in Ungarn)’이 체결된 1940년부터 비로소 민족의식(völkisches Bewusstsein)’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바이드라인은 이러한 바쉬의 증언을 신뢰하여 그가 당대에 나치를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변호하였다.⁵⁵⁾

valky-8198604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2)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p. 14.

53) “Es geht um die Dokumentation”, *Donauschwäbische Rundschau*, 11(March 16. 1958), p. 1.

54) Ladislaus Buzás, 1953, “Basch, Franz Anton”, <https://www.deutsche-biographie.de/sfz3516.html#ndbcontent>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5) Johann Weidlein, ed.,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Schorndorf: Selbstverlag des Herausgebers, 1958), pp. 6-8.

블라이어의 영향을 받아 도나우슈바벤 지역(donauschwäbische Siedlungsgebiete, 현재의 헝가리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일부)을 연구하던 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안톤 타페르너(Anton Tafferner)⁵⁶⁾는 바이드라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해당 지역 독일인들은 나치 체제와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독일 본국을 위하여 국외에서 투쟁하고, 볼셰비즘과의 대결에도 가담했던 독일 소수 민족들에게 1940년에 맺어진 ‘독일-헝가리 협정’은 그동안 이어진 ‘끔찍한 부당함’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타페르너는 러시아인들보다 헝가리 민족주의자들이나 쇼비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드라인의 사료집을 근거로 하여 추방의 책임을 후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였다.⁵⁷⁾

이러한 논쟁 끝에 기민련-사민당 연립정부는 실향민 단체들의 불만을 수용하였고, 1969년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 측에 추방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⁵⁸⁾ 이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이 상당한 결실을 거둔 이후인 1974년에 완성되었는데,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때문에 당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 10월 기민련-자민당 연립정부 출범과 함께 내무부 장관에 취임한 프리드리히 짐머만(Friedrich Zimmermann)은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겼고 12월에 그것을 대중에게 바로 공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재단법인 독일실향민문화재단(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의 주도 하에 이 보고서는 『추방과 추방범죄: 1945-1948(Vertreibung und Vertreibungsverbrechen: 1945-1948)』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⁵⁹⁾ 이 ‘보고서’는 앞서 출간된 『자료

56)“Tafferner, Anton”, <https://kulturportal-west-ost.eu/biographien/tafferner-anton-2>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7)Anton Tafferner,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Donauschwabe*, 36(September 6. 1959), p. 7.

58)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pp. 114-115.

59)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ed., *Vertreibung und Ver-*

집』에서 제시한 과도한 희생자 수를 ‘교계실종자협회’의 그것으로 정정함으로써 통계적인 객관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실향민 단체들의 의도를 반영하듯이 오로지 소련군과 동유럽인들의 폭력·비인도주의적 행위와 실향민들의 피해규모에만 집중하였다. 게다가 추방지역에서의 소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험담들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 출신 소련군들이 본래의 기질과 심성으로 인해 야만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당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던 주장들이 보고서에서 그대로 채택되었다.⁶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보고서는 『자료집』에서 부족하나마 제시되었던 ‘추방’ 이전의 나치 과거사와 관련된 맥락과 쉐의 경험담과 같은 ‘특수한 사례’들을 배제함으로써 실향민들의 ‘자기희생자화’에 부합하는 온전한 ‘독일인 희생서사’를 제공하였다.

V. 결론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전범국’ 서독에서 독일인의 희생을 의미하는 ‘추방’과 ‘피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사회 전반에서 노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추방’이후 빈곤이란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실향민들이 전쟁 희생자라는 것에 초당파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다가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 덕분에 실질적으로 ‘추방’에 가담한 서방 연합국들을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게만 그것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독일인들의 희생’을 강조할 수 있었다. 또한, 실향민들이 강제이주의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동방영토 수복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서독의 독

treibungsverbrechen 1945-1948: Bericht des Bundesarchivs vom 28. Mai 1974, Archivalien und ausgewählte Erlebnisberichte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9), pp. 9-10.

60)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Vertreibung und Vertriebensverbrechen 1945-1948*, pp. 17-22, pp. 25-26, p. 38.

일인 희생자 담론은 이러한 초당파적 합의에서 시작하여 정부와 실항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항민 단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기희생자화’ 전략에 반하는 기억들을 소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때문에 나치 과거사와 제2차 세계 대전 역사의 일부로서의 ‘추방’과 ‘피난’의 역사적 맥락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피해사실과 규모만 남게 되어 오히려 독일인 강제이주사의 전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실항민들의 배타적인 ‘자기희생자화’ 노력은 본질적으로 추방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의 전쟁 범죄와 그 책임을 상대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물론, 실항민 단체가 대부분 독점하다시피 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은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 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실항민 단체들의 총괄조직인 실항민연맹(Bund der Vertriebenen)은 홀로코스트 기억 문화 사업에 영감을 받아 2000년 강제추방반대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주도하에 ‘추방’과 ‘피난’을 공적으로 기억·추모하려 하였다.⁶¹⁾ 그러나 이러한 실항민연맹의 기념사업은 더 이상 동유럽 국가들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맹의 의도대로 관철될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된 전사회적인 논쟁과 문제들은 차후 논문에서 2000년대 이후의 ‘추방’과 ‘피난’의 기억 문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van101672@gmail.com

주제어(Key Words):

실항민(Vertriebene), 피난과 추방(Flucht und Vertreibung), 독일인 희생자 담론(deutscher Opferdiskurs), 자기희생자화(Selbstviktimisier-

61) Wolfgang Benz, 2008, “Zur Debatte: Flucht, Vertreibung, Versöhnung”,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geschichte-und-erinnerung/39826/flucht-vertreibung-versoehnung?p=all> (검색일: 2020년 3월 24일).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

ung), 반공주의(Antikommunismus)

투고일: 2021.03.31, 심사일: 2021.05.02,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Vertreibung und
Flucht)
: 독일인 희생자 담론과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신 정 훈

서독의 정치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Linie) 이동 지역에서 추방된 독일 실항민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간주하였다. 강제이주의 책임은 연합국 전체에 있었지만 반공주의 논리에 의해 그것은 주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게 전가되었다. 서독 정부는 평화회의에서 연합국 측에 실항민들이 겪은 ‘피난(Flucht)’과 ‘추방(Vertreibung)’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피해사례를 수집·정리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출판된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은 서독 초기 독일인 희생서사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기희생자화’에 충실한 실항민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희생서사에 만족하지 않았고, 독일인 희생자 담론에 적극 개입하였다.

<Abstract>

West Germany's Culture of "Flight" and "Expulsion" Remembrance:
Focusing on the German Victimhood Discourse and Anticomunism

Shin, Junghoon

West German politicians regarded Germans who were displaced from the east of the Oder-Neisse lin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victims of the war. All the Allies had the responsibility for this forced migration, but it was mainly passed on to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sense of anticommunism. In order to inform the Allies about the realities of the "Flight" and "expulsion" of the Germans at the peace conference, the West German government tried to collect and organize damage cases of the expellees. In this context, the Doc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leuropa was planned and published. It contributed to the framework of German sacrificial narratives at the beginning of West Germany. However, the expellee associations which were faithful to "self-victimiza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acrificial narratives suggested by the government, and actively intervened in the German victimhood discourse.

참 고 문 헌

1. 사료

Blumenthal, Werner, e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Eine Dokumentation von Stellungnahmen, Reden und Entschließungen des Bundes der Vertriebenen – Vereinigte Landsmannschaften und Landesverbände. Teil 1: 1949–1972*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4).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Bd. I, 1–3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Bd. II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Bd. III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Bd. IV, 1–2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Bd. V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ommern 1945–46, Aufzeichnungen von Käthe von Normann*, 1.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

digte, 1955).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2.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7).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Bericht aus Ost- und Westpreußen 1945-1947, Aufzeichnungen von Hans Graf von Lehndorff*, 3.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60).

Judick, Günter, Schleifstein, Josef & Steinhaus, Kurt, eds., *KPD 1945-1968: Dokumente*, Bd. 1 (Neuss: Edition Marxische Blätter, 1989).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ed., *Vertreibung und Vertreibungsverbrechen 1945-1948: Bericht des Bundesarchivs vom 28. Mai 1974, Archivalien und ausgewählte Erlebnisberichte*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9).

Plenarprotokolle des Bundestages

Potsdamer Abkommen (1945)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es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Weidlein, Johann, ed.,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Schorndorf: Selbstverlag des Herausgebers, 1958).

2. 단행본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Moeller, Robert G.,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ade, Klaus J., Emmer, Pieter C., Lucassen, Leo & Oltmer, Jochen, eds., *Enzyklopädie Migration in Europa: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07).

Bauerkämper, Arnd, *Das umstrittene Gedächtnis: Die Erinnerung an Nationalsozialismus, Faschismus und Krieg in Europa seit 1945*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2).

Benz, Wolfgang, ed.,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Ursachen, Ereignisse, Folgen* (Frankfurt am Main: Fischer, 1988).

Douglas, R. M. & Richter, Martin (Übersetzer), *“Ordnungsgemäße Überführun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ünchen: C.H.Beck, 2012).

Fischer, Wolfgang, *Heimat-Politiker?: Selbstverständnis und politisches Handeln von Vertriebenen als Abgeordnete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74* (Düsseldorf: Droste, 2010).

Goschler, Constantin, *Wiedergutmachung: Westdeutschland und die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1945-1954* (München: Oldenbourg, 1992).

Kossert, Andreas, *Kalte Heimat: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Vertriebenen nach 1945* (München: Siedler, 2008).

Müller, Matthias, *Die SPD und die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7: Eintracht, Entfremdung, Zwietracht* (Berlin: Lit Verlag, 2012).

Stickler, Matthias, *“Ostdeutsch heißt Gesamtdeutsch”: Organisation, Selbstverständnis und heimatpolitische Zielsetzungen der deutschen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2* (Düsseldorf: Droste, 2004).

Schwartz, Michael, *Vertriebene und “Umsiedlerpolitik”: Integra-*

tionskonflikte in den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en und die Assimilationsstrategien in der SBZ/DDR 1945-1961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4).

Weger, Tobias, “*Volkstumskampf*” ohne Ende?: *Sudetendeutsche Organisationen, 1945-195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8).

3. 논문

송충기, 「역사학과 과거청산: 나치시대 역사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사학』, 제80권(2005).

Robert G. Moe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1(1996).

Axel Schildt, “Antikommunismus von Hitler zu Adenauer”, Frei, Norbert & Rigoll, Dominik, eds., *Der Antikommunismus in seiner Epoche: Weltanschauung und Politik in Deutschland, Europa und den USA* (Göttingen: Wallstein, 2017).

Bernd Faulenbach, “Flucht und Vertreibung in der individuell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Erinnerung”, *BIOS*, 21(2008).

Constantin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Die Vertriebenen und der deutsche Opferdiskurs”,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53(2005).

Ingo Haar, “‘Bevölkerungsbilanzen’ und ‘Vertreibungsverluste’: Zur Wissenschaftsgeschichte der deutschen Opferangaben aus Flucht und Vertreibung”, Ehmer, Josef, Ferdinand, Ursula & Reulecke, Jürgen, eds., *Herausforderung Bevölkerung: Zu Entwicklungen des modernen Denkens über die Bevölkerung vor, im und nach dem “Dritten Reich”*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Mathias 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Hintergründe – Entstehung – Ergebnis – Wirkung”,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50(1999).

_____,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Großforschungsprojekt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46(1998).

Michael Ennis, “Opfer und Täter in den Gustloff-Filmen von Frank Wisbar”, Niven, Bill, ed., *Die “Wilhelm Gustloff”: Geschichte und Erinnerung eines Untergangs* (Halle: Mitteldeutscher Verlag, 2011).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Integrations- und Erinnerungspolitik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6(2008).

Theodor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8(1960).

4. 웹사이트 (강연자료, 연설문, 전기)

“Tafferner, Anton”, <https://kulturportal-west-ost.eu/biographien/tafferner-anton-2>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Aleida Assmann, 2016,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uploads/2016/06/vortrag_aleida_assmann_heinrich-boell-stiftung_flucht_und_vertreibung.pdf (검색일: 2019년 8월 29일)

David Hertl, 2020, “Margarete Schellová popsala zážitky českých Němců po konci války”, <https://plus.rozhlas.cz/margarete-schellova-popsala-zazitky-ceskych-nemcu-po-konci-valky-8198604>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

Ladislaus Buzás, 1953, “Basch, Franz Anton”, <https://www.deutsche-biographie.de/sfz3516.html#ndbcontent>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Winston Churchill, 1946, “Churchill’s speech in Zurich”, https://www.churchill-in-zurich.ch/site/assets/files/1807/rede_winston_churchill_englisch.pdf (검색일: 2021년 1월 25일)

Wolfgang Benz, 2008, “Zur Debatte: Flucht, Vertreibung, Versöhnung”,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geschichte-und-erinnerung/39826/flucht-vertreibung-versoehnung?p=all> (검색일: 2020년 3월 24일)

5. 영화

Teichs, Alf, Meissner, Otto (Producer) & Wisbar, Frank (Director) (1960): *Nacht fiel über Gotenhafen* [Film]. Germany: Deutsche Film Hansa GmbH & Co.

6. 신문·잡지

“Anti-Bolschewismus: Aus jenen Tagen”, *Der Spiegel*, 3(January 13. 1960), pp. 59-60.

“Es geht um die Dokumentation”, *Donauschwäbische Rundschau*, 11(March 16.1958), p. 1.

“Heimatrecht - Menschenrecht: Zum Tag der Menschenrechte”, *Vertriebenen-Korrespondenz*, 20(December 9. 1950), pp. 1-3.

“Tagebuch einer Bevorzugten”, *Vertriebenen-Anzeiger*, 27(July 5. 1958), p. 3.

Anton Tafferner,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Donauschwabe*, 36(September 6. 1959), p. 7.

■ 특집 ■

노라 켈러의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
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

신영헌

I. 머리말

2021년 2월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여성들이었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함으로써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¹⁾ 국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과 반박이 이어졌다. 사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동원된 종군위안부 체제는 2007년 7월 30일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기록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끝난 문제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본의 우익 세력과 일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 1)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전쟁 중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년 3월)에 게재하였다. 위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자발적 계약에 의해 매춘 행위를 한 여성들로, 일본 정부 측의 조직적이거나 강제적인 동원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 2) 차회정,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위안부 문제 형상화 방식-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문학들』 48권(2017), 44쪽.

정부는 틈만 나면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일본의 전략은 종군위안부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한 매춘 여성들로 몰아가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³⁾ 심지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표방해 온 아베 신조 총리조차 2015년 8월 14일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문에서 “우리는 20세기에 전쟁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계속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을 항상 받아 안는 국가이고 싶습니다”라는 언사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⁴⁾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다가도 막상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및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요청은 시종일관 묵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된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의 행간을 읽어보면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국가가 식민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한 종군위안부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건을 “전쟁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라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이런 기초 하에서만 책임 인정과 사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여성들에게

3) 조가빈, 『일본군 ‘위안부’제도 긍정과 부정의 정치적 쟁점: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쪽.

4) 조가빈, 같은 논문, 1쪽.

행해진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아니며, 전쟁이 있는 곳이면 으레 있기 마련인 자발적 매춘 여성들이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 피해여성들 간의 차이를 역사화하지 못하고, 따라서 각 피해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접근이다.⁵⁾ 왜냐하면 “군인들의 매춘을 당시 일본만큼 세세하고 ‘자상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라는 대단히 특수한 전쟁범죄를 전시 매춘이라는 일반적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특수한’ 체험을 되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다. 1997년에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소설 『종군위안부』(*Comfort Woman*)에 새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군위안부』는 이미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제와 서술 기법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해 온 게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독특한 서술기법과 위안부를 둘러싼 식민주의와 폭력의 주제를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존 연구

출간 이래로 『종군위안부』는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작품에 대해 나온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 한정해도 100여 편에 이르며, 해외 연구자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해외 동포 작가의 작품으로는 1995년에 나온 이창래의 『원어민』(*Native Speaker*)을

5)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84쪽.

6)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11쪽.

제외하면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아키코로 대표되는 중군위안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식민담론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식민화된 여성의 몸이나 억압적 식민담론 자체에 비평적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의 몸에 대한 역사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 즉 인종차별주의적 제국주의, 식민주의, 남성중심적 내셔널리즘 등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구은숙의 연구⁷⁾와 “아키코의 몸은 한국의 식민지 근대사와 미국의 소수인종 이주사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이 다층적으로 교차된 억압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변화영의 연구⁸⁾가 대표적이다. 둘째, ‘애도’ 또는 ‘기억’과 ‘죽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분석학적 연구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의 트라우마의 성격과 의미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권택영은 “죽음이 충분한 애도를 받지 못하면 유령으로 출몰”하는데, 자신의 연구를 통해 “『중군위안부』의 서술 형식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기억의 방식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준다.⁹⁾ 조성란은 베카에게 남겨진 카세트테이프 “역사의 증언이자, 애도 받지 못한 중군 위안부들을 위한 애도이며, 애도를 계속하고 쓰이지 못한 역사를 복원해 달라는 후세를 향한 죽은 자의 요청”이라고 해석한다.¹⁰⁾ 셋째, 아키코와 인덕, 베카로 이어지는 여성적 연대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연구가 있다. 여성 연대와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주의적 연구로는, “일본군에서 브래들리 목사로 이어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식민화는 바로 조선과 해방 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억압과

7)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2001), 472쪽.

8) 변화영,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권(2014), 50쪽.

9)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중군 위안부」, 『호손과미국소설 연구』 12권 1호(2005), 222, 231쪽.

10) Sungran Cho, “The Power of Language: Trauma, Silence, and the Performative Speech Act: Reading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Speaking Subjectivity of the Moth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2003), p. 42.

착취를 상징한다”는 구은숙의 연구¹¹⁾와 두 개의 일인칭 서사 구조에 주목해서 『종군위안부』를 분석하는 이귀우의 연구¹²⁾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혼종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산문학적인 연구가 있다. “향수와 민족주의 담론은 민족과 국가를 이미 전제되어 있는 본질적인 개념으로 상정함으로써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억압한다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구재진의 연구¹³⁾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의 재현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최혜실의 연구¹⁴⁾가 그 대표적 예이다.

기존의 방대한 연구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키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일 경우, 그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 관련 주제나 그녀의 트라우마와 이에 대한 애도라는 정신분석학적 논의가 중심에 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죽은 자들과 교감하는 아키코의 다성적 목소리와 서술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된다. 반면에 베카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이산문학적인 관점에서 베카의 정체성 찾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아키코와 베카 둘 다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우, 아무래도 여성적 연대와 다중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본 논문은 크게 보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는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가 1993년 하와이 대학에서

11)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 479쪽.

12)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권(2008).

13)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21권(2007), 401쪽.

14)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22-23쪽.

열린 중군위안부 출신 황금주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쓴 처녀작이다.¹⁵⁾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군위안부』는 아키코-브래들리-순효(Akiko-Bradly-Soonhyo)라는 여성과 그의 딸 베카(Beccah Bradly)라는 두 명의 서술자가 교대로 등장하면서 일인칭 시점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얼핏 보기에 아키코와 베카의 이야기는 별다른 접점이 없이 기계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서술된다. 예컨대 1장은 베카의 서술로 진행되며, 죽은 아버지의 5주기 제삿날에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엄마의 뜬금없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삼십년 동안이나 빌어 왔던 소원이 성취되어 엄마가 드디어 죽었다는 베카의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로 들려지는 서술자의 고백은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2장에서는 1장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또 다른 서술자인 아키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시골 농부의 막내딸이던 순효(아키코)가 큰 언니의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열 두 살의 나이로 일본군의 위안부로 팔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 끝에 위안소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담담하게 서술된다.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와 딸이 교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의 독특한 서술 양식은 중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엄마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듣게 된 딸이 뒤늦게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본 작품의 주제와 절묘하게 연결된다. 베카의 서술에서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한 엄마가 “무아지경(trance)의 상태에 빠져들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서술한다.¹⁶⁾ 이를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는 ‘신내림’이라고 부른다. 결국 딸에게 붙은 살을 떼어내기 위해 딸의 학교를 찾아온 엄마는 한바탕 살풀이 소동을

15)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MELUS* 28-4(2003), p. 154.

16) Nora Okja Keller, *Comfort Woman* (New York: Penguin, 1997), p. 2. 이하 본문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표기함.

별이고, 그런 엄마를 모셔 가라는 말을 들은 베카는 도망쳐 버리는데, 이것은 베카에게 깊은 죄의식으로 남게 된다.

베카의 서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아키코의 서술은 왜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아키코는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닌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동료 종군위안부 인덕(Induk)의 혼령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샤먼이 되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키코가 인덕의 혼령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동기 역시 죄의식이다.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한 뒤 “꼬챙이 꿰어져 길에 버려져 있는 인덕의 시체”(54)를 발견한 아키코와 다른 위안부 여성들은 그녀의 시신을 “강에 데려가 그녀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54)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결국 “결국 군인들이 해 둔 대로 막대기에 끼워진 그녀의 나체를 그대로 두고 그곳을 떠”나고 만다(54). “순효의 신내림은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순효의 자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진순희의 해석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¹⁷⁾ 이처럼 죄의식이라는 공통분모는 아키코의 서사와 베카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 준다. 위안소를 탈출한 아키코에게 나타난 인덕의 혼령은 아무도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된 곡이나 염을 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인덕의 혼령이 소개해 준 만신 아지매의 인도에 따라 평양의 선교원을 찾아간 아키코는 그곳에서 선교사 남편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아키코의 트라우마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또 다른 트라우마의 시작일 뿐이었으며, 그녀에게 남은 위안이라고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순전히 아키코 자신의 아이인 베카뿐이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였지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으며,

17)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2005), 344쪽.

아키코는 차마 딸에게 털어놓지 못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카세트테이프에 남긴다. 카세트테이프에 남겨진 엄마의 유언을 들은 베카는 그제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테이프와 함께 남겨진 편지를 통해 ‘아키코-김순효-브래들리’라는 엄마의 진짜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엄마가 ‘종군위안부’였다는 고백을 듣는 순간 베카가 위경련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고통을 통해 엄마의 트라우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194). 베카는 혼령들과 어울리느라 어린 자신을 방치했다고 느낀 결과 삼십 년 동안이나 엄마가 죽기를 내심 빌어 왔던 것(13)이 오해였으며,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을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가 신령들과 어울리는 동안만큼은 엄마에게 내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보았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방식으로 항상 나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197)

엄마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된다. “죽은 자들의 행렬을 인도해라. 네 빛의 밧줄로 출상을 인도해라. 너의 종을 울려 공기를 정화하고, 너의 노래로 우리를 씻어 다오”(197)라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 베카는 곡을 하고 엄마의 시신을 화장한 후 유해를 강물에 뿌린다. 이는 앞서 인덕의 혼령이 아키코에게 죽은 자에 대한 합당한 장례를 요구하던 장면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보면 아키코가 인덕을 포함한 죽은 자들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 샤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베카가 죽은 엄마의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샤먼의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귀우는 “아키코의 경우와 달리 베카는 강신체험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사제권을 계승하여 샤먼이 되는 세습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해석한다.¹⁸⁾

사실 『종군위안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다.

18)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198쪽.

그러다보니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교훈과 감동을 훼손하거나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한두 개의 주제를 완성도 있게 논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작품일수록 한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작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오독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중군위안부』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작품의 전체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중군위안부』를 아키코-브래들리-순효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이 자신의 혼혈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보고, 어머니가 딸에게 대해 가지는 바람은 무엇이고, 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본 작품의 독특한 서술양식에 대한 이해를 우회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중군위안부』가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최혜실의 주장¹⁹⁾이나, 『중군위안부』의 화자의 층위가 “다성적이고 분열적”인데, 이는 “아키코의 언어가 아키코라는 이름에 갇힌 두 여성의 것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길혜민의 주장²⁰⁾처럼, 아키코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만의 목소리가 아니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결코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아키코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있는 문제이다. 서술방식과 주제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제별로는 여러 가지로 세분되지만, 텍스트의 주요 사건에 대한 개별 해석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키코-순효의 몸에 가해진 일본 제국주의의

19)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22-23쪽.

20) 길혜민, 「일본군 위안부의 유령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3권(2017), 205쪽.

폭력과 이어지는 남편 브래들리 목사로 대표되는 미 제국주의의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평적 쟁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다만 아키코가 베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과 오독이 난무하면서,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동강 물에서 세례를 받는 시점에 강변의 흙을 입안에 넣고 맛을 보는 아키코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엄마의 바람에 대해 베카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종군위안부』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다.

2.2 『종군위안부』의 서술방식

켈러는 이영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러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²¹⁾ 특히 어머니 아키코와 딸 베카가 각각의 이야기를 시간적 연결과 상관없이 교호적으로 진행하는 후자의 서술 방식은 네 명의 화자가 시간적 전후 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현실을 보여주는 전자의 서술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사실 이는 포크너의 문학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면서, 말하기(telling)보다는 보여주기(showing)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모더니즘의 대표적 서사기법이기도 하다.²²⁾

21)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p. 157. 켈러와 모리슨의 문학세계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컨대 차희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회색적 모성이라는 관점에서 『종군위안부』의 성노예 아키코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의 흑인노예 세스(Sethe)를 상기시킨다"(54)고 해석한다. 자신의 딸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는 이유에서 딸을 살해하는 세스와 아키코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포크너의 대표작인 『음향과 분노』와 『종군위안부』의 가장 큰 유사점은 서술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미메시스』에서 에리히 아우얼바흐(Erich Auerbach)는 의식의 다인적 묘사(multi-personal representation of consciousness), 성층화된 시간(time strata), 외부 사건의 연속성의 붕괴, 서술 시점의 잦은 전환(shifting of the narrative viewpoint) 등을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으로 든다. Erich Auer-

이런 특징은 작품의 주인공인 베카가 어린 시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설명하는 첫 장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소설의 첫 문장은 “아버지 5주년 기일에 엄마는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했다”(2)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당시 베카는 열 살 소녀였다. 베카는 “정상적일 때의 엄마를 자신이 사랑했”(3)으며 엄마도 자신을 사랑했건만, “신령들이 엄마를 부르러 오면 엄마는 나를 떠나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4)는 말로 엄마를 소개한다. 신령들에게 사로잡힌 엄마가 때 마침 방문한 레노 아줌마의 아픈 과거를 지적하며 꾸짖고, 엄마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 본 레노 아줌마에 의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유명하신 점쟁이이자 영매”(11)이신 아키코 선생님이 되면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들에 대해 엄마가 말해 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위해 “빌어주고 조언을 해 주”며 살게 된 사정을 설명한다(10).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베카는 “혼령들이 또 엄마를 사로잡으러 오고 있다”(12)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끝에 아무런 설명 없이 다음의 서술이 이어진다.

지금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검은머리 사이로 희끗희끗한 새치들을 본다. 눈을 가늘게 뜨자 눈 가장자리의 주름들이 깊어지며 엄마의 얼굴 같은 내 얼굴이 또렷해진다. 나는 생각한다. 거의 30년이 걸렸다. 거의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셈이다. 어린 시절 내질렀던 소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엄마가 죽었다. (13)

1장 말미를 장식하는 위 문장에서 시간은 베카의 열 살 시절에서 엄마가 죽은 현재의 시점으로 훌쩍 건너뛴다. 현재 베카는 신문사의 부고 담당 기자로 일하는 중이다. 이처럼 이십 여 년의 세월을 훌쩍 넘나드는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이야말로 포크너의 전형적인 서술기법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전통적 소설 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bach, *Mimesis*, Willard R. Trask tr. (New Jersey: Princeton UP, 1968), pp. 536-538, p. 546.

아키코의 분열된 의식과 파편화된 기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런 서술 기법은 『중군위안부』에서 특히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본 작품이 죽은 혼령들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아키코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연결해주는 영매 혹은 샤먼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군위안부』라는 작품 역시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 어머니들의 세계와 딸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영매의 역할을 한다. 죽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의 죽음—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1장의 배치는 죽음이 본 작품의 주제 중 하나임을 절묘하게 보여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은 자는 기어코 산 자의 세계로 되돌아온다는 진리야말로 『중군위안부』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교훈이다.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중재하는 영매로서의 역할을 위해 『중군위안부』가 취하는 서술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언어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 전략이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는 기표(음성이미지)와 기의(의미)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나무]로 발음되는 기표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된 말이다. 그런데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따르면 [나무]라는 기표와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의 결합은 임의적인(arbitrary) 관계이다. 달리 말하면 나무를 [나무]로 불러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이는 동일한 기의에 대해 언어마다 다른 기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한국에서는 [나무]이지만, 영어에서는 [tri:]이며, 독일어에서는 [baum]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임의적이지만 일단 결합하고 나면 일대일의 안정적인 대응을 이룬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²³⁾ 그런데

23)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에 오면 애초에 ‘임의적’이지만, 나중에는

『중군위안부』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듯한 교란적인 언어가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남편을 죽였다는 엄마의 고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의 뜻이 실제로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남편이 죽기를 소원하고 빌었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랐어. 매일 나는 죽어라, 죽어라!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눈길을 보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26-27)

엄마는 남편이 죽기를 빌었던 자신의 소원이 이뤄져서 남편이 죽은 것을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언어 사용은 일상적인 언어사용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파괴하는 의도적 왜곡은 작품의 첫 장면에서 국한되지 않는다. 2장은 베카의 엄마이자 『중군위안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키코가 화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그녀의 첫 마디는 “나의 아기는 내가 이미 죽은 후에 태어났다”(15)는 수수께끼 같은 선언이다. 상식적으로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난산 끝에 사망한 산모의 몸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구해내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두 살 되던 해 나는 살해당했다”(15)는 다음의 문장은 위와 같은 전체를 일축한다.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 문장에서 “열 네 살 되던 해 나는 압록강에 내 얼굴을 비쳤다”(15)고 말하는 아키코의 서술은 독자를 당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안정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전체를 부정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차연’(differance)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차이(difference)와 연기(deferment)라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닌 데리다의 신조어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란 소쉬르가 말하는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기표의 차이와 기의의 끝없는 연기로 이뤄지는 체계이다. 달리 말하면 다수의 기표와 하나의 기의가 결합하며, 따라서 기표는 기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표로 이어지면서 끝없는 기표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 기의는 계속 연기된다. 위에서 예를 든 [나무]의 경우만 보더라도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 가지, 식물 등의 또 다른 기표를 지시할 뿐이다.

열두 살에 살해당한 여자 아이가 어떻게 나이를 두 살 더 먹어서 열네 살 소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얼굴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15)는 이어지는 문장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독자는 아키코를 이미 죽어서 혼령이 된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지 이십년이 지난 후에야 내 육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15)는 서술에 이르면, 열두 살 때의 죽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보면, 열네 살 때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은 것 또한 죽은 것이나 진배없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비틀고 때로는 외연적인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내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중군위안부』의 서술방식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리적인 죽음보다 더 죽음이 가까운 ‘삶’도 있을 수 있다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켈러가 『중군위안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중군위안부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켈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는 남편인 브래들리(Richard Bradly)로 대표되는 미 제국주의와 기독교에 의해 자신의 목소리와 이름을 빼앗긴 아키코가 딸 베카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 준다. 아키코와 베카가 교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중군위안부』는 대위법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위법이란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기법”을 뜻한다.²⁴⁾ 또한 이처럼 두 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서술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플래시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플래시백이란 “작품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삽입된 설화나 장면”을 가리킨다.²⁵⁾ 아키코의 서술은 열 두 살의 나이로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기억부터 딸 베카가

2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1269&cid=40942&categoryId=3299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5)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507쪽.

태어난 지 한 살 되던 시점까지 이어지는 반면, 베카의 경우 이십년 전 아버지의 추도식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어머니의 뜬금없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통해 어머니의 숨겨진 기억과 외상적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는 현재의 시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중군위안부』에는 베카를 통해서 들려지는 아키코의 목소리라는 또 다른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서술 시점의 시차에 대해서 독자들이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아키코의 서술은 베카가 한 살 되는 시점까지 이어진 후 중단되지만, 베카의 서술을 통해 아키코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진다. 따라서 독자는 아키코의 서술이 소설 속 현재로부터 스무 해 전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된다. 이런 서술 구도는 마치 이미 죽은 아키코의 유령이 살아있는 베카를 통해 산 자의 세계로 귀환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베카의 서술 중 많은 부분들이 어렸을 적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며, 그 기억 속에 등장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리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요 심지어 억압의 대상이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정신분석의 대명제처럼, 유령으로 다시 돌아온 엄마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베카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게 된다는 것이 『중군위안부』의 핵심 메시지이다.

본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화법의 문제이다. 소설의 서사에는 대개 세 가지 화법이 사용된다. 직접발화와 간접발화 그리고 자유간접발화이다. 직접발화(화법)는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화법”²⁶⁾을 말한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인용부호 안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다. 간접화법은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²⁷⁾이다. 예를 들어, <He said, “I feel sick now.”>는 전자의 예이고, <He said that he felt sick then.>은 후자의 예이다. 그런데 직접발화에서 인용표시를 없애고

26)표준국어대사전 <https://tinyurl.com/yzgowpbe>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7)표준국어대사전 <https://tinyurl.com/yh5lkgbz>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서술하면 자유직접발화가 된다.²⁸⁾ 예컨대, 위 문장을 자유직접발화로 표현하면, <He said, I feel sick now.>가 된다. 자유직접발화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혼동될 수 있는 모호한 효과를 낸다.²⁹⁾ 또한 “자유직접발화는 등장인물의 내적인 인식 작용 즉 의식적인 생각이나 무의식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연상 등을 포착할 수 있”다.³⁰⁾ 예컨대, 위안소를 탈출해서 선교원으로 찾아간 아키코를 본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는 호랑이가 기른 야생아같아라고 그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적적으로는 인간이지만, 동물들의 언어로만 말할 수 있네.³¹⁾

『중군위안부』의 서술자들인 아키코와 베카의 서술에는 각각 두 개의 시점이 나타난다. 즉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부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베카의 현재이고,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과거 시제로 서술된다. 반면 아키코의 서술에서 현재는 베카가 한 살 무렵이던 시점이고, 그 이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과거 시제로 서술한다. 그런데 “베카가 서술하는 장은 대화가 주로 직접발화로 서술되는 반면, 아키코가 서술하는 나머지 장은 인용표시가 전혀 없는 자유직접발화로 서술되어 있다”.³²⁾ 자유직접발화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인덕의 유령이 아키코에게 비난과 요구를 동시에

28)이 외에도 자유간접발화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인물의 생각이나 말이 서술자의 말과 겹쳐져 이중적 목소리로 나타나도록 하는 문장 기술 방식”을 가리킨다. 네이버국어사전 <https://tinyurl.com/yg463pk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9)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7권 3호(2016), 230쪽.

30)권영민,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154쪽.

31)자유직접발화의 효과 덕분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불분명하며, 선교사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고 마치 유령이 된 아키코가 산 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32)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229쪽.

들려주는 다음의 장면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무도 죽은 자에게 합당한 의식을 치러주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거기 누가 있어 우리를 위해 곡을 하고 우리의
죽음을 알렸지? 누가 엄 의식을 행해서 우리의 시신을 씻기고 입히고
우리의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출상을 했지?

이제 인덕은 말했다. 우릴 인도할 자로는 죽은 자들밖에 없어. (38)

이 문맥을 자유직접발화로 표현함으로써, 아키코에게 하는 인덕의 말이 아키코의 내면의 목소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즉, 어디까지가 인덕의 혼령이 하는 말이고, 어디부터가 아키코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목소리인지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아키코에게 인덕의 혼령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은 인덕의 시신에 대한 합당한 장례 예식을 치러주지 못했다는 아키코의 죄의식임을 감안해 보면, 이런 화법의 사용은 특별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거의 모든 문장을 직접발화로 처리함으로써 원문이 지닌 심오한 효과를 놓치고 만다.

위 인용대목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kok’과 ‘yom’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들은 한국어 ‘엄’과 ‘곡’을 음차한 단어들로서, 저자는 영어에 없는 단어들을 통해서 서술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사실 『중군위안부』 전체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어휘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한미애에 따르면, 이런 어휘들도 세 가지 용례로 구분되는데, 예컨대, ‘연애’(yonae, love match 180), ‘중매’(chungmae, an arranged match 180)처럼 한국어를 음차해서 쓴 후 영어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경우와, “식량을 모아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준비할 때”(as we pooled rations to prepare bi bim kook soo for the afternoon meals, 99)에서와 같이, 문맥으로 음차표기의 의미를 일부 전달하는 경우와 “난 피부 아래에서 불타는 푸른 혈관을 볼 수 있다”(I can see the blue hyolgwang burning under its skin. 85)와 같이 아예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표기가 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예로는 “Abugi, Omoni, Aniya, aigu”(한미애 233) 등이 있는데, 다프나 주르(Dafna Zur)는 이런 방식의 한국어 사용이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무의미하며, 단지 서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³³⁾ 하지만 마이클 할러데이(Michael Halliday)는 이런 표현이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³⁴⁾ 이런 표현들은 “미국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서 정체성이나 이념을 언어어를 통해 표현하는” 예로 볼 수 있다.³⁵⁾

2.3 『중군위안부』에서 제시되는 혼종적 정체성

『중군위안부』를 둘러싸고 대체적인 비평적 합의가 존재한다. 본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갈래가 있어 왔지만, 텍스트에 묘사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비평적 이견이 거의 없는 편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아키코를 유린하면서 내뱉는 일본군 군의관의 폭력적 언사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일본제국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모든 평자들이 동의한다.

의사는 그저 웃으며 내 위로 올라 타 다른 군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을 이용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내 속옷으로 자신의 몸을 닦으며 칸막이를 열고 진찰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견 아직까지 상태가 좋구만. 그는 자신의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그는 내 질의 음순을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말했다. 보이지? 여전히 탄탄하고 촉촉해. (35)

33)Dafna Zur, “Covert Language Ideologi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vailable at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42297.pdf(2002), p. 3.

34)Michael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p. 181.

35)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234쪽.

이 군의관은 임신한 아키코의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 막대기와 쥐약을 고르라고 하면서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들의 차이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는 인종간의 진화적 차이에 대해서와 한 종족의 여성들은 그렇게 순결하고 다른 종족의 여자들은 그렇게도 음탕하게 만든 생물학적 기벽에 대해 떠들어 댔다. 실제로 거의 동물처럼 천박하지라고 그는 말했다. (22)

여기서 군의관은 자신의 망상을 과학적 논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요는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도덕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이다. 이어지는 군의관의 말에는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식민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힘이 있는 한 수컷이 다른 수컷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암컷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연이 보장해 준 것은 종들에게는 참 다행이야. 그리고 암컷들은 항상 그 힘 있는 수컷에게 반응을 하지”(22) 라는 그의 발언에는 우생학에 바탕을 둔 사회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남성우월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힘이 센 수컷이 다른 수컷들을 배제하고 암컷들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그의 믿음은 ‘탈아입구’를 추구하면서 일본이 중심이 되는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이야말로 아시아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신념과 닿아 있다. 두 나라 여자들의 도덕성의 차이 운운하는 군의관의 논리는 일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위안부를 동원하면서도 일본인 여성이 아닌 식민지 여성(중국, 조선, 대만 등)을 주로 동원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결정체”이자³⁶⁾ “한 민족에 대한 집단 강간”(Lee So-Hee 170)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³⁷⁾

36)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477쪽.

37) So-Hee L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From a Perspective of Women Speaking and Writing”, 『영미문학 페미니즘』 10권 2호(2002), p. 170.

막대기로 아이를 강제 유산시킨 바로 그날 밤 아키코가 일본군 병영을 탈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본제국주의의 거짓된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 행위이다.

아키코40으로 불렸던 조선 여성 인덕의 죽음 또한 식민지 여성을 짐승처럼 유린하고 버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충격적으로 증언해준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인덕은 위안부들을 침묵시키는 일본군에게 “나는 한국이며 여자다. 나는 살아 있고 열일곱 살이다. 나에게는 너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 나는 딸이며 누이다”(20)고 외치며 저항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인덕은 밤새도록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계보를 열거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엄마가 전해준 요리법까지 떠들어대면서 소리를 질렀다. 새벽이 오기 바로 전 군인들은 그녀를 막사에서 끌어내 숲으로 데려갔다. 그리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군인들은 마치 구울 준비가 된 통돼지처럼 그녀를 꼬챙이로 질을 찔러 등에서 입까지 췌 채 데려왔다. [니들에게 주는] 교훈이야라고 말하며, 남은 우리에게 입 닥치라고 경고했다. (20-21)

이 장면은 아키코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장 『중군위안부』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군의 조직적으로 동원한 식민지 여성 위안부에 대한 ‘특수한’ 만행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아키코를 포함한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일본 제국주의의 조직적인 학대와 유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일본군 병영을 탈출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나중에 아키코의 남편이 되는 브래들리 목사와 그가 대변하는 미국 사회와 기독교가 일본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비평적 견해가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곳곳에서 아키코는 브래들리와 (성)관계를 일본군의 성적 학대와 연결시킨다. 다음은 브래들리가 자신을 욕망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아키코의 반응이다.

그러나 나는 곧 그의 비밀, 결혼한 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내었다. 그것은 내가 위안소에서 배웠던 비밀이었다. 내리칸 그의 눈과, 강하고 빠른 그의 숨결이, 좁은 엉덩이와 신선한 가슴을 가진 반쯤 굶주린 소녀와 같은 내 몸에 손을 대고 싶은 듯이 옆구리에서 떨고 있는 그의 손을 보면서 나는 그 비밀을 알아보았다. 이것이 그의 죄이다. 그는 이것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여전히 그것을 부인한다. (95)

여기서 아키코는 신의 사랑과 용서 운운하는 브래들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본질상 그것은 위안소에서 자신을 유린하고 학대하던 일본 군인들의 동기와 동일한 것임을 알아차린다. 물론 이것은 어린 나이에 경험한 끔찍하고 고통스런 성적 트라우마를 지닌 아키코가 보인 과잉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결혼식과 이어지는 결혼 생활 내내 보여주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아키코가 추측한 것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는다. 목사의 아내가 되기 위한 절차로 대동강 물로 세례를 받은 아키코가 “공허하고, 좌절하고 버려진 듯한”(103) 느낌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결혼 생활에 대한 계시인 셈이다. 서울로 와서 보낸 첫 날 밤에 아키코에게 하는 브래들리의 말을 통해 그의 속셈이 드러난다.

너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그렇게도 순진해 보이면서도 그렇게 능숙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말이지. 그게 나로 하여금 너에 대해 불 타 오르게 만들어. 넌 처녀가 아니지, 그렇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달콤하게 속삭이며 애무하더니 내 몸에서 옷을 벗길 때 나를 움켜잡고 욕을 했다. 그가 나를 침대에 밀어놓고 내 몸에 올라타 허벅지 사이로 자신을 밀어 넣을 때 내 정신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위안소에서 내 몸은 칸막이 방에 갇힌 채 수많은 남자들의 몸 아래서
꿈쩍도 못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것을 위안소의
경험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106)

아키코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에게 욕을 하며 그녀에게 ‘올라타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웃으며 내 위로 올라타”
그녀를 ‘이용한’ 일본군 군의관의 모습과 겹치지며, 자신을 창녀 취급하는
브래들리와의 첫날밤은 아키코에게 위안소에서 보낸 경험으로 재경험
(relive)된다.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미국에 돌아온 브래들리가
아키코를 대하는 방식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브래들리 목사 부부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한다. “나는 그가 ‘빛을
전파하며 신비한 동양에서의 경험’이라는 강의를 할 때 한복을 입고
옆에 서 있곤 했다”(107)는 아키코의 말에는 자신의 동양인 아내를
자신의 사명과 성취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브래들리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구재진은 “브래들리 목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억압이나 가부장적인 억압의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³⁸⁾ 낮에는 정숙한 목사의 아내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가 밤이 되면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땅은 머리, 크고
멍한 눈, 뽀로통해 금방 울 것 같은 입술”(107)을 원하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여성을 ‘천사와 창녀’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둘 다를 충족시켜주는 여성을 갈망하는 남성들의 로망을 보여준다. 비록
위안소에서의 삶만큼 끔찍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키코는 남편과
보내는 미국생활에 대해 “원 안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107)
고 술회한다. 처음 미국에 건너왔을 때 미국의 풍부함과 부에 놀라던
아키코였지만(108), 그 감탄과 기대가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미국은 나에게 그렇게 보였다. 처음에 볼 때 그것은 반짝이며
꿈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안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꿈은

38) 구재진, 「중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400쪽.

공허하고 거짓이며 빈곤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얼굴도, 어떠한 자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10)

미국에 대한 아키코의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간 요양원 방문 장면이다. 그곳에서 아키코는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의 냄새”(111)를 맡는다. 이 냄새야말로 아키코가 브래들리 목사와 그가 대변하는 미국적 삶의 방식과 종교(기독교)에 대해 지닌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처럼 아키코가 미국(적 삶의 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평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아키코가 자신이 딸에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물려주고 싶어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살게 된 아키코에게 찾아온 인덕의 혼령이 “손가락을 내 입에 대더니 이것—이 아파트, 도시, 주, 그리고 미국—을 내 집으로 만들라고 명령”(113)하는 순간이 아키코에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찾아간 아키코가 거기서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의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서, 이 냄새는 또한 “집 같은 냄새”(111)였다고 한 것이 설명된다. 비록 미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이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로 대변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곳에 새롭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아키코가 발견—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아키코가 결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아키코가 떠난 ‘집’—혹은 ‘고향’—이 그녀에게는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로 대변되는 공간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장면이 바로, 한국을 떠나기 직전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은 아키코가 대동강변의 흙을 먹는 다음의 대목이다.

강가에서 떠나가기 전 나는 허리를 굽혀 땅을 만졌다. 손으로 진흙을 만지다가 재빨리 그것을 조금 입 속에 집어넣었다. 그 흙을 혀와 입천장에 문지르다가 이빨로 갈았다. 피처럼 금속성 맛이 나는 흙을 맛보며 내 나라가 항상 내 일부일 수 있도록 내 몸 속에 받아들이고 싶었다.

Before we left the river's edge, I reached down to touch the earth. I felt the mud under my hands, then quickly took a pinch into my mouth. I rubbed it across my tongue, the roof of my mouth, and I ground it between my teeth. I wanted to taste the earth, metallic as blood, take it into my body so that my country would always be a part of me. (104)

이 대목은 『중군위안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이며, 식민주의와 관련해서 작품을 논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언급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여기서 묘사되는 아키코의 행위에 대해 구재진은 “아키코의 향수의 대상이 어머니에 머물지 않고 모국을 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399)고 보며, 여기서 ‘내 나라’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덧칠되지 않은 순수한 모국의 이미지”로 본다.³⁹⁾ 윤병우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조국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한(reclaim) 절망적인 노력으로 대동강변의 흙을 삼”킨다고 해석한다.⁴⁰⁾ 권택영 역시 “언제나 고국의 흙을 몸 안에 지님으로써 한국에 뿌리내린다는 상징적 의식”으로 해석한다.⁴¹⁾

그러나 이 대목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metallic as blood’라는 표현 때문이다. 영어에서 피와 관련해서 ‘metallic’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모습, 맛, 소리 등이) 금속성의”라는 의미와 나머지 하나는 “금속이 함유된”의 의미이다. 보통 금속성이라고 하면 ‘금속같이 기계적이고 날카로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를 “metallic blood”로 해석을 하면, 금속성의 피 색깔 즉 ‘검붉은’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해석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뉘앙스와 연결된다. 설사 부정적인 뉘앙스를 제하고 읽더라도 아키코의

39)같은 논문, 399쪽.

40)Byung-Woo Yoon, “Difference and Identity: A Reading of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현대영어영문학』 54권 3호(2010). 232쪽.

41)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중군 위안부」, 225쪽.

행동을 조국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은 염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자신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의 기억, 기쁨과 감동 못지않은 슬픔과 배신, 무엇보다도 폭력과 상처-피와 직결되는 개념인-로 다가오는 조국과의 영원한 작별에 대한 보상으로 흠을 맛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조국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조국에 보내는 일종의 작별 인사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장면은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아키코가 취한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제스처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와이로 건너 온 후 딸 베카를 출산한 아키코가 이와 거의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베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소년 선교원의 정원에서 검은 흠을 가져와 차를 끓”(113)여 마신다.

나는 흠을 마시며 자궁 안에 있던 그 애가 집 없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영양분을 그 애에게 공급했다.

그녀가 태어난 후 나는 같은 흠을 젓꼭지에 문지르고 그것을 딸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 애가 처음 젖을 빨면서 나를 담은 흠과 소금과 젖을 맛보면서 내가 그 애의 집이고 앞으로 영원히 집이 되어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163)

소설에서 이 대목은 죽은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인덕의 혼령이 꿈에서 나타나는 장면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사실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병치시킴으로써 아키코의 행동을 인덕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 미국을 집으로 삼으라는 인덕의 명령에 대해, 흠으로 차를 끓여 마실 뿐 아니라 갓 태어난 딸에게 자신의 젓꼭지에 문은 흠을 맛봄으로써 영원한 고향을 만들어주려는 아키코의 행위는 대동강변에서 보여준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흠인지, 어디에서 가져온 흠인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밭을 딛고 서 있는 그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신의 아이가 갖기를 아키코가 바란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평자들이 놓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키코는 중군위안부로서 자신의 비밀을 딸에게 밝히면서 한국의 문화를 그녀가 받아들이고 인간의 영원한 고향을 일깨워준다”는 권택영의 해석은 과도하다.⁴²⁾ 그보다는 “아키코에게 고향은 과거 자신이 태어났던 국가인 한국이 아니”(207)며, 아키코가 “고향을 자신의 몸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가 대동강변의 진흙을 먹고 미국으로 건너오며 시어머니 아파트의 먼지를 삼켜서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든다”는 이귀우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⁴³⁾ 또한 아키코는 “베카가 한국과 미국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윤병우의 해석이 옳다.⁴⁴⁾ 이 점은 다음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난 그녀를 가장 순결하게 하얀 백합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피어난 이 아이가 덩굴손 같은 그녀 몸으로 내가 경계를 넘어가버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다. (116-117)

사실 아키코는 딸에게 백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딸아이 덕분에 자신이 완전히 유령의 세계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현실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한국과 미국 어느 한 나라에 제한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양자의 사이에서 양자의 경계를 초월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행동은 미국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라는 인덕의 명령에 대해 의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아키코의 결심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란 하와이는 혼혈(mixed race)이 표준인 사회”라는 켈러의 발언과도 연결된다.⁴⁵⁾ 실제의 켈러처럼, 작품 속 베카 역시 자신의 혼혈적 정체성과 혼종적 문화

42) 같은 논문, 226쪽.

43) 이귀우,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207쪽.

44) Byung-Woo Yoon, “Difference and Identity”, p. 238.

45)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p. 146.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에 근거한 당당하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것을 아키코는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수치스런 과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인 선교사와 결혼하여 하와이에 정착한다”는 권택영의 해석이다.⁴⁶⁾ “역사적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순효를 평생 수치심과 죄의식 속에 재감금한 것은 다름 아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적 공모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박미선의 독해 역시 같은 맥락이다.⁴⁷⁾ 그러나 평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키코는 종군위안부 경험이 수치스러워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게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향에서의 삶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핏빛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물론 아키코는 종군위안부 시절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트라우마는 일차적으로 인덕에 대한 죄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지, 종군위안부 경험에 대한 수치감이나 죄의식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아키코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한 것은 그의 남편이었다. 이는 베카의 회상을 통해 드러난다.

“조용히 해!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소년들과 형제들이? 베카가 당신 말을 들으면 어떡해? 자신의 엄마가 창녀였다는 걸 알면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 (...)
당신의 침묵으로 그 수치로부터 우리 딸을 보호해주길 부탁해. (196)

결국 베카에게 남겨진 선택은, 침묵을 통해 엄마를 수치스런 창녀로 만들 것인지,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그녀를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을 고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준 위로자로 만들 것인지이다. 동시에 베카의 선택은 자신을 새로운 샤먼으로 부르는 엄마의 부름

46)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 위안부」, 221쪽.

47) 박미선, 「초국가적 문화서사와 재현의 정치」, 『여/성이론』 18권(2008), 153쪽.

(calling)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베카가 꾸는 꿈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엄마의 유해를 강에 뿌린 그날 밤 베카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오랜 동안 해엄을 친 베카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해엄을 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래에서 자신의 다리를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고 돌아본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였다. 나는 고향을 질렀다. 깊은 물에 빠져 익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벌렸지만 오히려 나는 깨끗하고 푸른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나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더 높이높이 해엄치고 있었다. 자유로운 빛과 공기로 어질어질해진 나는 가느다란 푸른 빛 줄기 하나가 땅 아래로 빙빙 돌며 내려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엄마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 주위에 꼭 웅크린 채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213)

이 장면에 대해, 이귀우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씨앗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베카에게 안겨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베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베카의 공수에 의해 독자들에게 아키코의 목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5)고 해석한다. 이는 베카가 어머니의 바람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계에서, 인덕이자 아키코이자 또 다른 이름 없는 중군위안부로서, “내 안에 있는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다른 타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저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암시한다.⁴⁸⁾ “[중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래에 그것의 재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켈러의 말처럼,⁴⁹⁾ 아키코가 베카를 “애도 받지 못한 중군위안부들을 위한 애도”의 행렬을 이끄는 샤먼으로 호명하는 것은 또 다른 아키코들이 생겨나는

48) 신혜정,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 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영어영문학연구』 61권 3호(2019), 176쪽.

49) So-Hee L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p. 171.

것을 막으라는 명령이다.⁵⁰⁾

III. 결론

『중군위안부』는 1997년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아키코로 대표되는 중군위안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식민담론에 대한 연구와, 아키코의 트라우마에 주목하는 정신분석학적 연구, 아키코와 인덕, 베카로 이어지는 여성적 연대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연구,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혼종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산문학적 연구, 그리고 아키코와 베카의 서술이 교호적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서술구조와 서술기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중군위안부』를 어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작품의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오독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아키코에게 있어서 식민지 조국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와 그녀가 베카에게 원했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아키코의 선택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의 회귀로 오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키코와 베카가 교호적으로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서술하는 『중군위안부』의 서술형식 자체가 곧 중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전승하는 가운데 침묵당한 희생자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저자가 보여주는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하는 어휘 사용과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전통적 소설 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아키코의 분열된 의식과 파편화된 기억을 독자들이 수용하도록 준비시킨다. 아울러 자유직접발화라는 아키코의 독특한 서술양식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아키코의 위치를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기법이자, 트라우마라는 말해질 수 없는

50)Sungran Cho, “The Power of Language”, p. 42.

것을 말해야 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분열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군위안부』에 드러나는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키코의 저항을 민족주의로의 회귀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딸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두 문화의 경계에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 것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베카의 꿈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샤먼이 되기를 호명하는 엄마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자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yhshin@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종군위안부』(Comfort Woman), 교호적 서술(antiphonal narration), 자유직접발화(free direct speech), 트라우마(trauma),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y)

투고일: 2021.04.19, 심사일: 2021.05.03,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노라 켈러의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

신영헌

『종군위안부』는 1997년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독특한 서술형식이나 주요 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온 결과, 『종군위안부』의 예술적 성취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종군위안부』의 형식적 특징, 그 중에서도 서술기법을 살펴본 후 이런 특징이 주제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먼저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하는 어휘 사용과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을 통해 저자는 단선적이지 않고 범상치 않은 『종군위안부』의 서사를 독자가 따라오도록 준비시킨다. 특히 아키코의 서술을 특징짓는 자유직접화법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그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주면서,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분열된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키코와 베카가 교호적으로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서술하는 『종군위안부』의 서술형식은 곧 종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전승하는 가운데 침묵당한 희생자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종군위안부』는 아키코의 트라우마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키코는 자신의 딸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두 문화의 경계에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작품의 말미에 나타나는 베카의 꿈은 엄마의 호명에 순응하겠다는 베카의 응답이자 결심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Comfort Woman*: Hybrid Identity Appropriated through Antiphonal Narration and Free Direct Speech

Shin, Younghun

This paper aims to analyze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narrative technique and its theme. Keller's unique use of words and points of view allows readers to accommodate Akiko's nonlinear and incomprehensible memory. Akiko's free direct speech enables her to depict her traumatic experiences at the Japanese "comfort stations" vividly. It is also efficient in showing the divided consciousness of the victims as they describe their unspeakable experiences. The antiphonal narrative structure where Akiko and her daughter, Beccah alternately tells their respective stories is deftly combined with its theme, hybrid identity appropriated through solidarity. In the end, Beccah understands her mother fully and symbolically plays the role of a shaman, restoring silenced voices of the victims and healing their wounds and pains. Akiko wanted Beccah to acquire a hybrid identity, crossing over the border and rooting her life to the earth. Beccah's dream described at the last scene shows she is willing to abide by her mother's testimony and live as a transnational subject who mediates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권영민,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조가빈, 『일본군 ‘위안부’제도 긍정과 부정의 정치적 쟁점: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Auerbach, Erich, *Mimesis*, Willard R. Trask tr. (New Jersey: Princeton UP, 1968).

Halliday, Michael A. K.,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Keller, Nora Okja, 박은미 역, 『종군위안부』 (서울: 밀알, 2008).

_____, *Comfort Woman* (New York: Penguin, 1997).

2. 논문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2001).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21권(2007).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 위안부」, 『호손과미국소설 연구』, 12권 1호(2005).

길혜민, 「일본군 위안부의 유령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3권(2017).

- 변화영,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권(2014).
- 신혜정,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영어영문학연구』, 61권 3호(2019).
-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권(2008).
- 이유혁, 「이동하는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한국인 종군위안부의 트라우마의 초국가적 이동, 그것의 문학적 재현 그리고 식민의 망각에 관하여」, 『인문연구』, 64권(2012).
-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2005).
- 차희정,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위안부 문제 형상화 방식-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문학들』, 48권(2017).
-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 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7권 3호(2016).
- Cho, Sungran, “The Power of Language: Trauma, Silence, and the Performative Speech Act: Reading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Speaking Subjectivity of the Moth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2003).
- Lee, Young-Oak,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MELUS*, 28-4(2003).
- Lee, So-H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From a Perspective of Women Speaking and Writing”, 『영미문학 페미니즘』, 10권 2호(2002).
- Yoon, Byung-Woo, “Difference and Identity: A Reading of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현대영어영문학』, 54권 3호(2010).

Schultermandl, Silvia, “Writing Rape, Trauma, and Transnationality onto the Female Body: Matrilineal Em-body-ment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Meridians: Feminism, Race, Transnationalism*, 7-2(2007).

Zur, Dafna, “Covert Language Ideologi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vailable at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42297.pdf(2002).

3. 웹사이트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zgowpbe>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h5lkgbz>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g463pk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 특집 ■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홍상현

I. 서론

2020년 여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원로 사진가 주명덕의 사진전 《섞여진 이름들》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작가의 신작(新作)이 아니다. 그것은 1966년과 1969년에 각각 전시와 사진집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주명덕 작가의 대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는 1966년 개최한 개인전 《포토에세이 홀트씨 고아원》에서 선보인 작품들을 3년 후인 1969년에 『섞여진 이름들』이라는 이름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한미사진미술관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반세기(半世紀)가 지난 지금 ‘소장품 전시’의 형태로 다시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1966년 4월 24일 서울 중앙공보관 화랑 입구에는 주명덕의 《포토에세이 홀트씨 고아원》의 손으로 만든 포스터가 걸렸다. 전시장 벽면에는 작은 크기의 작품 95점이 빼곡히[원문 그대로] 걸렸다. 동쪽상잔의 비극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참전한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남겨진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가슴 한쪽엔 깊이 새겨진 전쟁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다. …(중략)… 1960년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전쟁의 참담함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20대의 젊은 사진가가 목도한 혼혈고아의 삶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사진가로서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다같이 공감하고 책임져야 할 시대적 문제로 기록해야 했다.¹⁾



전시 포스터 및 전시장 전경²⁾

위의 전시 소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참담한 역사적 사건이 낳은 ‘혼혈 고아’라는 슬픈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60년대에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을 기조로 내세워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낳은 결과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혼혈 고아’라는 또 하나의 슬픈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논의는 뒤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20대 젊은이였던 주명덕의 ‘사진적 기록’ 덕분에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오늘날

1) <http://www.photomuseum.or.kr> (한미사진미술관, 전시 소개. 검색일 : 2021년 3월 23일)

2)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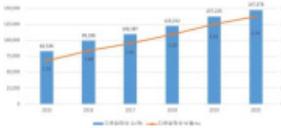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반세기 전 ‘혼혈 고아’들의 모습을 담은, ‘주명덕’의 ‘사진적 기록’을 소개한 이 전시가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21세기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이주-다문화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주와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지도 꽤 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수는 줄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 명을 초과하였다³⁾고 한다.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더 이상 소수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정당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심에는 그들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관련 문제 또한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 다문화학생 현황

- (총괄)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의 지속적 상승
- 전체 학생 수 : (18) 563만명 → (19) 548만명 → (20) 536만명
- 최근 5년 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년에는 14만 명을 초과



- (유형별)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에 뚜렷(20년 전년 대비 약 15% 증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반세기 전에 ‘혼혈 고아’들의 모습을 기록한 『섞여진 이름들』에게 어떤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혼혈 고아’의 교육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는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 수

3) 교육부,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4쪽.

있었다.

“『섞여진 이름들』(성문각)이란 이름의 사진집으로 정리된 이 사진전 출판작들은 당시 주요 일간지들에 ‘혼혈아의 교육문제’라는 제목의 사실이 실리게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사진의 메시지가 사단 내부를 떠나 사회적 반향으로 연결된 흔치 않은 케이스다.”⁴⁾

주명덕의 기록이 “‘혼혈아의 교육문제’라는 사실이 실리게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던 시선과 관심을 조금이나마 ‘혼혈 고아’라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전시는 ‘이주-다문화 시대의 한국’이라는 상황과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든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주명덕의 사진들에 등장하는 ‘혼혈 고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그리고 주명덕의 사진 속 아이들의 시선은 주변의 다문화학생들에 대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편견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주명덕의 사진적 기록이 당시에 사진계 내에서 무작정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다. “주명덕의 리얼리즘은 ‘객관성 위주의 리얼리즘’과 또 다른 성격의 앵글이어서 선배들로부터 ‘미친짓을 한다’는 욕을 먹어야 했다.”⁵⁾라는 이야기에서처럼, 당시에는 과격적인 방법이었다는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2021년에 다시 전시된 『섞여진 이름들』이 갖는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주명덕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⁶⁾로, 한국 다큐멘터리

4) 조우석, 『한국사진가론』 (서울: 눈빛, 1998), 189쪽.

5) 조우석, 같은 책.

6) 2008년 8월 15일,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0》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에서는 생존 원로 사진작가들의 작품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사진의 개념 정립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 사진사(史)에서 다큐멘터리 기록사진의 흐름과 중요한 변곡점을 살펴볼 수 있다. ‘혼혈 고아’라는 소재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물론 그 스스로 그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작가적 역량의 덕분이기도 하겠지만—주명덕이 사용한 방법들은 이전의 다큐멘터리 사진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한국의 현대 사진사 안에서 ‘주명덕’으로 대표되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한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섞여진 이름들』 이후, 현재 21세기 디지털 이미지의 시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진과 다큐멘터리의 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혼혈 고아’는 ‘혼혈인’과 그 2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변화했다.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들의 자리매김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섞여진 이름들』 이후에 등장한 ‘이주-다문화’ 소재의 시각예술 작업들에서는 또 다른 변화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소개된 이 전시가 갖는 이러한 의미들을 기반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혼혈 고아’를 기록한 한 주명덕의 방법이 어떻게 한국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독창적인 영역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주명덕 이후, ‘혼혈인’과 ‘다문화 가정’ 등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시각예술이 진행되어 온 흐름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은 ‘이주-다문화’, ‘디지털 영상 이미지’가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그러한 소재와 방법들을 다루는 사진영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에서부터 21세기의 젊은 사진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진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법의 흐름들을 소개했다. 이 전시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주명덕을 소개했다.

II. ‘현대사진연구회’의 『사안』 6호, 『섞여진 이름들』의 시작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섞여진 이름들』은 1969년에 출간된 주명덕의 사진집의 제목이며, 그것은 1966년 전시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혼혈고아’가 그의 사진 작업에서 소재로 등장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다.

”지난 1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새해 개인전의 첫 tape를 끊은 《어린이의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 소품전》이 본회 회원인 주명덕 씨에 의하여 아담한 ‘Salon d’ alliance’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고, 총 25점을 전시했는데 ”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일간지에 호평리에 소개되었고 회기가 끝나던 15일 하오 7시에는 좌담회까지 갖은 바 있다“ 고 소식을 전했다.⁷⁾

‘현대사진연구회’의 기관지였던 『사안』 6호(이하 ‘기사’)는 「《어린이의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 소품전》의 회고」라는 기사를 통해 주명덕의 소품전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함께 실린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전시에서는 《포토에세이 홀트씨 고아원》과 『섞여진 이름들』의 출발 지점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주명덕의 ‘사진 소품전’ 소개 기사에는 ‘싸롱아루스’⁸⁾ 회원들의 전시 품평이 함께 실려 있다. 그 중 “그 대상이 모두 혼혈아들이었다면 한다.”라는 김행오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명덕 사진에서 ‘혼혈고아’라는 소재의 등장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

7) 「어린이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 소품전의 회고」, 『사안』 6호, 현대사진연구회, 1965, 45쪽; 재인용 박주석, 「1960년대 주명덕과 ‘현대사진연구회’의 관계 연구」, 『AURA』, 제37호(2016), 10-11쪽.

8) 이 단체에 대한 명칭은 ‘싸롱아루스’, ‘살롱 아루스’, ‘쌀롱 아루스’, ‘아루스 살롱’ 등 다양하다(박평중,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단체와 사진담론의 지형: ‘신선회’에서 ‘현대사진연구회’까지」, 한미사진미술관 학술 컨퍼런스 자료집(2016), 20쪽 참조). 본고에서는 박주석과 최봉림 등이 그들의 글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한 ‘싸롱아루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혼혈고아’를 사진작가 주명덕이 주요 소재로 고민한 것은 1966년 이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때까지는 ‘혼혈고아’ 이외에도 비혼혈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일반’에 있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주명덕의 사진에서 ‘혼혈고아’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의 관심은 ‘혼혈고아’보다는 ‘어린이’라는 소재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혼혈고아’라는 소재가 주명덕에게는 그것이 갖는 특수성 보다는 ‘어린이’라는 주제에 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즉, 그의 관심은 ‘혼혈고아’보다는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p>이형록: 작가 자신의 표현의 솔직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동란을 겪은 우리 한국의 동란 이후의 비극적 사회상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풍토적 향취가 있는 작품이 적은 것이 유감이라 하겠으며, 이 전시가 한 주제에 의한 전시이만큼 보다 더 깊은 경지로 파고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p> <p>이상규: 작가 자신이 어린이라는 한 주제 밑에 그 주제를 비교적 파고들었다고 보지만 subject에 대한 지나친 sentimental이 엿보이고 어린이들의 시들과 어두운 mood 작품 중 몇 점은 몇 가지 점에서 불만스럽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소품전은 불우한 혼혈아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그 점이 재미있다고 하겠다.</p> <p>김행오: 이 소품전은 그 대상이 모두 혼혈아들이었다면 한다. 그러나 작품들이 아주 섬세하고 동화적이며 시적 mood가 있어 일반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p>
--	--

『사안』 6호에 소개된 주명덕의 소품전 기사 및 ‘싸롱아루스’ 회원들의 전시 품평⁹⁾

9) 박주석, 같은 논문, 10-11쪽.

이들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명덕이 이미 《홀트씨 고아원전》에서 주제로 삼은 혼혈 고아들의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혼혈고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들의 사진까지 같이 전시를 하고 있었고, 아직은 기록사진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형록은 혼혈고아들의 사진이 너무 많아 한국적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상규는 혼혈아들의 사진이 많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며 다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 사진전 전체가 무거워졌다고 했으며, 김행오의 경우는 혼혈아들이란 단일 주제로 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하고 있다.¹⁰⁾

당시 아마추어 사진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20대 젊은 사진가였던 주명덕이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사’에 대표작품으로 사용된 사진을 보면 ‘혼혈 고아’라는 소재에 대한 그의 작가적인 관심은 이미 충분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행오의 품평은 주명덕으로 하여금 ‘혼혈 고아’라는 소재와 그의 작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대상이 모두 혼혈아들이었다면 한다.”라는 김행오는 지적은 1966년 이전의 주명덕 사진에 대해서 ‘소재 집중의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이는 당시 아마추어 단체 안에서 진지한 사진예술의 탐구가 이루어진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65년의 소품전과 ‘싸롱아루스’ 회원들과의 ‘진지한’ 품평의 과정은 『섞여진 이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다. “이 전시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김행오 같은 주변 어른들의 코멘트를 참고하면서 작업에 대한 확신을 얻었음이 분명하다.”¹¹⁾라는 이야기처럼, ‘기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련의 짧은 사건은 주명덕으로 하여금 ‘혼혈고아’를 자신의 작가적 주요 소재로 선언했으리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10) 박주석, 같은 논문, 11쪽.

11) 박주석, 같은 논문.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품평의 내용은 ‘신선회’에서 시작한 ‘생활주의 리얼리즘’¹²⁾과 사진의 조형성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기사’에 언급된 “본회 회원인 주명덕 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명덕은 ‘현대사진연구회’의 회원이었다. 박주석은 “‘현대사진연구회’는 사진교육 조직을 만들어 후배 사진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싸롱아루스’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해 이형록이 주선했던 단체였다.”¹³⁾라고 ‘현대사진연구회’의 창설 배경을 설명한다. 즉, ‘현대사진연구회’는 ‘싸롱아루스’가 젊은 사진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1961년에 조직한 ‘산하단체’¹⁴⁾이며, 주명덕은 1964년에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따라서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에서는 ‘싸롱아루스’ 설립 초기부터 논의가 이루어진 사진의 방향성과 그것으로의 변화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기사’에 실린 ‘싸롱아루스’ 회원들의 이러한 전시 품평에서는 ‘혼혈 고아’라는 소재와 관련한 부분 이외에도 주명덕 사진이 갖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담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는, 그것이 호평이건 혹평이건, 한국의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주요한 흐름과 『섞여진 이름들』이 갖는 독특한 지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동란 이후의 비극적 사회상을 제시” (이형록)

“subject에 대한 지나친 sentimental이 엇보이고 어린이들의 시들과 어두운 mood 작품” (이상규)

“작품들이 아주 섬세하고 동화적이며 시적 mood가 있어” (김행오)

12) ‘신선회’가 추구했던 방향은 일반적으로 ‘리얼리즘’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회원이었던 임응식에 의해 ‘생활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임응식은 생활주의를 한국적 리얼리즘으로, 말하자면 리얼리즘의 한 범주로 이해한다. 그는 드물지만 생활주의를 생활주의 리얼리즘이라 지칭하기도 한다.”(박평중,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단체와 사진담론의 지형」, 19쪽)

13) 박주석, 「1960년대 주명덕과 ‘현대사진연구회’의 관계 연구」, 8-9쪽

14) 박평중은 “‘살롱 아루스’는 창립전을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해산의 길을 밟았다.”(박평중,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단체와 사진담론의 지형」, 22쪽)라고 ‘싸롱아루스’의 짧은 수명을 이야기했다. 1960년에 결성된 이 단체의 첫 전시가 1961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정도 존재했던 셈이다. 하지만 1961년 결성된 ‘현대사진연구회’는 ‘싸롱아루스’의 해산과 관계없이 1960년대 한국사진의 중요한 담론을 형성했다.

‘싸롱아루스’가 결성되기 이전에 한국의 리얼리즘 사진단체를 표방하며 1956년에 조직된 ‘신선회’가 있다. 그 ‘신선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며 1960년¹⁵⁾에 새롭게 만든 단체가 ‘싸롱아루스’이다. ‘신선회’가 추구했던 사진의 방향은 ‘리얼리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평론가였던 구왕삼의 말대로 이 단체가 종래의 친목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연구단체로 그 특색을 잡았다”¹⁶⁾라는 말처럼, 한국에서 진지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선회’의 창립을 이끌었던 이형록은 “지나치게 소재 중심적이고 사회의 밑바닥을 고발하는 사진이 한계가 왔기 때문”¹⁷⁾이라는 이유로 1960년 ‘신선회’를 해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영수, 이해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정범태, 김행오, 이상규 등 총 6명이 참여한 ‘싸롱아루스’”¹⁸⁾를 창립하기 위해 ‘신선회’를 탈퇴한다. 그리고 ‘싸롱아루스’에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투박하고 거친 리얼리즘 사진에서 벗어나 세련된 조형 감각을 강조”¹⁹⁾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0-60년대의 소규모 사진단체들은 당대의 사진담론이 태어난 요람이자 그 담론을 작품으로 실천해 나갔던 전위대이기도 했다. … (중략)… 한편 생활주의 사진의 편향성에 염증을 느낀 사진가들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살롱 아루스’를 결성하면서 리얼리즘과 조형성의 화해를 시도했다. ‘살롱 아루스’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현대사진연구회’로 이어져 ‘모던 포토’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 나갔다.²⁰⁾

‘신선회’로부터 ‘싸롱아루스’로 진행된 한국의 초창기 다큐멘터리 사진의 흐름에서 중요한 논의는 두 가지였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리얼리즘을

15) 박주석의 글에서는 이형록을 인용하면서 1961년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16) 박주석, 「1960년대 주명덕과 ‘현대사진연구회’의 관계 연구」, 8쪽.

17) 박주석, 같은 논문.

18) 박주석, 같은 논문.

19) 박주석, 같은 논문.

20) 박평중,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단체와 사진담론의 지형」, 13-14쪽.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표방하는 생활의 기록인가, 아니면 조형성과의 화해인가. 이러한 논의와 대립의 그 과정에서 주명덕의 등장은 그러한 흐름에 새로운 줄기를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친짓’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파격적인 앵글을 보인 주명덕의 작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화면의 배경으로부터의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인물의 표정에 집중, 근접 촬영으로 인한 소재의 부각, 그리고 그렇게 부각된 대상이 ‘혼혈 고아’라는 점 등이다.

이상규의 품평에는 ‘불우한 혼혈아’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당시 ‘혼혈 고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마도 그것이 주명덕 이전에 ‘혼혈 고아’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사진 작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섞여진 이름들』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심지어 부연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 배경 없이(근접 촬영으로 인한 포커스 아웃) 그들의 표정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subject에 대한 지나친 sentimental’, ‘어린이들의 시들고 어두운’ 등의 이야기는 ‘짜롱아루스’가 ‘신선회’와의 차이를 선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명덕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신선회’와 ‘짜롱아루스’의 노선 대립을 넘어서서, 소재적 측면과 그 소재를 다루는 사진적 방법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한영수, ‘서울 소공동’,
1956~53.



이형록, ‘강변
서울한강’, 1957.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 (1969) 중.

사진의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Ⅲ.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이후 한 세대, 이재갑의 『또 하나의 한국인』

주명덕 이후 한국사회의 ‘혼혈인’을 소재로 한 사진작업은 2005년 사진집의 형태로 출간한 이재갑의 『또 하나의 한국인』으로 이어진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이재갑의 작업은 1997년 개인전²¹⁾을 통해 두 차례 발표된 이후, 2005년 사진집을 출간하며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혼혈 고아’를 소재로 한 『섞여진 이름들』의 출간 이후, 36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05년에 『또 하나의 한국인』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홀트씨 고아원전>이 발표된 이후 <혼혈인-내 안의 또 다른 초상>이 발표된 것도 31년의 시간이 걸렸다. 즉, 이 두 작업 사이에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며, 그러한 시간적 간극을 갖는 만큼 그 둘 사이에는 몇몇 차이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종현은 그의 연구들²²⁾에서 이 두 작업이 갖는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섞여진 이름들』	『또 하나의 한국인』
제목의 의미	표면적 상황과 표피적 감성[필자수정]에 호소	혼혈아와 일반이 모두가 같은 ‘가족’, ‘민족’
촬영 대상	혼혈 고아	성인이 된 혼혈인과 그 어머니
작가의 시선	당시 사회 일반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	혼혈인 가족의 삶에 밀착한 따뜻한 시선
대상의 시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혼혈아들의 전형적인 눈빛	혼혈인 각자의 개별성, 개인성을 드러냄

박종현이 구분한 『섞여진 이름들』과 『또 하나의 한국인』에 나타난 특징들

21)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결과물들은 1997년, 삼성포토갤러리(서울)와 동아미술관(대구)에서 <혼혈인 - 내 안의 또 다른 초상>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에서 소개되었다.

22) 박종현,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잉여와 상처 - 혼혈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진의 시선」, 『기초조형학연구』, 12권 2호(2011); 박종현, 「침묵의 디아스포라 - 양공주와 혼혈아 재현방식」, 『기초조형학연구』, 17권 1호(2016).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섞여진 이름들』 (1969)

『또 하나의 한국인』 (2005)

두 작업이 갖는 차이에 대한 논의는 소재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주명덕의 작업은 ‘혼혈 고아’를 소재로 한 반면에, 이재갑의 작업은 성인이 된 혼혈인들의 모습과 그 가족 및 주변인들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다. ‘혼혈아’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비교가 필요하다²³⁾고 밝힌 박종현은 사진전의 제목이 갖는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작품 속 대상을 향하는 작가의 시선에 까지 이르는 몇몇 차이들을 설명한다.

주명덕은 <섞여진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진의 내용들도 주로 혼혈아들에 대한 표면적 상황과 표피적 삼성[원문 그대로]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재갑은 <혼혈인-내 안의 또 다른 초상>에서처럼 혼혈아를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은 혼혈아와 일반인이 모두가 같은 “가족”, “민족”임을 사진으로서 설명하고 있다.²⁴⁾

<섞여진 이름들>은 사진적 가치는 당시 한국 사진계가 살롱사진과 리얼리즘 사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규범과

23) 박종현, 「침묵의 디아스포라 - 양공주와 혼혈아 재현방식」, 238쪽.

24) 박종현, 같은 논문.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이 사진의 역사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혼혈인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략)…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이 혼혈아를 포착한 반면, 이재갑의 <또 다른 한국인>은 혼혈아가 아닌 성인(혼혈인)을 사진의 소재로 삼았다. 또한 이재갑의 사진에서는 주명덕의 사진에서처럼 혼혈아들의 경계의 눈빛이라거나 전형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각 혼혈인들의 개인성과 개체성이 나타난다.²⁵⁾

이재갑은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는 혼혈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알 수 있다. 사진 속의 혼혈인들은 몸짓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각자의 개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눈빛 또한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당하는 혼혈인들의 정형화된 눈빛이 아닌 개인성을 드러내고 있다.²⁶⁾

물론, 두 사진작가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의 중요한 근거는 작가가 갖는 ‘작가적 시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진작가의 작업에는 3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만큼, 시대적·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떠나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의 변화 또한 작가적 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또 당시의 사진작업 스타일의 변화 등도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섞여진 이름들』과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한국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사진집 후반부에 등장하는 단체 기념사진들이다. 비혼혈인들과 함께 참여한 행사에서 찍은 단체 기념사진들에 등장하는 혼혈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 사진 속 ‘혼혈인’들은 정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혹은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25) 박종현,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잉여와 상처」, 199-200쪽.

26) 박종현. 198쪽.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혼혈 고아’가 아니며, 이방인도 아니다. 그 단체 기념사진 속 혼혈인 각각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의 기념사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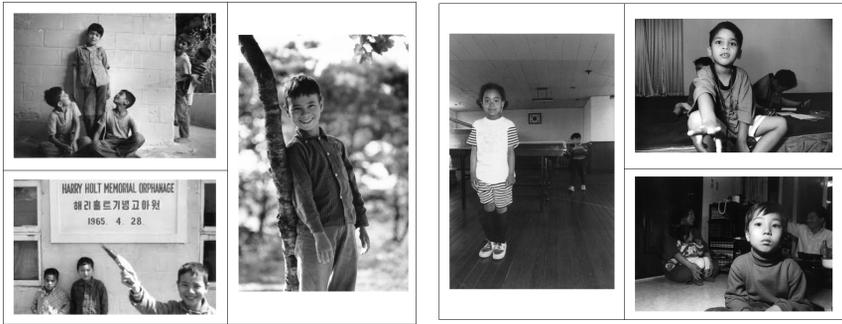
『또 하나의 한국인』 속 단체 기념사진

그런데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섞여진 이름들』에서는 없었던, 『또 하나의 한국인』의 단체 기념사진이 가능했던 것은 3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체 기념사진들 속 주인공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은 작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이 가져온 시대적·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그 ‘단체 기념사진’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작가는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섞여진 이름들』의 시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우리 사회를 재정비하고자 했던 혼란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재정비의 방법을 경제개발이라는 물질적 자원 정비에서만 찾고자 했을 뿐, ‘혼혈 고아’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시절이었다. 따라서 『섞여진 이름들』 속 주인공인 아이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혼혈 1세대’이자, ‘전쟁고아’이기도 했다. 즉, 그들은 전쟁에게 부모를 빼앗겼으며, 우리 사회로부터도 ‘불우한 혼혈아’라며 냉대를 받던 존재였다. 따라서 우리는 『섞여진 이름들』

에 등장하는 그들의 시선에서 어떠한 ‘경계심’ 같은 것이 보인다면, 그 이유를 ‘혼혈’에서 찾는 일에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히려 ‘전후 세대’와 ‘고아’라는 존재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혼혈’이라는 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섞여진 이름들』 속 주인공들의 표정이 늘 경계의 눈빛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오히려 천진하게 장난스런 표정을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그 표정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흔하지 않은 물건이었던 ‘카메라’라는 기계장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표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가졌던 ‘경계의 눈빛’에는 그 신기한 기계장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섞여진 이름들』과 『또 하나의 한국인』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에서는 오히려 30여 년의 시간의 간극을 찾아보기가 힘들기도 하다.



『섞여진 이름들』 속의 아이들

『또 하나의 한국인』 속의 아이들

『섞여진 이름들』보다 30여 년 이후에 발표된 『또 하나의 한국인』는 시기적으로 한 세대가 지난 이후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혼혈’ 2세대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은 ‘전쟁고아’가 아니다. 즉, 『또 하나의 한국인』의 이야기는 『섞여진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이름들』로부터 온전히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혼혈’이라는 교집합만을 가졌을 뿐, ‘다른 시대’의 ‘다른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²⁷⁾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섞여진 이름들』에 등장하는 ‘혼혈 고아’를 바라볼 때와 『또 하나의 한국인』에 등장하는 ‘혼혈인 가정’을 향할 때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한국인』에 그려진 혼혈인 가정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의 카메라를 향하는 시선과 그 대상을 향하는 카메라의 시선의 문제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진적인 방법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재갑의 사진은 혼혈인과 그 가족들의 삶에 좀 더 밀착되어 있다.”²⁸⁾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사진적 방법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재갑의 사진에서 이야기되는 ‘그 가족들의 삶에 좀 더 밀착된’ 장면들은 같은 시기에 작품을 발표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한국인』의 출간과 비슷한 시기에 ‘가족’을 소재로

27) 『또 하나의 한국인』에는 『섞여진 이름들』 속 ‘혼혈 고아’와 같은 ‘혼혈 1세대’의 인물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그들은 더 이상 ‘혼혈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그들을 ‘혼혈 고아’로 보아서도 안 된다. 굳이 그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비혼혈인 가정과 구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오늘날의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8) 박종현, 같은 논문, 198쪽.

김옥선과 이선민이 발표한 작업들에서도 이재갑 사진에서와 비슷한 화면의 구성이 보인다. 그들의 작업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유형학(Typologie/Typology) 사진²⁹⁾의 흐름과 닿아 있다.³⁰⁾ 유형학적 사진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삶과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은 사진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재갑의 작업기간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이재갑의 사진에 혼혈 가정의 삶에 밀착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진적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의 한국인』
(2005)

이선민, <도계프로젝트>
(2007)³¹⁾

김옥선,
『happytogether』³²⁾

그러므로 주명덕과 이재갑의 사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은 ‘혼혈인’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구분은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29) 독일의 베허부부(Bernard, 1931~2007 & Hilla Becher, 1934~2015)가 1950년대 후반에 뒤셀도르프에서 시작하여 안드레아스 구르스키(Andreas Gursky, 1955~), 토마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1954~), 토마르 루프(Thomas Ruff, 1958~)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30) 본고에서는 그들의 사진이 유형학적 사진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31) 박건희문화재단, <이선민_도계프로젝트> 소개. <http://geonhi.com/korean/%EC%9D%B4%EC%84%A0%EB%AF%BC-%EB%8F%84%EA%B3%84-%ED%94%84%EB%A1%9C%EC%A0%9D%ED%8A%B8/> (검색일: 2021년 4월 8일)

32) <http://www.oksunkim.com/works/1> (김옥선 작가 홈페이지.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사진적 기록 방법의 변화라는 흐름 안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즉, 1960년대의 ‘리얼리즘’과 2000년대의 ‘유형학적 사진’이라는 한국 사진의 방법론적인 변화의 지점에 그 두 작가의 작업이 위치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두 작업에서의 대상이 혼혈 1세대와 2세대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그 둘은 한 세대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따라서 두 작업이 위치해 있는 그 지점은 ‘혼혈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우리 사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의 변화 또한 함께 하고 있다.

IV. 『섞여진 이름들』 이후 반세기, ‘이주-다문화’ 소재 사진영상의 현재

“가장 아쉬운 점은 혼혈인을 살펴보는 사진 텍스트가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과 이재갑의 『또 하나의 한국인』 밖에 없다는 점이다.”³³⁾라는 이야기는 깊은 공감을 함께 하는 부분이다. 이재갑의 작업이 발표된 후 6년 뒤에 진행된 박종현의 연구에서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작업 이후에도 한국에서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이루어진 사진작업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옥선의 사진집 『happy together』는 이재갑의 책 이후 1년 뒤인 2006년에 발간되었다. 『happy together』는 당시 유행하던 사진적 방법을 사용하여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한국인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의 공간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사진들은 작가가 2002년부터 두 차례의 개인전³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작가의 작업 시점은 더 앞선 시기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임종진의 작업 또한 앞선 두 작업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주-다문화’를

33) 박종현,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잉여와 상처」, 200쪽.

34) 〈해피 투게더 Happy Together〉(2002)와 〈You and I〉(2005). <http://www.oksunkim.com/books> (김옥선 작가 홈페이지.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소재로 하고 있다.



김옥선, 『happy together』 (2006)³⁵⁾



“어므니이~. 어데 갔다 와아?”

“참이는 필리핀 처녀랑 결혼시킨다고 해서 걱정도 많았당계. 근디 인자는 안 그려. 복덩이 들어왔다고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라제.”

[임종진의 삶이 있는 풍경] 이미 ‘우리’인 그들³⁶⁾

35) 김옥선, 『happy together』 (2006)

36)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21711923115>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happy together』 이후 그 주제에 대한 김옥선의 작업은 『No Direction Home』 으로 이어진다. 거기에서는 “작가가 그 동안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다뤄온 여성의 몸, 국제결혼 남녀의 일상, 동성애 커플,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 등 동시대의 이슈이지만 주류에서 비켜선 문제들”³⁷⁾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임종진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갤러리류가현, 2021년 3월 9일~28일)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에서 그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이룬 공감’을 보여주었다.³⁸⁾ 결국, 이 두 작업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혼혈인’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혼혈’이라는 국소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얼리즘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형학적 사진 등 사진적 기록에서의 재현 방법의 변화는 그 각각의 시기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문제를 소재로 만났다. 즉, 우리의 논의에서는 ‘혼혈 고아’에서 ‘혼혈인 가정’을 거쳐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주명덕에게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혼혈인’의 문제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이방인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져, ‘이주-다문화’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적 흐름의 순간마다 ‘사진적 기록’은 그 모습을 달리 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시각예술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임종진의 최근 작업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창작자로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37) <http://www.oksunkim.com/books> (김옥선 작가 홈페이지.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38) 이한기, 경계를 허물고 구분짓지 않는, 남·북한 주민 8명의 ‘공감 사진전’,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881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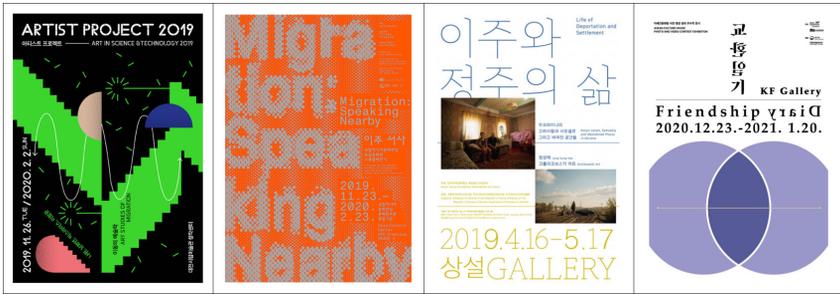
피스모모, 공감아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주최와주관을 담당³⁹⁾했다. 즉, 임종진의 작업에서는 작가 한 사람의 시선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내며, 그 프로그램의 기획 또한 작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전시의 주체와 기획의 주체 등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인 방법의 시각예술 전시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이주-다문화’ 소재의 전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현대의 시각예술 전반에 걸친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소통’과 관계된 내용이며, 따라서 ‘이주-다문화’ 주제의 전시에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다문화 및 이주정책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기획전 같은 행사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있었던 ‘이주-다문화’ 관련 전시들로는 <이주를 바라보는 예술의 시선>(대전시립미술관, 2019년11월26일~2020년2월2일), <이주서사 Migration: Speaking Nearby>(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년11월23일~2020년2월23일), <이주와 정주의 삶>(안동문화예술의전당, 2019년4월16일~2019년5월17일) 등이 있다. 그리고 아세안문화원에서는 <교환일기>(아세안문화원, 2020년9월24일~11월29일/한국국제교류재단 KF갤러리, 2020년12월23일~2021년1월20일)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주와 정주의 삶>은 사진작품만으로 구성되었고, <이주서사>는 비디오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주를 바라보는 예술의 시선>은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이 이주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술과 과학 사이 융·복합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⁴⁰⁾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처럼, 사진,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시각영상 작품들로 구성했으며, <교환일기>에서는 주로 사진과 영상 작품을 사용하였다.

39) 같은 글.

40) 서현욱, 이주를 바라보는 예술의 시선, 『뉴스랩』, 2019년 11월 14일.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52>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이주를 바라보는 예술의 시선>, <이주서사 Migration>, <이주와 정주의 삶>, <교환일기>의 전시 포스터

이 전시들로부터 우리는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시각예술의 분야에서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전시들에는 사진과 함께 비디오 영상 작품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⁴¹⁾이다. 앞서 살펴본, ‘혼혈 고아’와 ‘혼혈인’을 다룬 두 작업에서 우리는 늘 사진의 기록적 속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기록을 작가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진이 유일했다는 점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영상이나 영화적인 기록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이미지는 대부분 사진 기록들이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개인 영상장비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영상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영역이 되었다는 말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영상장비는 사진과 영상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이미지와 영상의 제작과 배포의 용이함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라고 일컬어지는 세대의 등장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유목생활이 디지털 방식의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41) 이는 비단 이주와 관련된 작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현재 시각영상 예술 분야 일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나의 근거가 된다. 결국, 사진적 방법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그로 인한 담론 형성의 변화 과정에 과학기술적인 발달과 변화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적인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두 번째 단계인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사진 영상의 방법의 변화로 이어진다. <교환일기>는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과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아세안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영상 공모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전시는 “54일의 공모기간(2020.3.2~4.24) 동안 15개국에서 총 750점의 작품들이 접수”⁴²⁾ 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공모전소식을 듣고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안에 잠자고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꺼내어 살펴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⁴³⁾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시각예술의 창작 행위는 소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또 그것은 사진과 영상의 벽을 허문 것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관람자라는 전통적인 구분의 경계도 허물고 있다. 사진과 영상의 창작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주-다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계하는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서 ‘대변(代辯)’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통의 방식이었다. 시각예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사진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에 의해 ‘관찰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42)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교환일기> 전시 소개, <https://www.ach.or.kr/user/program/detail?pno=1923>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43) 같은 글.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사진과 영상의 창작의 보편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혼혈인을 바라보는’ 리얼리즘과 다큐멘터리적 일방향적이었던 사진의 시선이 이제는 ‘이방인이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담론의 시작 지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매체로의 변화는 세 번째 단계,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시각예술의 효과를 ‘교육’적인 부분으로 확대-응용으로 이어진다.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교육’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사진’과 ‘영상’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만남’, ‘배움’, ‘놀이’, ‘일과 휴식’, ‘축제’, ‘여행’과 같이 크거나 작은, 특별하거나 사소한 일상 속 사건들을 통해 타인을 알아가고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⁴⁴⁾

<교환일기> 전시 소개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이주-다문화 시대의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적 조응’에 대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화적 조응(cultural responsive)’은 다양한 문화적 토대를 가진 학생들에게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이다.”⁴⁵⁾라는 이야기처럼, ‘이주-다문화 시대의 한국’에서 ‘문화적 조응’은 교육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사진과 영상의 보편화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우선 살아있는 현실을 ‘직접적일 뿐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카메라가 담아냄으로써 그것을 매개로 현상에 대한 기억을 한 단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고 재구성해가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44)같은 글.

45)같은 글, 228쪽.

사진은 촬영된 것에 대한 단순한 설명 이상의 것을 끌어냄으로써 문화의 보다 깊은 측면, 즉 감정, 태도, 가치, 느낌 등에 도달하는 귀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사진이 가진 힘은 때로 타문화적 존재라는 선이해를 통해 분절되어 있던 폐쇄적 일상을 우리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로 변환시키곤 한다. 다양한 이야기, 즉 다양한 텍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사진이미지의 상호텍스트성은 다문화적 주체의 대화를 매개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⁴⁶⁾

‘현실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담아내는’ 것은 사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사진적 특성을 “파이닝거⁴⁷⁾는 사진을 ‘가장 완벽한 상형언어’라고 한 것”⁴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과거 『섞여진 이름들』이 출간되었을 때, “주요 일간지들에 ‘혼혈아의 교육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리게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사진의 그러한 기능 덕분일 것이다. “문화들 간에 뚜렷하게 대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⁴⁹⁾라는 다문화 예술(음악)의 교육에서의 이야기는 ‘사진’이라는 직접적인 시각적 소통의 매체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완벽한 상형언어’로서 사진이 갖고 있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기능은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분위기 안에서 그것이 추구하는 ‘상호소통’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주-다문화 시대’, ‘디지털 시대’ 한국에서 사진영상이 갖는 그러한 상호소통 기능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영역

46) 권효숙, 「다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진활용의 가능성 탐색」, 『열린교육연구』, 19권 3호(2011), 235쪽.

47) 프랑스 태생의 미국 사진가 안드레아스 파이닝거(Andreas Bernhard Lyonel Feininger, 1906~1999)

48)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 열화당, 1998), 17쪽.

49) Eckhard Nolte, *Interkulturelle Musikerziehung: Theoreme und grundschulspezifische Aspekte*, in: 「각국 초등학교에서의 간문화적 음악 교육의 전망」, 2004년 대구교육대학교 국제학술세미나, 대구교육대학교, 21-64쪽; 재인용 민경훈,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권 1호(2009), 100쪽.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확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늘날 이주의 문제는 역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법과 제도 등 한정된 분야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는 동시대를 사는 인류 공동의 논의를 도출하고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여러 분야들 각각의 외연 확장이 만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주의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담론에는 늘 사진의 기록이 함께 자리했다. 그것은 사진의 기록적 속성이 역사학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학문에 사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료를 제공하는 사진적 기록이 예술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섞여진 이름들』로 대표되는 주명덕의 사진적 기록은 이주와 다문화를 소재로 다룬 사진적 기록 또한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열어 두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또 다른 『섞여진 이름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들로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공동의 논의’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대적 분위기이기도 하다.

『섞여진 이름들』과 『또 하나의 한국인』,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다문화’ 소재의 시각영상 전시들은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와 ‘이주-다문화 시대’로의 변화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섞여진 이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이주-다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로서의 예술사진은 어떠한 새로운 모습과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기대를 함께 해볼 수도 있다.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버려진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러한 혼혈아들은 생김새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걸도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작가의 현실 고발적인 이 사진들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한국인들의 순혈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⁵⁰⁾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조교수, hong@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이주사진(migration photography), 다문화사진(multi-culture photography), 주명덕(Joo Myung-Duck), 섞여진 이름들(The Mixed Names), 디지털 영상(digital video)

투고일: 2021.04.14, 심사일: 2021.05.03, 게재확정일: 2021.05.04.

50) 강세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모닝 스트레인저展>으로 영등포에서 마지막 전시, 『전남중앙신문』, 2013년 12월 6일. <http://www.jn-joongang.co.kr/1>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국문초록>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홍상현

2020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원로 사진가 주명덕의 사진전 《섞여진 이름들》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한국전쟁’이 낳은 ‘혼혈 고아’라는 또 하나의 슬픈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1960년대 후반, 당시 20대 젊은이였던 주명덕의 ‘사진적 기록’ 덕분에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오늘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주명덕의 작업이 이루어진, 초창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분위기는 ‘신선회’로부터 ‘싸롱아루스’로 진행되면서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생활의 기록인가, 아니면 조형성과의 화해인가,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명덕의 등장은 그러한 흐름에 새로운 줄기를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혼혈 고아’를 촬영한 주명덕의 사진은 주요 일간지들에 ‘혼혈아의 교육문제’라는 제목의 사실이 실리게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주명덕 이후 ‘혼혈인 2세’,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소재로 하는 사진 작업들은 후배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주-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시각예술은 현재 ‘비디오와의 융합’, ‘상호소통적 예술’, ‘문화적 조응의 방법에 의한 교육적 목적으로 확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사진 작업에서 시작된 ‘혼혈인’에 대한 관심 덕분에, 우리가 ‘이주’와 ‘다문화’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큰 무리는 아닌 듯하다.

<Abstract>

Joo Myung-Duck's *The Mixed Names*, which we opened again in the era of "migration-multicultural Korea"

Hong, Sanghyun

In 2020, the Hanmi Museum of Photography, located in Seoul, hosted a photo exhibition, *The Mixed Names*, by a photographer Joo Myung-duck. This exhibition are about the stories of the sad consequences of the 'Korean War', that is 'mixed-orphan'. Thanks to the "photographic record" of Joo, a young man in his twenties at the time of late 1960s, it is possible for us to reconsider the problems of those times today.

The main argument of the early Korean documentary photography, in which Joo's work was made, was being proceeded in two ways: whether it was a record of a life advocating realism or reconciliation with formativeness as it is progressed from "Shin Seon-hoe" to "Salon Ars". In the process, it can be thought that the appearance of Joo became an event creating a new stream in such trends. Joo's photo of "Mixed-Blood Orphans" was so influential that an editorial titled "Mixed-Blood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was published in a major newspaper.

Since Joo, photographic works on subject of "Mixed-Blood 2nd Generati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continued. Visual arts on "immigration-multiculturalism" are currently showing "convergence with video," "intercommunicative art," and "expansion to educational purposes by means of cultural coordination". Thanks to the interest in 'mixed people' begun from Joo's photographic works, we could have prepared today's discussion about 'migration' and 'multi-culture'.

‘이주-다문화 한국’ 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0』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08).

신수진, 주명덕, 『주명덕』 (서울: 열화당, 2006).

이재갑, 『또 하나의 한국인』 (서울: 눈빛, 2005).

조우석, 『한국사진가론』 (서울: 눈빛, 1998).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 (서울: 시각, 2015).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 열화당, 1998),

2. 논문

권효숙, 「다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진활용의 가능성 탐색」, 『열린교육연구』, 19권 3호(2011).

민경훈,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권 1호(2009).

박종현,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잉여와 상처- 혼혈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진의 시선」, 『기초조형학연구』, 12권 2호(2011).

박종현, 「침묵의 디아스포라 - 양공주와 혼혈아 재현방식」, 『기초조형학연구』, 17권 1호(2016).

박주석, 「1960년대 주명덕과 ‘현대사진연구회’ 관계연구」, 『AURA』, 제37호(2016).

박평중,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단체와 사진담론의 지형: ‘신선회’에서 ‘현대사진연구회’까지」, 한미사진미술관 학술 컨퍼런스 자료집 (2016).

3. 웹사이트 (보도자료 및 이미지 출처)

강새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모닝 스트레인저展>으로 영등포에서 마지막 전시, 『전남중앙신문』, <http://www.jn-joongang.co.kr/1>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교육부,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3613> (검색일: 2021년 2월 27일)

김옥선 작가 홈페이지, <http://www.oksunkim.com/>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박건희문화재단, <이선민_도계프로젝트> 소개, <http://geonhi.com/korean/%EC%9D%B4%EC%84%A0%EB%AF%BC-%EB%8F%84%EA%B3%84-%ED%94%84%EB%A1%9C%EC%A0%9D%ED%8A%B8/> (검색일: 2021년 4월 8일)

서현옥, 이주를 바라보는 예술의 시선, 『뉴스랩』, 2019년 11월 14일.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52>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교환일기> 전시 소개, <https://www.ach.or.kr/user/program/detail?pno=1923>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이한기, 경계를 허물고 구분짓지 않는, 남·북한 주민 8명의 ‘공감 사진전’,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881 (검색일: 2021년 4월 11일)

임종진, 임종진의 삶이 있는 풍경, 한국일보, 2016년 8월 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21711923115>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한미사진미술관, 《섞여진 이름들》 전시 소개, <http://www.photomuseum.or.kr> (검색일: 2021년 3월 23일)

■ 논문 ■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박민경

I. 머리말

웅진도독부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고토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당의 기미지배 체제이다. 기미란 고삐를 느슨하게 잡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사적 정벌이나 군현화의 강제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인신지배의 강요 등의 배제를 의미한다.¹⁾ 따라서 당은 도독부를 설치한 후 이민족의 수장이나 유력자를 都督 및 刺史·縣令 등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하였다.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시 백제의 왕자였던 扶餘隆과 관료들을 웅진도독 및 장사·현령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면서도 당 본국인인 劉仁軌와 劉仁願을 ‘鎭將’ ‘郎將’ ‘帶方州刺史’ 등의 직책으로 백제고토에 머무르게 하고 웅진도독부를 통한 대외정책 등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당 본국인과 백제계 관료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웅진도독부의 활동양상 및 그에 따른 성격규정은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1165).

1) 김한규, 『天下國家』 (서울: 소나무, 2005), 121쪽.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학계는 일·당간 교섭 및 우호관계 회복여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초기 연구자로는 池内宏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도독부의 위치 고증 및 일·당 간의 교섭여부 및 목적에 집중하였고, 특히 일·당의 교섭 목적은 ‘百濟領의 안전을 주안으로 하는 修睦’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²⁾ 鈴木靖民은 웅진도독부(당) 측의 왜국교섭 목적은 국교회복에 있었으나 왜국 측은 이에 반해 소극적이었으며, 668년 이후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백제사’는 당·신라에 대항하는 백제유민이 보낸 것으로 보았다.³⁾ 松田好弘 역시 왜국은 당과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고 파악하였다.⁴⁾ 반면 森克己와 鬼頭清明 등은 일·당 간에 화친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⁵⁾ 新藏正道는 왜국이 당과의 수교 회복을 지향하면서도 결국 신라와 결부하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가 변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⁶⁾

한국학계의 경우 웅진도독부의 구성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이 시기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이도학의 연구로, 웅진도독부의 조직구성에 주목하여 668년 이후로 도독부의 실질적 운영은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唐人 관료와 唐軍은 고문역 내지 치안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⁷⁾ 후자는 먼저 김수태, 이재석 등으로 웅진도독부 시기의 성격을 규명하여 웅진도독부의 부여유체제를 백제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보았고,⁸⁾ 김수미는 웅진도독부의

2) 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第二冊(東京:吉川弘文館, 1960).

3)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日唐交渉」,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東京:吉川弘文館, 2011).

4)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5) 森克己, 『遣唐史』(至文堂, 1955): 鬼頭清明, 「七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中國·朝鮮三國·日本の動向」,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1970).

6) 新藏正道, 「‘白村江の戰’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1990).

7)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백산학보』, 34(1987): 『새로 쓰는 백제역사』(서울: 푸른역사, 1997).

8)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울: 서경, 2004):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백제학보』, 25(2018):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서울: 주류성, 2004):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조

지배구조 및 이에 대한 백제유민의 인식변화 등의 연구를 통해 도독부의 인적 구성이 백제인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았다.⁹⁾ 박지현은 웅진도독부에서 扶餘隆이 행한 역할은 665년 취리산 맹약에서의 명분용으로 한정되었고, 劉仁軌과 劉仁願과 같은 당의 장군들이 주도적으로 행하였다고 파악하였다.¹⁰⁾ 최근에는 666년에 행해진 당의 봉선의례와 관련하여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파악한 견해도 제기되었다.¹¹⁾

이상의 연구성과는 당의 백제고토 지배를 위해 설치된 웅진도독부의 지배구조와 운영 및 대외정책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일본학계의 경우 당의 대외교섭 의지만이 天下國家지나치게 강조되어 웅진도독부의 한 축이었던 백제계 관료들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다. 한국학계의 경우 웅진도독부의 구조 등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과 백제계 관료들의 활동 및 그 성격을 둘러싸고 백제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대외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방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웅진도독부가 당의 지배기구이고 여기에 ‘진장’이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닌 唐人도 참여하였지만, 백제계 관료들 역시 한 구성원으로서 도독부의 대외정책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외정책이다. 웅진도독부 체제가 성립되는 664년부터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671년까지 7회에 걸쳐 왜국에 사신단을 파견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웅진도독부 소속의 ‘백제계 관료’들의 역할이다. 백제진장이었던 유인원이 668년에

범환, 「웅진도독 부여융의 대신라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9) 김수미, 「당과 백제유민의 웅진도독부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2(2012) :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15).

10)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2013) :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융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11) 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 封禪과 高句麗의 大應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64(2019) :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동아시아고대학』, 55(2019).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후로는 대외외교는 이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백제부흥운동이 진압된 이후 웅진도독부 소속 당 관료로서 백제고토로 복귀한 이른바 ‘친당적’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¹²⁾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백제인’이었다. 이 백제계 관료들은 웅진도독부가 백제고토에서 축출되는 671년까지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 668년 이후에는 웅진도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백제’라는 모국명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록 뒤에는 당의 위세에 기반하는 한계가 존재하였지만, 백제계 관료의 시각에서 대외전략을 분석한다면 이 시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장에서는 웅진도독부 체제의 성립시기를 부흥운동의 종식과 함께 살펴보고, III 장과 IV 장에서는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을 당 본국인과 함께 한 시기와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시기로 나누어 그 역할과 목적을 살펴본다.

II. 백제 부흥운동의 종식과 웅진도독부 체제의 성립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수도인 泗泌城과 義慈王이 피신한 熊津城까지 공격함으로써 백제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어 당은 백제고토에 5개의 도독부를 두고 백제 측의 수장 및 토착세력들을 都督·刺史·縣令으로 삼아 다스리고자 하였다.¹³⁾ 정복지에 대한 간접지배 방식인 기미지배체제를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의 구상대로 실제로 현지인을 통한 간접지배라는 방식이 백제고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蘇定方이 의자왕 등을 거느리고 당으로 귀환한 직후 바로 백제고토 전역에서 부흥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부흥운동이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12)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이재석은 웅진도독부 체제에서 활동한 부여음을 비롯한 백제계 관료들의 활동을 당의 백제고토 지배정책의 논리구조가 아닌 그들의 시각에서 평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들의 활동을 또 하나의 백제부흥운동 즉 친당 백제부흥운동의 시작으로 파악하고 있다.

13) 『구당서』 권199상 「열전」 149상 백제전.

백제를 정벌해야 한다(欲吞滅高麗 先誅百濟)¹⁴⁾는 우회전략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즉 당은 이 전략에 따라 수도인 사비성의 함락에만 집중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사비성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아 백제부흥군이 결집할 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당은 전략을 수정하여 초대 웅진도독으로 당 본국인인 左衛郎將 王文度를 임명하였다.¹⁵⁾ 그의 임명은 당시 백제부흥군이 흥기하여 도호부가 있는 사비마저도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웅진성을 장악하고 사비의 유인원을 도와 백제부흥군을 진압하여 백제고토 장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¹⁶⁾ 왕문도는 이전 賀魯 정벌군에서 부대총관을 맡았을 정도로 경험 많은 무장이었기 때문에,¹⁷⁾ 그가 거느리고 온 당군과 함께 웅진성의 진수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웅진도독에 임명되었던 왕문도는 백제에 도착한 직후 돌연 사망하여 그 임무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¹⁹⁾

한편 당의 주력군이 철수한 후 羅唐留鎮軍과 백제부흥군은 사비성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였다. 백제부흥군이 사비의 南嶺에 柵을 세워 근거지로 삼고 주변의 성읍을 초략하여 20여 성들의 합류를 이끌어 내자, 신라군은 王興寺岑城을 공격하여 부흥군의 기세를 꺾는데 주력하였다.²⁰⁾ 661년 3월에 들어와 백제부흥군이 재차 사비성을

14) 『구당서』 권84 「열전」 34 유인케전.

1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16)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90-91쪽.

17) 박지현, 같은 논문, 91쪽.

18) 왕문도가 웅진도독으로 임명되어 백제고토로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61년 3월에 유인케를 대방주자사로 발탁하여 왕문도의 군사 [원문에는 衆] 를 거느리고 신라의 군사를 징발하여 유인원을 구원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자치통감』 권21 「당기」 16 고종 용삭 원년 3월조).

19) 왕문도의 사망에 대해 「백제본기」에서는 바다를 건너다가 죽자 유인케가 대신하였다고 나오나 「신라본기」에는 왕문도가 도착 후 삼년산성에서 황제의 조서를 전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사망했다고 나온다.

2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9월·10월·11월조.

공격해오자 당은 劉仁軌를 파견하여 熊津江口에서 부흥군을 격파하고 劉仁願의 당군을 구원하게 하였다.²¹⁾ 이처럼 당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하더라도 백제부흥군의 파상적인 공세로 인해 나당군의 유진본영이었던 사비성의 방어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결국 당군은 유진본영을 사비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겼는데, 그 시기는 대략 유인궤의 구원이 이루어진 661년 3월 이후부터 662년 정월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662년 당 고종이 유인궤에게 여의치 않으면 당군을 귀환시켜도 된다는 내용의 칙서를 보내자, “지금 평양에 있던 군사들이 이미 돌아갔는데 웅진에서 또 발을 빼면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고려의 逋藪들을 언제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²²⁾라고 한 언급이 있다. 평양의 군사가 이미 돌아갔다는 것은 662년 정월 소정방의 평양 공격이 큰 눈으로 인해 성과 없이 물러난 것을 의미하는데,²³⁾ 고구려 공격이 실패한 상황에서 웅진성의 당군마저 철수한다면 백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구려의 정토도 어려워질 것임을 병사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여기서 유인궤의 당군은 661년 3월 이후에 사비성에서 나왔고 소정방 부대가 평양을 공격한 시점인 적어도 662년 정월 이전에는 이미 웅진성에서 진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결국 당 유진군은 사비성에서 나와 방어를 유리한 웅진성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웅진성에 진수한 유인궤·유인원의 당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662년 7월 支羅城·尹城·大山柵·沙井柵 등의 공격을 시작으로 8월에는 眞岷城을 함락시켜 신라의 군량 수송로를 확보하였고, 663년에 들어와 신라군은 백제부흥군에 대한 공격 방향을 남방으로 돌려 居列城·居勿城·沙平城 등을 공격하여 장악한 후 북상하여 논산의 德安城까지 함락시켰다.²⁵⁾ 5

21) 『구당서』 권199 「열전」 149상 백제전.

22)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23)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1년 정월조.

24) 이도학은 웅진성으로의 이동시점을 660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4쪽) 박지현은 662년 7월 이전에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88쪽).

25)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및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2월조.

도독부 중의 하나였던 덕안 지역을 신라가 663년에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까지 당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의 백제고토 지배전략이 결국은 처음부터 실패하여 구상하였던 5도독부 체제가 663년 초까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⁶⁾ 한편 신라군이 663년 백제의 남방을 공격한 후 덕안성을 함락시킬 때 백제부흥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는데, 이 지역 세력들이 형세가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백제부흥군에게 협조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²⁷⁾ 유인래는 이 여세를 몰아 본국에 증원군을 요청하였고, 당은 663년 孫仁師에게 淄州 등의 군사 7천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²⁸⁾ 백제부흥군 역시 병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663년 왜국에 구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왜국은 2만 7천명의 구원군을 파병하였다.²⁹⁾ 663년 8월, 2일간에 걸친 白村江 싸움에서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할 정도로 당군은 왜국의 구원군을 대파하였다. 백촌강 전투에서의 당의 승리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고 결국 663년 11월에는 끝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도 항복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663년 당이 孫仁師의 증원군을 파견할 때, 의자왕의 아들인 扶餘隆도 兵糧船의 수장으로 삼아 백제고토로 귀환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백제고토에서의 전황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철수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던 당군이 유인래의 활약과 신라군의 공격으로 백제고토에서 점차 勝機를 되자, 당은

26) 기존의 연구에서도 백제부흥군의 흥기로 인해 5도독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池內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101-102쪽;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2-83쪽;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일조각, 2003), 291쪽;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울: 서경, 2005), 171-172쪽; 김중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양상」, 『역사와 현실』, 78(2010), 75-76쪽). 한편 박지현은 당이 1도호부 5도독부 체제를 마련하고 왕문도 등의 웅진도독 임명사실로 보아 백제고토 전역에 대한 지배체제로서 5도독부의 설치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92-93쪽, 주 78).

27)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244-245쪽.

28)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29) 『일본서기』 권27 천지 2년 2월조.

백제부흥군 진압 이후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지배전략을 다시 세웠던 것이다. 그 전략으로 먼저 당은 663년 4월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³⁰⁾ 이는 신라도 당의 기미체제에 편입시킴으로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백제고토가 안정화 된 후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648년 당 태종과 김춘추 간에 ‘평양 이남의 지역은 신라가 장악하는’ 협약을 맺었다.³¹⁾ 이 협약에 의한다면 당은 신라에게 백제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당에게는 최종목표였던 고구려 정토문제가 남아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제고토의 안정화 및 신라가 백제부흥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차지한 영역문제도 선결과제였다. 때문에 당은 먼저 그 사전작업으로서 신라를 당의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라가 마음대로 백제고토를 침범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이후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을 한반도로 귀환케 하여 그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서 백제부흥운동 종식 후의 상황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663년 杜大夫가 ‘평정을 마친 후 맹약을 맺도록 하라’는 고종의 칙명을 전달하자 任存城이 함락되지 않은 것을 들어 거부함으로써 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³²⁾ 그러나 당은 고구려 정토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라와의 회맹을 재차 추진하는 한편 신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이 운영하는 도독부의 지배영역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664년 2월의 응령 맹약 및 665년 8월 취리산 회맹을 통해 웅진도독부와 신라 간에 획정된 강역이 1도독부 7주 51현으로 백제고토의 서쪽 지역에 한정된 것을 보면,³³⁾ 신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백제고토의 절반이나마 영역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이 웅진도독부를 통해

3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4월조.

3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3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33)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1979), 220-223쪽 :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7-88쪽.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도독부 체제의 실질적 성립은 웅령 맹약이 이루어지는 664년 2월에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부여융이 664년 10월 웅진도독에 제수됨으로써,³⁴⁾ 표면적으로나마 기미체제의 본질인 점령지의 수장층을 도독 및 자사로 임명하여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백제진장 유인원 주도의 대외정책 : 664~667년의 시기

당은 663년 8월 백촌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주류성과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마저 진압한 후 백제고토에 대해 민심을 수습하면서 본격적으로 웅진도독부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4년 2월 신라와 웅령에서 회맹한 후 그해 4월에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郭武惊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 A-1. (천지 3년, 664년) 여름 5월 무신삭 갑자(17일)에 백제진장 유인원이 조산대부 郭武惊 등을 보내 표함과 헌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을해삭(1일)에 광무종 등을 돌려보내라는 칙을 내렸다. 이날 中臣內臣은 사문 智祥을 보내 광무종 등에게 물건을 주었다. 무인(4일)에 광무종 등을 향응하였다. 12월 갑술삭 을유(12일)에 광무종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³⁵⁾
2. 천지천황 3년 4월 大唐客이 내조하였다. 大使 朝散大夫 上柱國 郭武惊 등 30인과 백제좌평 禰軍 등 백여 인이 對馬島에 도착하였다. 大山 中 采女 通信, 승려 智弁 등을 보내 별관으로客을 불러 들었다. 이에 지변 등이 表書와 헌물을 가지고 왔는가를 물으니, 사인은 장군의 牒書 1함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첩서 1통을 지변 등에게 주니 주상하였다. 단지 헌물은 檢看해야 해서 가져가지 않았다. 9월 大山 中 津守連吉祥·大乙中伊岐史博「大山中 伊岐史博」, 승 지변 등이 筑紫 大宰의 말을 청하여 (실은 칙지이다)客에게 고하기를 “지금 객 등이 온

34) 『구당서』 권84 「열전」 34 유인래전.

35) 『일본서기』 권27 천지 3년 5월조.

상황을 보니 천자의 사인이 아니고 백제진장의 私使이다. 또한 가져온 바의 文牒도 執事의 사사로운 말을 올린 것이다. 때문에 사신은 입국을 할 수 없고 문서 또한 조정에 올릴 수 없다. 객 등은 스스로 섬겨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략 말로서 주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2월에 博德은 객 등에게 첩서 1함을 주었는데, 함에는 鎭西將軍이라고 쓰여 있었다. “日本 西筑紫大軍이 在百國大唐行軍總管에게 보내는 첩이다. 使人 朝散大夫 郭武棕 등이 왔는데, 가지고 온 첩의 뜻과 취지를 살펴보고 생각하니 이는 천자의 사자가 아니고 또한 천자의 문서가 아니다. 이는 오직 총관의 사자이고 執事의 첩이라 할 수 있다. 첩은 私意이기 때문에 오직 말로써 아될 것이다. 사람들은 公使가 아니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고 云云하였다.³⁶⁾

사료 A-1은 664년 5월 백제진장 유인원이 곽무중 등을 파견한 내용이다. 사절단이 10월 1일에 돌아가라는 칙을 받은 그날 中臣內臣이 곽무중 등에게 선물을, 4일에는 향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12일에 곽무중 등은 귀국하였다고 한다. A-2는 『善隣國寶記』에 실린 「海外國記」로, 664년 곽무중 등 사절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곽무중 등 당인 30인과 백제좌평 예군 등 백여 명은 664년 4월에 對馬에 도착하여 첩서를 올렸다. 9월에 이르러 筑紫大宰가 ‘곽무중 등은 당 천자의 使者가 아닌 백제진장의 사사로운 사자이고, 가지고 온 첩 역시 집사의 첩이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고 조정에 올릴 수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문장 말미에 첩의 내용은 말로 조정에 알리겠다 [원문:口奏]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곽무중 등의 사절단은 對馬에 7~8개월간 머무르며 왜국 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왜국 측은 이 사신단과 가지고 온 첩은 천자의 사자도 아니고 천자의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던 것이다.

筑紫大宰의 말을 칭하여 전하는 것을 두고 당시 왜국의 대응이 백제진장에

36) 『善隣國寶記』 所引 「海外國記」(日本古典文學大系68 『일본서기』 하 (岩波書店 刊行) 補注 26-5 (577-578쪽)에 실린 「해외국기」의 원문을 인용하였음).

대해 대재부 레벨에서 상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당 황제와 왜국 천황을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대당외교의 기초를 엿볼 수 있다고 파악한 견해가 있다.³⁷⁾ 그러나 이때의 불허방침은 왜국의 당에 대한 대등의식의 결과가 아니라 백촌강 패전 후 당에 대한 대외적 위기의식이 높아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 왜국 측의 최고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이 직접 나서서 이 사절단에게 物을 하사하고 향응을 베풀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입경을 불허하였지만 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筑紫大宰의 말로 전함으로써 탈출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³⁸⁾ 한편으로는 中臣鎌足이 물밑에서 사신단과 실질적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당(웅진도독부)의 관계개선의 여지를 만들었던 것이다.³⁹⁾

그렇다면 中臣鎌足과 곽무종이 협상한 내용, 즉 곽무종이 도왜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외교활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당이 지배하는 백제고지의 안전을 주안으로 하는 화친이 목적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선편의

37)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東京:吉川弘文館, 2011), 164-165쪽.

38)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1995), 151-152쪽.

39)한편 中臣鎌足의 곽무종 등의 사절단 접촉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아들인 定慧의 귀국을 위한 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은숙, 앞의 논문, 154쪽: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III(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13) 347쪽의 주 117: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동아시아고대학』, 55(2019), 304-310쪽. 특히 서영교는 666년 정월에 행해지는 봉선의례에 왜국을 참가시키기 위해 정혜의 귀국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中臣鎌足의 아들인 정혜의 귀국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었겠지만, 당시 천지조의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곽무종 등과의 접촉을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만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0)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206쪽: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167-168쪽:新藏正道, 「白村江の戰, 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1990), 11쪽. 한편 이재석은 664년 곽무종의 과건목적은 왜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고구려와 직접 연계하는 일을 견제하고, 백제고토에서의 친당백제 정권의 발족을 알려 왜국과 우호관계의 수

견해는 664년의 사절단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절단의 체류기간과 백제계 관료가 백여 명이나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체류기간이다. 광무종 등의 체류기간은 7~8개월 정도인데, 그 이후의 사신이 길게는 2개월, 짧게는 3일 만에 귀국하고 있는 점에서 664년 사절단이 이례적으로 길게 체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664년의 사신단에 대해 666년에 행해질 당 고종의 봉선의례에 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¹⁾ 당 고종의 봉선의례 조서는 664년 7월에 내려졌는데, 이 의례의 거행에는 주변국의 참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서와 별도로 당은 주변국들에게 봉선계획을 알렸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광무종의 파견이라는 것이다.⁴²⁾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긴 체류기간과 664년 사절단에 백제계 관료들이 파견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웅진도독부)은 대외적으로는 고구려 정벌을 위한 후방기지로서 백제고토의 안정화와 대내적으로는 당 황제의 통치능력을 만방에 알려 그 권위를 신성화시키는 봉선의례 성공적 개최라는 과제가 있었다. 특히 후자의 성공에는 주변국, 즉 제번의 참가는 필수적이었다.⁴³⁾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던 왜국과의 관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에 당(웅진도독부)은 백제계 관료들을 동원하였다. 즉 당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백제고지를 재건하여 백제민들의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신라와의 맹약을 통해 신라가 백제를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경계한 조치 등을 백제계 관료들을 통해 선전하게 하였던

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223쪽). 김은숙 역시 당은 왜국과 수호관계를 맺어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을 요구하고 고구려와는 동맹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고 있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49쪽).

41) 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封禪과 고구려의 대응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64(2019) :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42) 이성제, 같은 논문, 210-211쪽.

43) 이성제, 같은 논문, 210쪽 : 서영교, 같은 논문, 310쪽.

것이다. 당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백제계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부흥운동을 주도했다가 왜국으로 망명한 세력들이 天智朝의 지배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계 관료들이 왜국 측의 경계심을 풀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7~8개월이라는 긴 체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당(웅진도독부)의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 664년의 사절단은 공식적으로는 입경을 허가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실권자였던 中臣鎌足과의 이면 협상을 통해 왜국 측에게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왜국 측 역시 광무종 등의 사절단에 대해 천자의 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中臣鎌足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왜국 측의 경계심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듯하다. 그해 對馬島, 壹岐島, 筑紫國 등에 防人과 봉화를 두었고 筑紫에는 水城을 쌓아 방어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⁴⁴⁾ 그렇다면 이 664년의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왜국 측이 얻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B-1. (천지 4년, 665년) 9월 경오삭 임진(23일)에 唐國이 朝散大夫 忻州 司馬 上柱國 劉德高等을 보냈다 [等은 右戎衛郎將 上柱國 百濟禰軍과 朝散大夫 柱國 郭武棕을 말한다. 모두 254인이었다. 7월 28일에 對馬에 왔고 9월 20일에 筑紫에 왔다. 22일 표함을 올렸다]. 겨울 10월 기해삭 기유(11일)에 성대하게 菟道에서 열병하였다. 11월 기사삭 신사(13일)에 유덕고 등에게 향응하였다. 12월 무술삭 신해(14일)에 유덕고에게 物을 하사하였다. 이 달에 유덕고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⁴⁵⁾

2. (천지 4년, 665년) 이 해에 小錦 守君大石 等を 대당에 보냈다. 云云 [等은 小山 坂合部連石積, 大乙 吉士岐彌, 吉士針間을 말한다. 생각건대 당의 사신을 배웅한 것인가].⁴⁶⁾

44) 『일본서기』 권27 천지 3년 시세조.

45)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9월-12월조.

46)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시세조.

사료 B-1은 665년에 당 본국인 劉德高가 왜국에 사신으로 온 내용이다.⁴⁷⁾ 여기에는 전년도 사신단이었던 곽무종과 백제 예군뿐만 아니라 中臣鎌足の 아들인 定慧의 귀국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⁸⁾ 665년의 사절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절단의 규모라든가 형식적인 면이 전해인 664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 고종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당 본국인인 劉德高를 파견한 점, 그 편에 천자의 첩도 갖춘 점, 사신단의 규모 역시 664년보다 약 2배 많은 수를 보낸 점 등에서 ‘천자의 사자도, 천자의 첩도 아니다’는 왜국 측의 불만을 665년의 사절단에서는 모두 해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절단의 달라진 양상은 664년의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웅진도독부)은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여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하였고 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백제진장이 아닌 당 황제가 파견하는 형식을 갖추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왜국이 이러한 형식에 집중하였던 이유는 대외정책의 실패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대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왜국이 선택한 대외노선, 즉 백제구원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자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과의 전쟁에서는 패전국이었지만 당 황제가 화친을 위해 먼저 요청해 왔음을 부각시킨다면, 왜국 측으로서는 대외노선의 실패를 만회하고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전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진장 명의의 사절단에 대해서는 입경을 불허하였지만,

47) 665년 유덕고의 파견목적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666년에 열리는 봉선의례에 왜국의 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58쪽;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東京: 塙書房, 1989), 426-427쪽;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4(1993), 222-223쪽). 그러나 유덕고의 파견 목적을 봉선 참가요청으로 볼 경우, 서영교의 지적처럼 유덕고의 대마도 도착시점(7월 28일)을 고려해볼 때 유인계가 거느리고 동도로 나아갔다는 4국 추장의 무리에는 시간상 참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294-295쪽).

48) 『일본서기』 권25 백지 5년 2월조.

물밑 접촉을 통해 양국이 서로 원하는 타협안을 찾았던 것이다.⁴⁹⁾ 사료 B-2는 이러한 타협안의 하나였던 봉선의례에 왜국 측이 참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시세조라는 시기의 애매함과 『일본서기』 찬자의 ‘送使’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 때문에 왜국 측의 봉선의례 참가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⁵⁰⁾ 언급하였듯이 664년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봉선의례의 참가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守君大石과 坂合部連石積 등은 봉선의례에 참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사료 B에서도 백제계 관료들이 동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사료에 나오는 禰軍은 한일 양국 사료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백제계 관료로, 664년과 665년 두 차례의 사절단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된 이후에는 670년 신라에 억류되기까지 웅진도독부의 실질적 통수권을 장악한 인물로 파악되기도 한다.⁵¹⁾ 이러한 인물이 도일한 이유는 백제부흥군을 지원한 왜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왜국은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복신의 아들에게 鬼室集斯에게 관위를 주었고 백제 남녀 4백여 인을 近江國의 神前郡에서 살게 하였으며,⁵²⁾ 또한 달솔 答怱春初와 億禮福留 등을 보내

49) 이성제 역시 천자의 사자도 문서도 아님을 불만으로 삼았던 왜국에 대해 당은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방관인이었던 유덕고를 파견한 것으로, 상대국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방식으로 당은 사전에 봉선 참가를 의도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封禪과 고구려의 대응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213쪽).

50) 松田好弘은 守君大石은 백촌강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간 것이고, 境部連石積은 견당유학생으로 당에 체류하고 있다가 봉선에 참가한 것으로 보았다. 시세조에 나오는 吉士岐彌, 吉士針間은 유덕고 등의 送使 역할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왜국에서 파견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파견된 유덕고의 견사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107-110쪽). 新藏正道는 봉선의례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지 않지만, 당의 2회에 걸친 사신파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응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여 ‘송사’라는 형태를 띤 답례사로 守君大石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13쪽).

51)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93쪽.

52)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2월조.

長門國과 筑紫國에서 축성하게 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⁵³⁾ 망명 백제인들을 흡수하여 지배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과 결을 달리하여 당의 관료로 기용된 백제계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당이 주재하였지만 신라와의 회맹을 통해 백제고지가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신라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웅진도독부)의 대일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으로 백제계 관료들에 대한 왜국 측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67년에 들어와 웅진도독부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다음의 사료이다.

- C-1. (천지 6년, 667년) 11월 정사삭 을축(9일)에 백제진장 劉仁願이 웅진도독부 熊山縣令 上柱國 司馬 法聰 등을 보내 大山下 境部連石積 등을 筑紫都督府로 돌려보냈다. 기사(13일)에 司馬 法聰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小山下 伊吉連博德, 大乙下 笠臣諸石을 송사로 삼았다.⁵⁴⁾
2. (천지 7년, 668년) 봄 정월 무신(23일)에 송사 博德 등이 복명하였다.⁵⁵⁾

사료 C-1은 백제진장 유인원이 사마 법충으로 하여금 境部連石積을 축자도독부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境部連石積은 665년 봉선의례에 참가하였던 坂合部連石積인데,⁵⁶⁾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때의 파견주체가 백제진장 유인원이고 이에 대한 왜국 측이 송사를 파견한 것이다. 이는 백제진장의 私使라고 하여 입경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던 664년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왜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법충의 체류가 4일에 불과하였고, 그의 귀국 시에 伊吉連博德 등을 웅진도독부로 파견하고 있는 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男生이

53)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8월조.

54) 『일본서기』 권27 천지 6년 11월조.

55)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정월조.

56)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下(東京: 岩波書店, 1965), 319쪽 주 48.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동생인 男建·男産과의 대립과 반목으로 정치적 내분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왜국에 666년 정월과 10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⁵⁷⁾ 먼저 정월의 사신은 前部 能婁로, 연개소문의 사후 권력을 장악한 남생이 연개소문의 사망사실 및 이전처럼 양국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파견한 것이었다.⁵⁸⁾ 10월에는 乙上 奄鄒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때의 사신 파견은 남생과의 권력다툼에서 승리한 남건이었다.⁵⁹⁾ 이때의 목적은 국내성으로 달아난 남생이 그의 아들인 獻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는 등 당의 고구려 공격이 급박해오자 이를 왜국에 알려 지원을 받고자 함이었을 것이다.⁶⁰⁾ 고구려의 이러한 요청에 왜국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료 C-2에 보이듯이 伊吉連博德을 파견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직접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백제계 주도의 대외정책 : 668~671년의 시기

668년에 들어오면 웅진도독부의 대외외교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의 고구려 정벌과 관련된 전시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668년 4월 이후로는 웅진도독부의 이름이 아닌 ‘백제’의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 D-1. (천지 7년, 668년) 여름 4월 을묘삭 경신(6일)에 백제가 末都師父 등을 보내 조를 바쳤다. 경오(16일)에 末都師父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⁶¹⁾
2. (천지 10년, 671년) 봄 정월 신해(13일)에 백제진장 유인원이 李守眞을

57) 『일본서기』 권27 천지 5년 정월조 및 10월조.

58)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 353쪽 주 148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0쪽.

59)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5년 6월.

60)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231쪽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1쪽.

61)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4월조.

보내 표를 올렸다.⁶²⁾

3. (천지 10년, 671년) 2월 무신삭 경인(23일)에 백제가 臺久用善을 보내 조를 올렸다.⁶³⁾
4. (천지 10년, 671년) 6월 병인삭 기사(4일)에 백제의 三部 사신이 요청한 군사에 관해 선언이 있었다. 경진(15일)에 백제가 「眞子를 보내 조를 올렸다.⁶⁴⁾
5. (천지 10년, 671년) 7월 병신삭 병오(11일)에 唐人 李守眞 등과 백제의 사신들이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⁶⁵⁾
6. (천지 10년, 671년) 11월 갑오삭 계묘(10일)에 對馬國司가 筑紫大宰府에 보고하기를 “...당의 사신 郭武棕 등 600여 인과 송사 沙宅孫登 1천4백인 합해 2천인이 배 47척에 타고 比知島에 정박하고는 ...⁶⁶⁾

위 사료는 668년부터 신라의 총공제가 시작되는 671년까지의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은 파견주체가 백제라고 기록된 점이다. 다만 D-2의 이수진을 보냈다는 백제진장 유인원은 668년 고구려 정벌의 役에서 暹留시킨 죄로 姚州로 유배되기 때문에 이때의 파견주체는 유인원이 될 수 없다.⁶⁷⁾ 이에 대해 이때의 백제사를 백제유민이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백제유민과 웅진도독부간의 신라를 견제한다는 공통의 대외정책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유인원의 이름을 빌려 이수진을 파견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⁶⁸⁾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백제유민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⁶⁹⁾ 이 시기 백제사의 파견주체를 당과 대항하는 백제유민으로 보기 어렵다.

62)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정월조.

63)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2월조.

64)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6월조.

65)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7월조.

66)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11월조.

67) 『자치통감』 권20 당기17 고종 총장 원년 8월조.

68) 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199-202쪽.

69)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235쪽.

그렇다면 D-2의 유인원 파견 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수진의 파견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의 귀국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수진의 파견은 사실로 보인다. 이 시기에 왜국 측이 유인원의 유배를 몰랐다면 그의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왜국이 670년에 河內直鯨 등을 건당사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⁷⁰⁾ 왜국은 668년에 유인원이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일본서기』 편찬자의 원 사료에 대한 무비판적인 채용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웅진도독부가 당 본국인을 파견했을 경우에는 백제진장 유인원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당 본국인인 이수진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서기』 찬자가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인데, 이는 추정으로만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그가 당 본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수진의 파견은 사료 D-6의 곽무중 등 2천여 명의 도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71년 11월 도왜한 2천여 명 중 沙宅孫登이 거느린 1천4백 명은 백촌강 패전에서 발생한 왜군 포로이고, 곽무중 등의 6백여 명은 사절 및 포로를 감시하고 호송한唐人과 그 지휘 하의 백제인이었다고 한다.⁷¹⁾ 이 견해가 타당하다면 이수진은 왜국인 포로송환을 조건으로 하여 왜국과 협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1월에 파견되어 6월에 귀국하는 것으로 보아 협상이 생각처럼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인 이수진과 왜국 간의 협상이 난항이었던 것은 신라의 대외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가 656년에 사신을 파견한 지 12년 만인 668년

70) 『일본서기』 권27 천지 8년 시세조 및 『신당서』 권220 왜국전. 670년 河內直鯨의 파견 목적에 대해 당이 왜국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 한 왜국이 당에 종속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73쪽), 당으로 끌려간 왜국 병사들을 송환하는 임무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3, 366쪽 주 273번),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왜국 공격 움직임을 파악한 왜국이 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보는 견해(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116쪽) 등이 있다.

71) 直木孝次郎, 「百濟滅亡後の國際關係」,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東京: 吉川弘文館, 2005), 98쪽.

9월 12일에 김동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⁷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의 사신파견 시기와 왜국 측의 반응이다. 즉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이 거의 가까워지자 당의 銳鋒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자국을 향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당의 패전국이었던 왜국에게 신라는 자국에 떠도는 풍문 ‘당이 배를 수리하는 것은 걸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체는 신라를 치고자 하는 것’⁷³⁾을 전달하여 당이 고구려를 정벌한 후에는 신라를 공격해 올 것임을 알리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 당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왜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을 것이다. 왜국은 664년부터 웅진도독부를 내세운 당의 적극적 태도에 견당사를 파견하는 등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에 대한 경계심으로 北九州를 중심으로 한 방위체계의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68년 신라가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이 신라사의 도왜는 왜국 측이 나아가야 할 대외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이는 신라사에 대한 왜국 측의 우대에서도 알 수 있는데, 김유신과 신라왕에게 각각 배 한척과 비단 50필 등을 보내고 道守臣麻呂 등을 사신으로 보내고 있다.⁷⁴⁾ 신라의 당에 대한 긴장감과 왜국의 당에 대한 경계심이 양국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대왜접근책은 당의 입장에서는 변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은 신라와 왜국의 공조를 막기 위해 당인인 이수진을 파견하여 왜국인 포로송환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포로송환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한반도 전황은 자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의 요구는 신라와의 관계단절을 전제로 한 왜국의 군사원조였을 가능성이 높고 왜국 측은 포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⁷⁵⁾

72)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9월조.

7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하 答薛仁貴書.

74)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9월조 및 11월조.

75) 新藏正道, 「‘白村江の戦’の後天智朝外交」, 23쪽;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100쪽.

한편 이 시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668년 이후에는 ‘백제’의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Ⅲ장에서 보았듯이 백제진장이 보낼 경우 당 본국인도 같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사료 D에서는 唐人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특히 신라의 총공세가 시작되는 671년에는 ‘백제’가 보냈다고 기록된 경우가 3차례나 나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사신단은 웅진도독부 소속의 백제계 관료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백제’국명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한반도의 전황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최종적으로는 왜국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친당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백제와 왜국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먼저 668년 末都師父의 파견부터 살펴보면 이때의 목적은 아마도 당·신라의 고구려 공격을 둘러싼 한반도의 전황을 왜국에 알리는 정보제공의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의 의지를 반영한 백제진장이 웅진도독부를 이용하여 왜국이 고구려를 원조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파견하였다고 본 견해도 있다.⁷⁶⁾ 그러나 말도사부의 파견주체가 백제진장이 아닌 ‘백제’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때의 견사는 백제계 관료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백제계 관료들은 일·당 간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왜국 측에게 당과 고구려와의 전황상황을 알리면서 이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려는 아직은 소극적 차원의 목적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왜국 측의 군사지원을 받고자 668년 7월에 사신을 재차 파견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9월에 멸망하였다.

백제계 관료들은 671년 2월에 사료 D-3에 보이는 臺久用善을 파견하였다. 그의 파견은 670년에 이루어진 신라의 백제고토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고토의 82

76)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6쪽 : 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17쪽.

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유민을 신라로 사민시키는 등⁷⁷⁾ 백제고토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臺久用善을 파견하여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왜국 측의 입장은 사료 D-4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선언이란 백제계 관료들의 군사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불가함을 공포함으로써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를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백제계 관료들은 그 달에 다시 羿眞子를 파견하였으나, 왜국의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신들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다. 이후 신라가 백제고토에 所夫里州를 설치하여 장악하게 되자 羿眞子를 마지막으로 백제계 관료들의 대왜외교는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이 백제계 관료들을 주도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된 이후 백제진장으로 부임해 온 당 본국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68년 8월 이후로 웅진도독부의 통수권을 담당할 인물로는 부여용 밖에 없다.⁷⁸⁾ 이에 대해 부여용의 웅진도독부 체류기간을 664년부터 668년에 이르는 약 5년간으로 파악한 후, 부여용이 봉선의례 참석을 위해 수개월간 떠나있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유인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⁷⁹⁾ 그러나 백제부흥운동의 주도세력들이 망명하여 천지조에서 우대를 받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부여용은 대왜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다만 664년 4월부터 웅진도독부의 대왜외교가

7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7월조.

78) 조범환 역시 668년 8월 유인원이 떠난 이후 웅진도독부의 군대를 부여용이 통솔하였고, 고구려 정벌 이후 백제고토에서 그의 위상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범환, 「熊津都督 扶餘隆의 對新羅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161-162쪽).

79) 박지현,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용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한편 박지현은 웅진도독부의 기틀을 유인제가 다진 점, 유인원이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에 직접 나선 점, 웅진도독부가 고구려 정벌을 위한 당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웅진도독부의 운영은 유인제와 유인원 등의 당인 관료들과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백제계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지현, 같은 논문, 261-267쪽).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진행되었지만 664년 10월 이후에 부여음이 웅진도독에 제수된 점, 그리고 665년의 유덕고 대외파견은 당 본국이 주관하였다는 점, 667년 사마 법충의 파견은 백제진장 유인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여음이 대외외교를 주재하였을 가능성은 668년 이후로 보이지만, 그때에도 부여음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이면에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대외외교를 주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와 왜국이 668년에 들어와 관계를 회복한 점도 부여음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여음은 백제고토에서 유인원·유인케 등이 돌아가자 그 역시 신라를 두려워하여 곧 京師로 돌아갔다고 한다.⁸⁰⁾ 경사로 돌아간 시기에 대해서는 668년,⁸¹⁾ 670년을 전후한 시기,⁸²⁾ 675년 2월 이후⁸³⁾ 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신라의 백제고토에 대한 총공세에 시작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외외교가 결국은 왜국의 한반도 전황 개입불가 선언으로 이어지자 671년 6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 경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부여음은 백제계 관료들을 동원하여 유인원의 요주 유배 이후의 대외외교 정책을 추진, 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신라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의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		내용	비고
664 년	4월	百濟鎮將 劉仁原, 朝散大夫上柱國 郭務悰 등 30인과 백제 佐平 禰軍 등 100여인을 보내 表 函과 獻物을 바침	『善隣國寶記』에 인용된 「海外國記」
	12월	곽무종 일행 귀국	

80)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및 『자치통감』 권202 당기 18 고종 의봉 2년조.

81) 박지현,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음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263-264쪽.

82) 양기석, 「百濟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1995), 145-146쪽.

83) 김영관, 「百濟 滅亡後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백제학보』, 7(2012), 105-106쪽.

665 년	7월	당의 사신 朝散大夫 沂州司馬 上柱國 劉德高와 右戎衛郎將 上柱國 百濟禰軍, 朝散大夫 柱國 郭務棕 등 254인이 대마에 도착	
	10월	왜국, 유덕고 일행을 위해 兎道에서 열병	
	11월	유덕고 등에게 향응을 베풀	
	12월	유덕고 등에게 물건 하사. 유덕고 일행 귀국	
	이 해	小錦 守君大石, 小山 坂合部連石積, 吉士岐彌, 吉士針間 등을 당에 파견	『일본서기』 분주에서는 유덕고의 送使 가능성 제기
667 년	11월	9일 百濟鎮將 劉仁願, 웅진도독부 熊山縣令 上柱國 司馬 法聰을 보내 大山下 境部連石積들을 筑紫都督府로 돌려 보냄	
		13일 사마법총 귀국. 小山下 伊吉連博德, 太乙下 笠臣諸石을 송사로 보냄	
668 년	4월	백제, 末都師父를 보내 조를 바침	
671 년	1월	백제진장 유인원이 李守眞을 보내 표를 올림	
	2월	백제, 臺久用善을 보내 조를 올림	
	6월	4일 왜국, 백제의 三部의 사신이 요청한 군사에 관한 선언	
		15일 백제, 羿眞子를 보내 조를 올림	
	7월	唐人 李守眞과 백제의 사신들 귀국	
11월	唐使 郭務棕 등 6백여 인과 송사 沙宅孫登 등 1천4백인, 모두 2천인이 배 47척에 타고 도왜		

V. 맺음말

이상으로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웅진도독부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고토의 지배를 위해 설치한 기미지배체제로, 당은 백제 측의 수장 및 토착세력들을 웅진도독 및 장사·현령으로 임명하는 한편 당 본국인인 유인궤와 유인원을 진장, 낭장 등의 직책으로 백제고토에 머무르게 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64년 4월 광무종 등 唐人和 백제계 관료로 구성된 사신단을 왜국에 파견하였는데, 그 목적은 대고구려정벌을 위한 후방기지의 안정화 및 666년에 열리는 태산 봉선의례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사신단에 대해 왜국 측은 天子의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사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신단의 入京을 공개적으로 불허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으로 하여금 이면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협상의 결과 당은 왜국 측의 요구였던 당 천자의 이름으로 665년에 사신단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왜국 측은 당의 요구였던 666년의 태산봉선 의례에 사신단을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668년 이후 백제진장이었던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되자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은 백제계 관료들이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외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웅진도독부가 아닌 ‘백제’라는 모국 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었고, 671년에는 신라의 충공세를 막기 위해 왜국에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군사외교는 왜국이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신라에 의해 웅진도독부는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한편 668년 이후에 추진된 대외외교는 표면적으로는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부여융의 존재가 있었다.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결을 달리하였고 이들이 천지조에서 일정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웅진도독부 내에서 대외외교를 담당하였던 백제계 관료들은 ‘친당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백제인’이었다. 왜국에 대한 군사지원 요청은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시간강사, museo99@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웅진도독부(Ungjin Dodok-bu), 백제진장 유인원(Jinjang of Baekje Ryu Inwon), 친당적 백제계 관료(A pro-Tang Baekje officials), 왜국(Japan), 부여융(Buyeo Yung)

투고일: 2021.04.19, 심사일: 2021.04.30,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박민경

당은 백제고토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64년에 고구려정벌을 위한 후방기지의 안정화 및 666년에 열리는 태산봉선에 왜국 참가를 목적으로 하여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협상의 결과 웅진도독부(당)는 왜국의 요청대로 당 천자의 이름으로 665년에 사신단을 파견하였고, 왜국은 당의 요구였던 666년의 봉선의례에 참가하였다. 한편 668년 이후의 대외관계는 웅진도독부 소속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후 신라와 당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웅진도독부 내에 당 세력의 공백이 생기자, 자신들의 정체성이 ‘백제’에 있음을 내세우며 왜국과의 군사외교를 재개하였다. 이들은 왜국에 군사지원을 요청으로써 신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백제계 관료 나름의 ‘貳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왜국이 한반도 전황 개입불가 선언을 함으로써 결국 웅진도독부 소속 백제계 관료들의 대외외교는 실패하고 말았다.

<Abstract>

An examination on the Japan Policy of the Ungjin Dodok-bu

Park, Minkyung

After Baekje was overthrown, Tang established Ungjin Dodok-bu at the native land of Baekje. Ungjin Dodok-bu tried to stabilize the native land of Baekje through the postwar restoration of Baekje in order to conquer Goguryeo. At the same time, Ungjin Dodok-bu also tried to improve relationship with Japan by inducing attendance Taishan Bongseon Ritual in 666. In 664, Jinjang sent both Tang's own official Gwak Mujon and Officials of Baekje decent to Japan. In 665, as a result, Tang sent representatives as requested and Japan attended Bongseon Ritual in 666 in return. Since 668, however, the foreign policy with Japan had been continued by Baekje official decent. The officials of Baekje decent focused on the recovering military relationship with Japan as people of Baekje. But, unfortunately, their foreign policy with Japan came to end in failure since Japan announced the impossibility to involve any war in Korean peninsula.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日本書紀』, 『續日本記』

2. 역주서

김현구, 박현숙, 우재병, 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연구』 (서울: 일지사, 2003).

徐榮洙, 『國譯 中國正史朝鮮傳』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I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서울: 乙酉文化社, 197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1~5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坂本太郎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下 (東京: 岩波書店, 1965).

3. 단행본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울: 서경, 200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일조각, 2003).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東京: 塙書房, 1989).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東京: 吉川弘文館, 2005).

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2011)

4. 논문

- 김수미, 『熊津都督府研究』,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수미, 「扶餘隆 도독 체제 웅진도독부의 통치구조」, 『역사학연구』, 32(2008).
- 김수미, 「당과 백제 유민의 웅진도독부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2(2012).
-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04).
-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백제학보』, 25(2018).
- 김영관,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정책」, 『취리산회맹과 백제』 (서울: 혜안, 2010).
- 김영관, 「百濟 滅亡後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백제학보』, 7(2012).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1995).
- 노중국, 「復興百濟國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울: 서경, 2004).
-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2013).
- 박지현, 「백강구전투 이후 부여융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 방향숙, 「百濟故土에 대한 唐의 支配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서울: 一潮閣, 1994).
- 방향숙, 「扶餘隆의 정치적 입지와 劉仁軌」,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 양기석, 「百濟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1995).
- 연민수, 「개신정권의 성립과 동아시아 외교」, 『고대한일관계사』 (서울: 혜안, 1998).
- 연민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외정책」, 『신라문화』, 24(2004).

-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백산학보』, 34(1987).
- 이재석, 「7세기 왜국의 대외 위기감과 출병의 논리」, 『왜국연구사연구』, 26(2007).
-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 14(1993).
- 조범환, 「熊津都督 扶餘隆의 對新羅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 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 第二冊 (東京: 吉川弘文館, 1960).
- 鬼頭清明, 「7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1970).
- 鈴木英夫, 「百濟救援の役について」,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85).
- 鈴木靖民, 「七世紀東アジアの「レ」と「レ」」, 『新版 古代の日本 アジアから見た古代日本』 (東京: 角川書店, 1992).
-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 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史泉』, 71(1990).

■ 논문 ■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최강화

I. 머리말

현 시대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COVID pandemic) 현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공포와 더불어 동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혐오 수준은 극에 달해 있고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2019년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3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28건으로 증가하며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¹⁾ 국내에서도 특정 국가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의 외국인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대규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역 중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1) 본 내용은 2021년 3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작성함.

하나가 되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내 해고 1순위가 되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은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기도 하였다. 특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문화 가족들의 삶은 더욱 더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데이터 랩(datalab.naver.com)에서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된 검색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국내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다문화’라는 키워드 검색의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차이가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다문화 검색량 변화²⁾

즉,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다문화 관련 검색어의 빈도가 많은 반면, 코로나 발생 시점 전후 약 3개월간에는 다문화 관련 검색어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2020년 3월 이후에는 예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는 다문화 관련 키워드들은 코로나 전에 비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2)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분석 [(1) 주제어: 다문화, (2) 검색기간: 2019. 07. 21~2020. 07. 20, (3) 검색범위: PC, 모바일 전체, 성별 전체, 연령 전체]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범세계적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포털 뉴스들이 바라 본 다문화와 관련한 인식들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문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국내 코로나 발생 시점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러한 키워드들 간의 CONCOR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들의 언어 감성분석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성들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국내외 위기상황에 따른 감성단어들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 연구주제 1: 코로나 팬데믹 전후 시점에 다문화라는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CONCOR 분석에서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진 언어 클러스터(cluster)들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주제 2: 코로나 팬데믹 전후 시점에 다문화라는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감성언어 분석 결과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성 단어들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II.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다문화 관련 기존 연구

최근에 다문화를 주제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명숙(2018)과 윤희진(2020)의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이수정과 최두영(2020)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또는 이민자에 대해 가지는 대준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강진구와 이기성(2018)의 연구는 이주 난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텍스트마이닝으로

측정하였으며, 김수정, 마경희, 윤성은(2020)의 연구와 김태종(2020)의 연구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가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유사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세현(2018)은 다문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약 17년 동안 국내의 다문화 아카이브(CSMR Archive)에 수록된 다문화 논문 초록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김세현의 연구(2018)에서는 다문화 연구 토픽을 크게 교육, 이주 그리고 정책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으로 개별 토픽의 비정형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안명숙(2018)의 연구는 다문화 정착기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관된 핵심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처해 있는 차별적 요인들에 대해 조명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희진(2020)의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 관련 멘토링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의 초록과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분석하였고, 다문화 멘토링을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사회의 이슈, 멘토링 경험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수정과 최두영(2020)의 연구는 ‘이주’와 ‘이민’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논문 및 언론 기사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주 및 이민 관련 논문들이 다문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해석하였다. 강진구와 이기성(2019)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네이버 댓글은 난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도수 분석과 토픽 분석 그리고 감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상당수의 네이버 댓글이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자	주제(키워드)	분석대상	텍스트마이닝 기법
김세현(2018)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	다문화 아카이브(CSMR Archive)에 수록된 다문화 논문정보	LDA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안명숙(2018)	결혼이주여성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9,023개 단어	키워드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강진구와 이기성(2019)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 분석(제주도 난민, 예멘 난민, 정우성 난민, 난민 가짜뉴스)	빈도수 분석, 토픽 분석, 감정분석
윤희진(2020)	다문화 멘토링	학술지논문 104편, 학위논문 102편	LDA 분석
이수정과 최두영(2020)	이주, 이민	KCI 논문 46 편과 조선/중앙/동아일보/한겨레신문 기사 16편	키워드 분석,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표 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한편,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김태종(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언론에서 언급되는 코로나 관련 의제들이 무엇인가를 토픽 모델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7,816 건의 뉴스 데이터를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약 20개의 핵심 토픽을 찾고, 언론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수정, 마경희, 윤성은(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의 코로나 19 대응 및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 환경 하에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새로운 방안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와 지원 대상자 맞춤형 혼합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포용적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방식과 문서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일반 문서나 도서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블로그, 전자 저널, 이메일 등 전자문서 등을 포괄하는 자료원천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들이다. 텍스트마이닝은 주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의미나 통찰 (insight)을 발굴하는 데이터마이닝, 언어를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전문 영역들이 접목되어 발전한 융합 기술이자 분석 도구이다. 즉,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또는 반구조화된 텍스트 집합에서 자연어 처리기술과 기계학습, 인덱싱(indexing), 온톨로지(ontology)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미를 정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³⁾

이와 같이 텍스트마이닝은 논문, 신문 그리고 보고서 등과 같은 문서의 요약, 자동 범주화와 같은 문서 분류, 유사 단어 또는 유사 문서 간의 군집 분석, 주요 키워드의 추출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전처리 단계로 문자 열을 단어, 문장, 단락으로 조각화하는 토큰화(tokenization)와 어절 또는 문장을 최소의미 단위인 형태로소 분절하여 불필요한 단어 또는 문자를 제거하는 정제(cleaning) 및 같은 의미이면서 표현이 다른 단어를 통합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쳐 문서와 같은 자료원천으로부터 주요 핵심 키워드를 분류하고 특징을 추출한다.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심단어들 간의 관계구조 분석 및 연관성 분석, 감성단어 분석, 토픽 모델⁵⁾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3) 텍스트마이닝에 대한 정의는 광기영, 『소셜네트워크 분석』 (청람, 2014)과 딘 러셔, 요한 코스키넨, 개리 로빈스, 최수진 역, 『사회 네트워크 통계 모형 (EGRM)』 (한울, 2020)의 연구를 일부 인용함.

4) 김용학, 김영진,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6).

5) 토픽 모델(topic model)은 기계 학습 및 자연언어 처리 분야 중의 하나로, 문

IV. 텍스트마이닝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웹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전문 프로그램인 텍스트톰(TEXTOM 5.0)을 이용하였고, 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 다음(Daum) 그리고 구글(Google)의 뉴스를 검색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코로나 발생 이전 6개월(2019년 7월 21일 ~ 2020년 1월 20일)과 코로나 발생 이후 6개월(2020년 1월 21일 ~ 2020년 7월 20일)을 지정하여 월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총 11,153건(네이버: 5,152건, 다음: 4,372건, 구글: 1,629건)의 다문화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총 11,141건(네이버: 5,121건, 다음: 4,440건, 구글: 1,580건)의 문서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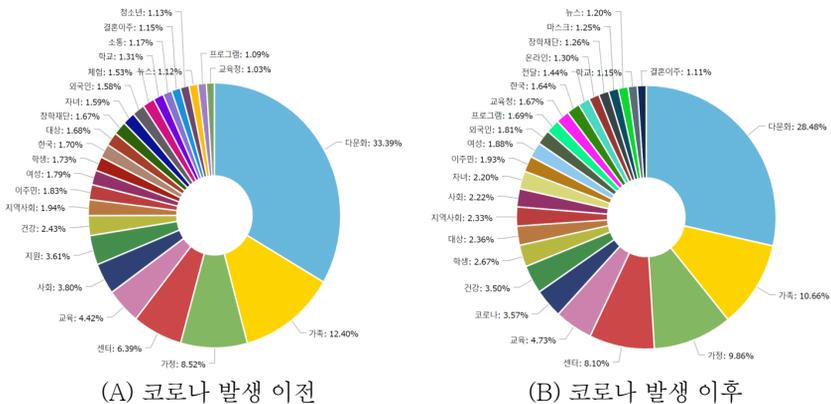
다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수집 후에 형태소 분석에서는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결과값에 반영하는 Espresso K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품사는 체언의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단위 명사, 수사, 대명사 등을 위주로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조사들과 단음절의 용어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분석을 시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는 정제과정과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통합하는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제된 데이터들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의 1-mode의 공출현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매트릭스 데이터는 행과 열이 같은 단어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매트릭스 형태이다.

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텍스트마이닝에서 키워드 또는 핵심어를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TF(단어

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임. 특히, 텍스트 본문의 숨겨진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

빈도, Term Frequency)는 문서 내 특정 단어의 빈도를 의미하고,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DF(Document Frequency)의 역수로서, DF는 한 단어가 전체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위 25개의 단어 빈도(TF)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단어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과 상관없이 다문화 가족의 삶과 관련한 ‘가족’, ‘가정’, ‘센터’, ‘건강’, ‘사회’, 그리고 ‘이주민’ 등과 같은 단어들의 빈도가 높았고, ‘교육’, ‘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자녀’ 등과 같은 다문화 자녀 교육 관련 키워드들도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체험(1.53%)’이나 ‘소통(1.17%)’ 등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건강(3.50%)’, ‘뉴스(1.20%)’이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지원’의 빈도가 3.61%로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이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매우 낮아져 기존의 상당수의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들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1.30%)’과 ‘마스크(1.25%)’라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관련한 키워드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코로나 발생 전후의 키워드 단어빈도 파이차트

또한 TF-IDF는 주로 문서의 유사도를 구하는 작업이나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결과의 중요도를 정하는 작업, 그리고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구하는 작업 등에 주로 활용되는 데, 본 연구에서 키워드들 간의 TF-IDF와 연결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TF-IDF와 연결 중심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다문화,’ ‘가족,’ ‘가정,’ ‘센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연결 중심성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지원’이라는 단어의 빈도와 TF-IDF는 높은 반면 연결 중심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 ‘온라인,’ 그리고 ‘마스크’ 등과 같은 국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어들의 키워드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TF-IDF와 연결 중심성이 낮게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TF-IDF는 텍스트마이닝에서 활용하는 가중치 알고리즘(algorithm)으로, 여러 문서로 구성된 문서 군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각각의 특정 문서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를 측정하는 통계적 분석 수치로써, ‘코로나,’ ‘온라인,’ 그리고 ‘마스크’ 등과 같은 코로나 관련 단어들은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낮고, 전체 문서상으로는 이러한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많아서 TF-IDF 값은 작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특정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타 단어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 ‘온라인,’ 그리고 ‘마스크’ 등과 같은 단어들이 특정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적고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연결 중심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7월 21일 ~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1월 21일 ~ 2020년 7월 20일)		
키워드	TF-IDF	연결중심성	키워드	TF-IDF	연결중심성
가족	9,309.2	0.0874	가족	9,309.2	0.0874
가정	7,364.3	0.0713	가정	7,364.3	0.0713
센터	7,586.4	0.0950	센터	7,586.4	0.0950

교육	7,219.6	0.0815	교육	7,219.6	0.0815
사회	5,599.2	0.0642	코로나	65.1	0.0007
지원	5,453.6	0.0030	건강	4,583.1	0.0329
건강	4,583.1	0.0329	학생	4,376.7	0.0389
지역사회	3,796.3	0.0432	대상	3,489.1	0.0450
이주민	3,882.7	0.0315	지역사회	3,796.3	0.0432
여성	3,946.2	0.0467	사회	5,599.2	0.0642
학생	4,376.7	0.0389	자녀	3,793.2	0.0301
한국	3,750.3	0.0639	이주민	3,882.7	0.0315
대상	3,489.1	0.0450	여성	3,946.2	0.0467
장학재단	4,275.8	0.0193	외국인	3,925.2	0.0361
자녀	3,793.2	0.0301	프로그램	2,890.6	0.0405
외국인	3,925.2	0.0361	교육청	3,090.7	0.0187
체험	3,812.1	0.0459	한국	3,750.3	0.0639
학교	3,528.7	0.0316	전달	1,885.0	0.0253
소통	3,135.9	0.0169	온라인	121.5	0.0017
결혼이주	2,882.0	0.0359	장학재단	4,275.8	0.0193
청소년	3,262.3	0.0283	마스크	455.9	0.0049
뉴스	2,791.9	0.0624	뉴스	2,791.9	0.0624
프로그램	2,890.6	0.0405	학교	3,528.7	0.0316
교육청	3,090.7	0.0187	결혼이주	2,882.0	0.0359
축제	3,054.5	0.0295	서비스	2,405.9	0.0152
실시	2,555.4	0.0348	청소년	3,262.3	0.0283
이중언어	2,859.0	0.0245	학부모	2,348.7	0.0209
복지	2,637.8	0.0199	한국어	1,770.5	0.0173
서울	2,438.7	0.0397	복지	2,637.8	0.0199

[표 2] 코로나 발생 전후 TF 키워드의 TF-IDF와 연결 중심성

2. CONCO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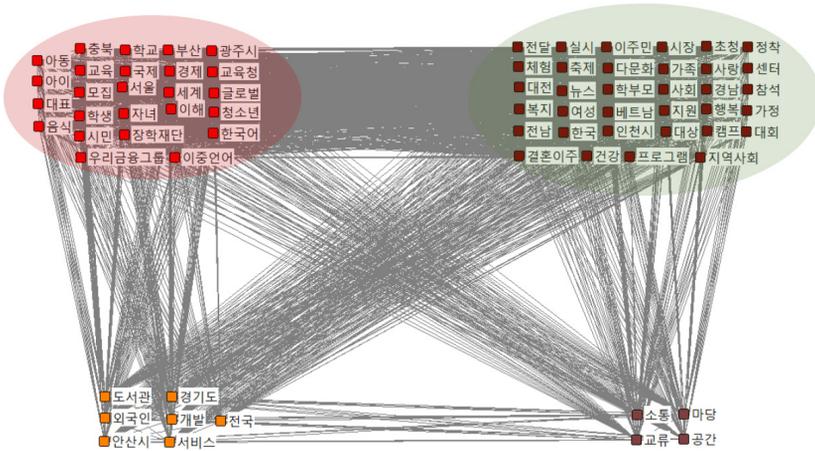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주요 키워드들 사이에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구조적 등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키워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수준의 유사성을 찾아내어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위자간 관계 패턴의 도출을 위해 행위자들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사용한다. 여기서 구조적 등위성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지는 경우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유사한 지위를 가진 행위자들을 블록(block)화하고, 그러한 군집들 간의 묘사하는 방식이다. CONCOR 분석은 단어들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블록화하고, 중심성 지수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개별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UCINET의 넷드로우(Netdraw)를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CONCOR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단계별 군집 수를 확인하였고, 덴드로그램 결과를 기반으로 2개의 속성을 선택하여 군집화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구성 노드들 간의 분산배치 정도를 설정하는 스크런치(Scrunch) 요인을 ‘8’로 지정하여 노드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고, CONCOR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심 클러스트(cluster, 군집)와 주변 클러스트로 구분하였다.

우선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의 CONCOR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크게 2개의 중심 군집과 2개의 주변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 삶과 관련된 중심 군집은 총 34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는 총 25개로 클러스트화되었다. 다문화 삶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는 결혼이주, 지역사회, 여성, 사회정착,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키워드들이 있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청소년, 아동, 교육, 학생, 학교, 이중 언어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한편, 주변 클러스트에는 소통, 교류, 공간, 마당이라는 그룹과 경기도, 서비스, 도서관, 외국인, 안산시, 개발이라는 주변 키워드가 군집화되었다.

한편, 다음의 [그림 4]와 같은 코로나 발생 이후의 CONCOR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크게 세 개의 중심 군집과 한 개의 주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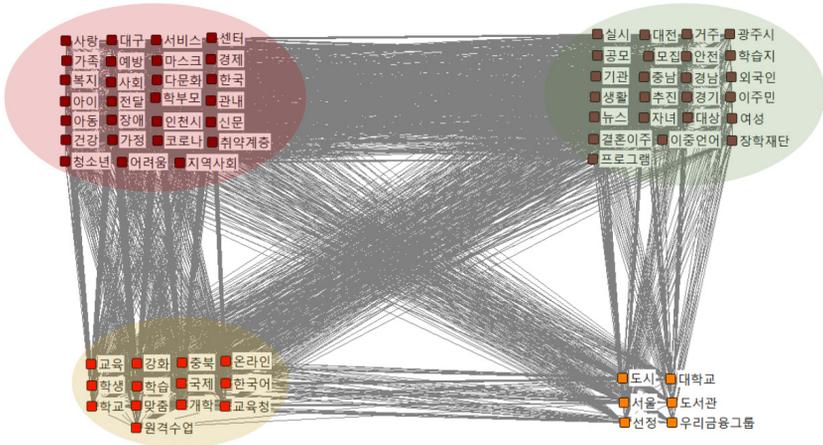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 발생 전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CONCOR 분석 시각화 결과

가정의 삶 관련 중심 클러스트는 총 27개의 키워드가 군집화되었고, 일반적인 다문화 사회 관련 키워드는 총 24개가 군집화되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의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교육과 관련한 키워드는 13개가 추출되었다.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금융그룹, 도서관, 대학교, 도시, 서울, 선정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취약한 삶 관련 키워드로는 경제, 취약계층, 어려움, 예방, 마스크 등의 단어가 추가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문화 자녀들이 겪는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맞춤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그룹화되었다.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육의 공백 문제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수준별 맞춤 학습이나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청의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여성정책연구원(2020)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또 다른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그림 4] 코로나 발생 후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CONCOR 분석 시각화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의 토론회⁶⁾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 중의 하나로 초중고 학교 및 각종 보육 시설의 휴원에 따른 자녀들의 돌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돌봄 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의 돌봄 공백의 문제는 국내의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ONCOR 결과처럼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다문화 정책의 운영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3. 코로나 발생 전후의 언어 감성단어 분석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 안에 나타난 부정과 긍정을

6) 한국어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 경제적 상황 변화,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임.

구분하는 극성 분석이고, 사람들의 슬픔이나 기쁨,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성과 태도나 의견, 성향 등과 같은 사람들의 감성에 대한 주관적인 자료를 분류하는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대표적인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기법 중의 하나이다. 감성 분석은 우선 감성어 사전을 구축하고 규칙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 분류하고 감성어 사전을 구축한 후에 개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해하여, 이렇게 분해된 단어를 사전에 미리 준비한 감성어 사전과 매칭(matching)하여 각각의 개별적 단어들의 감성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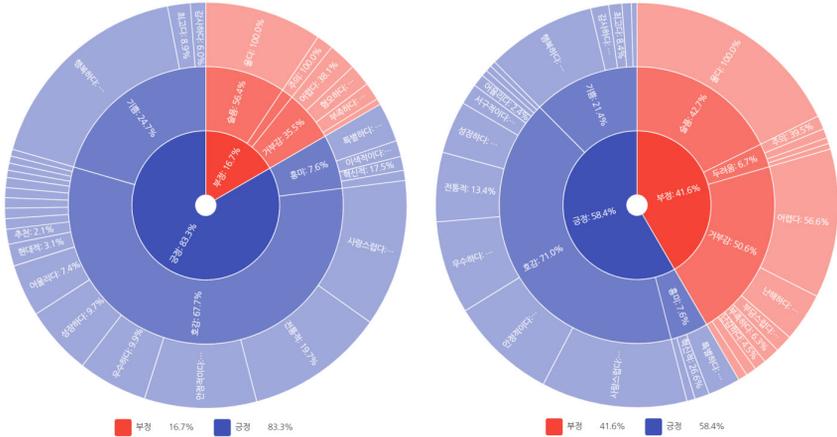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감성단어 빈도분석은 원문 데이터 안에 내제된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감성단어들의 빈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롬(Textom)에서 자체 제작된 감성어 어휘사전을 기반(lexicon-based approach)으로 감성언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롬의 감성어휘 사전은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단어의 카테고리 안에 긍정의 키워드는 흥미, 호감, 그리고 기쁨의 단어가 있고, 부정의 키워드에는 통증,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그리고 거부감이라는 6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⁷⁾ 이러한 감성단어 빈도는 시각화 결과를 통해 키워드 빈도뿐만 아니라 감성단어의 강도와 세부 감성 분석 시각화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감성언어 해석의 다양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감성어 어휘사전 기반의 접근 방법은 텍스트롬(Textom) 5.0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사전에 정의된 감성사전과 분석 대상 텍스트의 감성어와의 출현 빈도 매칭을 통해 긍정과 부정 등의 감성을 분류하는 접근 방법이다.

다음의 [그림 5]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단어들의 감성단어 분석의 결과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긍정적 단어의 비중이 부정적 단어의 약 5배에 달할 만큼 긍정적 단어들 많았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긍정적 단어가 약 58.4%이고 부정적 단어가 41.6%로 긍정적

7) 본 내용은 텍스트롬(www.textom.co.kr)의 감성분석 100% 활용법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임.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단어가 부정적 단어의 약 1.4배 비율로 부정적 단어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코로나 발생 이전

(B) 코로나 발생 이후

[그림 5] 다문화 중심의 단어 감성분석

[그림 5]의 감성단어의 빈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전에는 중분류에서 기쁨 관련 단어가 20.57%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12.50%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호감 관련 단어도 56.39%에서 41.46%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슬픔으로 중분류된 부정적 감성어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9.42%이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7.76%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부감 관련 단어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5.93%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21.05%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약 4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단어의 급증은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는 부정적 보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다문화 이주민/이주자에 대한 거부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우울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의 과중으로 인하여 슬픔이나 두려움, 공포와 같은 부정적 단어들도 많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후시기에 다문화를 중심으로 어떠한 감성단어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가를 시각화한 단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안정적이다’ 등의 긍정적 단어의 빈도가 높은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울다’, ‘어렵다’ 등의 부정적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기존의 ‘행복하다’와 ‘사랑스럽다’와 같은 긍정 감성어들의 빈도가 다소 축소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난해하다’, ‘걱정하다’, ‘위축되다’, ‘부담스럽다’ 그리고 ‘난감하다’라는 부정적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긍정적 단어가 많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부정적 단어가 많다는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다문화 관련 언론 보도 양상」 보고서⁸⁾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들이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민을 대한 시선들이 다소 부담스럽고 위축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8)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는 2019~2020년 국내 주요 언론사 54곳에서 보도한 다문화 기사 4천여 개를 바탕으로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감성단어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이슈와 관련한 ‘호감’은 2019년 51.5%에서 2020년 38.2%로 13.3%포인트, ‘기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0.3%로 3.4%포인트 각각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거부감(9.7%→19.3%)과 두려움(1.1%→2.1%)은 각각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함. 연구를 진행한 김동진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초빙교수는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쓰는 언론 보도에서조차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문화와 관련해 거부감과 두려움 등의 표현이 증가한 것을 볼 때 대중 인식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과 편견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 이해를 돕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연합뉴스, 2021년 3월 9일자).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A) 코로나 발생 이전

(B) 코로나 발생 이후

[그림 6] 다문화 중심의 감성 단어 워드 클라우드

V. 맺음말

201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 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전 지구적 사회 재난이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상황 하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 중의 하나인 다문화 가정들은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에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해고나 무급 휴직 등과 같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배제 그리고 차별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다문화 가정 중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이주민들은 의료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다문화 가정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에 많은 변화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기본적인 공동체 가치와 시민적, 합리적 규범 그리고 평등 이념은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즉,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와 더불어 문화 간 이해, 그리고 관점과 전개 방식의 공유는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post Corona-pandemic)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 운영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탄력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 정책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 현상에 의해 다문화의 인식이 시점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비교 추적한 연구로서 다문화 사회에서 외부적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측정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전후 시점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 관련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출현빈도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각 추출 단어들 간의 중심성 분석과 감성 언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CONCOR 분석을 통해 각 단어들의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감성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전에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도출되었던 반면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 코로나라는 사회 전반의 큰 변화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 또는 이민자들에 대한 감성언어들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향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CONCOR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다문화 관련 핵심어들 간의 클러스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 19라는 외부환경 변화가 기존의 우리 사회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교육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이해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도 내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키워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 왔지만, 다문화라는 대표적인 키워드 이외에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사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반영하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키워드를 개발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구조 효과는 살펴볼 수 있었지만 거시적 구조 내의 개별 행위자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미시적인 관계성 구조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경영학부 정교수, khchoi@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코로나-19(COVID-19), 다문화(multiculture), 빅데이터(big data),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투고일: 2021.04.11, 심사일: 2021.04.25,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 초록>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최강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는 국내 다문화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문화와 관련한 핵심 키워드들에 어떠한 질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추적했다. 즉, 코로나 발생 전후 시점에 다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변동을 측정하고, 감성단어들의 변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NCOR 분석을 통해 코로나 전후 시점의 다문화 관련 키워드들의 군집 변동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적 환경 변동에 따라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 운영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탄력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 정책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in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Before
and After Corona Outbreak Using the Text Mining

Choi, Kanghwa

Corona-19 Pandemic, which has terrorized the world,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various fields of Korean society until now.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rona-19 on the qualitative changes of critical keywords focused on multiculturalism. That is, this study measured the changes in keyword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before and after Corona-19 occurrence and investigated the changes in sentimental words. In addition, this study traced the variation of clusters on multi-cultural keywords before and after Corona-19 occurrence using the CONCO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strategic initiatives of multicultural policy that can more effectively cope with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rona-19.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19 pandemic era,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and multi-faceted multicultural policy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multicultural immigrants in Korea and establishes desirable direction for multicultural policy initiatives.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곽기영, 『소셜네트워크 분석』 (서울: 청람, 2014).

김용학, 김영진,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16).

데렉 한센, 벤 슈나이더마, 마크 스미스, 권상희 역, 『노드엑셀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서울: 컴윈미디어, 2019).

던 러셔, 요한 코스키넨, 개리 로빈스, 최수진 역, 『사회 네트워크 통계 모형(ERGM)』 (과주: 한울, 2020).

Cherven, K., *Mastering Gephi Network Visualization: Produce advanced network graphs in Gephi and gain valuable insights into your network datasets* (BIRMINGHAM – MUMBAI: PACKT Publishing, 2015).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 논문

강진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본 <다문화콘텐츠연구>의 연구 경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2권(2019).

강진구, 이기성,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0권(2019).

김세현, 「비정형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 연구」, 『한국인구학』, 제41권 1호(2018).

김수정, 마경희, 윤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쥬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센터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 58집(2020).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김용희,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의 이해와 적용: 네트워크 구조와 클러스터링 그리고 QAP」,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34집(2020).

김태중,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5호(2020).

안명숙,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문화 핵심단어 및 네트워크 분석」,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제6권 2호(2018).

윤희진,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 멘토링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1호(2020).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4호(2014).

이수정, 최두영,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5호(2020).

이주호,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COVID-19 재난지원 동향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2020).

3. 연구/정책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3차 코로나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토론회(2020).

우춘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이동의 제한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20).

■ 논문 ■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박 해 운

I. 머리말

구스타프 코시나와 마찬가지로 나는 비교언어학을 거쳐 선사고고학을 연구했다. 나는 인도유럽인의 요람에 대한 발견과 인도유럽인의 원시 문화 규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유럽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¹⁾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 1892-1957)는 고향 시드니의 블루마운틴에서 투신하기 직전인 1957년 9월 『앤티퀴티(Antiquity)』에 투고한 「회고(Retrospect)」에서 그가 고고학 연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차일드가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인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차일드가 언급한 코시나(Gustaf Kossinna: 1858-1931)는 나치집권기 이전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사고고학자로, 비교언어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90년대 이후 노르만주의(Nordicism)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을 연구했다. 가장 순수한 아리아인인 독일인의 조상 인도게르만인, 즉 노르만인이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독일 북부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판단한

1) Vere Gordon, Childe, “Retrospect”, *Antiquity*, 126(1958), p. 66.

코시나는 이들의 확산과정을 유물의 상대연대 수립을 통해 추적하였다. 코시나의 문화사고고학은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결합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고고문화의 등급이 생물학적 우열성과 연결되며, 현재 가장 우월한 민족인 독일인의 조상이 선사시대에도 가장 발전한 문화를 이룩했다는 것이었다.

1914년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호주 태생의 청년 차일드는 코시나와 마찬가지로 문화사적 방법을 통해 고고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1917년 고향 시드니로 돌아온 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호주노동당에서 정치가로 활동했던 좌익 사회주의자 차일드는 1922년 런던주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표부에서 해고된 이후 본격적으로 고고학 연구에 매진하였다. 정치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1920년대 중후반 차일드의 고고학 연구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유럽 문명의 여명(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이후 『여명』으로 약칭)과 『아리아인(The Aryans)』에서 코시나의 주장을 반박하여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족의 조상이 노르만인이 아니라 러시아 남부에서 기원했음을 유물의 상대연대 수립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코시나의 고고학 연구에 대한 이론적 모순에 대한 반박은 아니었다.

오히려 1920년대 중·후반 차일드는 코시나의 지지자였으며 독일의 문화개념을 받아들여 연구를 진행하였다.²⁾ 차일드는 『여명』 제1판에서 유럽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서로 다른 고고문화를 인종(race)·민족(peoples)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이 당시 차일드는 노르만인의 창의성이 탁월한 육체에 기인한다는 등 일종의 인종주의적 사고 역시 가지고 있었다.³⁾

그런데 1920년대 후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였던 차일드는 역사적인

2) Vere Gordon Childe, "G. Kossinna Ursprung und verbreitung der Germanen in vor- und frühgeschichtlicher Zeit", *Man*, 27(1927), pp. 54-55; Childe, "Retrospect", p. 70.

3) Vere Gordon Childe,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pp. 211-212.

특수성을 중시하는 문화사고고학과 상반된 마르크스주의적 일반진화론을 그의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차일드는 1928년에 출판한 『고대의 동방(The Most Ancient East)』에서 문명과 문화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대해 추적하였다.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함으로써 발전한다는 그의 진화론적 단계론은 1936년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으로 유명한 『인간이 만들어 나아가는 역사(Man Makes Himself)』에서 구체화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차일드의 고고학 이론과 연구방법론이 1935년 소련 방문을 계기로 일대 대전환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⁴⁾ 하지만 차일드는 문화사적 방법론을 포기한 것 또한 아니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차일드 고고학의 특징은 상대편년을 바탕으로 문화의 전과 과정을 추적하는 ‘전문화 지향적’ 연구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수립하는 ‘일반화 지향적’ 연구의 공존이라는 점이다.⁵⁾ 차일드가 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기반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고학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그가 투신하기 직전에 작성한 학문적인 유언장인 「회고」에서 코시나를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그가 1933년 8월 『타임즈(The Times)』에 기고한 「아리아인 이전(Before the Aryans)」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 그는 히틀러를 언급하며 독일의 선사고고학에 투영되기 시작한 나치의 인종주의 이론에 대해 경고하였다. 차일드가 그의 학문적인 유언장인 「회고」에서 코시나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나치 집권 이후 그의 고고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더 이상 인종주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차일드가 유럽 문명의 문화적 요소가 동방(Orient)에서

4)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인문논총』, 65집(2011), 165쪽; 최몽룡, 「차일드(Childe)와 신석기혁명」, 최몽룡·최성락 편 『인물로 본 고고학사』 (서울: 한울, 1997).

5)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165쪽; Bruce Trigger, “Major Concepts of Archaeology in Historical Perspectives”, *Man*, 3(1968), pp. 533-534.

전파되었다는 문화사적 방법론과 함께 인종적 우열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 일반진화론적 시각을 본격적으로 혼용한 계기가 된 시점은 1935년이 아닌 1933년이라는 것과 그 이유가 코시나의 유산인 나치고고학과 대결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음을 본고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나치고고학의 형성 과정, 나치의 집권과 차일드의 반응, 그리고 1933년에서 영국이 독일의 재무장을 인정하고 유화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1935년까지 차일드의 나치고고학에 대한 대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II. 프리크의 교육지침과 노르만주의: 나치고고학의 이론적 기반

1933년 1월 히틀러가 수상에 임명된 직후 나치 수뇌부는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3년 5월 9일 내무부장관 프리크(Wilhelm Frick: 1877-1946)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일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소개하기 위해 이 지침을 영어로 번역하여 1934년도 2월 『네이처(Nature)』 130호에 번역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The Teaching and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인종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며 문화는 인종의 창조물이라 주장한 프리크의 지침 내용 중 선사시대와 고대의 교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빙하기 중부 유럽에 존재했던 네안데르탈인, 오리낙인, 크로마뇽인은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하였다. 즉 구석기시대(Urgeschichte)부터 문화는 인종(Rasse)의 창조물이라 보아야 한다.
2. 신석기시대의 개시 이후 노르만 인종은 북유럽에서 중부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의 역사는 노르만 인종의 역사이며 그들의 문화 수준이

석기, 청동기 등의 유물에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업적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설명하라.

3. 노르만 인종은 이미 기원전 5천 년대에 중동(Hither Asia)과 북아프리카를 침공하였다. 이는 이집트 초기 무덤들에서 발견된 노르만인의 두개골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4. 수메르인의 인종적 기원은 아직 모호하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보여주고 있는 인도-게르만어에서 기원한(Indo-Germanic roots) 요소들을 고려할 때, 수메르문명을 이룩한 상위계급은 노르만인 정복자임을 가정할 수 있다.

5. 그리스 역사는 중부 유럽에서 시작하였다. 그리스의 귀족제는 정복자 노르만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소수 노르만 계통의 시민과 아시아에서 기원한 토착민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종 간의 혼혈로 인해 계급(인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쇠퇴하였다.

6. 이탈리아의 역사 역시 중부 유럽의 노르만인에서 시작하였다. 고대 로마에서 귀족과 공화파 간의 투쟁은 인종투쟁(Rassenkampf)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고대 로마에서 노르만인의 형질적 요소는 거의 사라졌으며, 서력 기원 전후 대부분의 이탈리아 인구는 동방 노예들의 후손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침에서 프리크는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를 바로 “탁월한 민족 과학(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으로 규정한 코시나의 선사고고학과 귄터(Hans Günther: 1891-1968)의 인종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독일 선사시대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⁶⁾ 그런데 이 지침에 반영된 설, 즉 스칸디나비아에서 발흥한

6) 이 두 명과 함께 프리크의 지침에는 프랑스의 노르만주의자 라푸즈(Georges Vacher de Lapouge: 1854-1936)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지침의 내용 중 노르만인의 이집트 침공설은 라푸즈의 주장에 해당한다.

노르만인의 이주와 확산에 의해 고대 지중해 지역의 문명이 탄생했으며, 결국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노르만인과 열등한 토착민 간의 혼혈에 의해 쇠퇴했다는 것은 코시나와 쿼터가 독창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아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중반 인종결정론에 기반한 노르만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세기 초반 아리아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아인은 바로 인도유럽어를 쓰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언어의 기원에 대한 당시의 비교언어학적 연구는 아리아인이 현재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의 초원지대에서 기원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⁷⁾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고비노(Arther de Gobineu: 1816-1882)를 시작으로 아리아인에 관한 연구는 언어에서 인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리아인이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독일 북부 지역에서 기원하여 팽창했다는 설이 유럽에 확산되었다.

자신이 노르만 바이킹의 후예라고 믿은 프랑스의 왕당파 귀족 고비노는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발발한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혼란의 이유가 프랑크 귀족의 후예인 게르만인과 평민인 골인, 그리고 라틴인 간의 혼혈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타락 때문이라 생각하였다.⁸⁾ 소위 ‘과학적 인종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인종불평등론(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에서 고비노는 “인종 간 차이는 영원하다(Racial differences are permanent)”라고 천명했는데, 이는 각 인종 간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우열이 환경과 교육 등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각 인종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핏줄에 의해 전수되는 육체적·정신적 형질에 의해

7) Tuska Benes, “From Indo-Germans to Aryans: Philology and the Racialization of Salvationist National Rhetoric, 1806-30”, S. Elgen and M. Larrimore eds., *The German Invention of Rac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p. 171-175.

8) Michael Biddiss, *Father of Racist Ideology: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Count Gobineau* (London: Cox & Wyman LTD, 1970), pp. 129-131.

결정된다는 것이었다.⁹⁾

고비노는 인종을 기본적으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하였다. 해부학자 캄퍼르(Petrus Camper: 1722-1789)가 인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지로 고안한 골상학의 안면각(facial angle) 이론을 바탕으로 고비노는 장두형의 백인종을 가장 지능적인 사교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종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우월한 인종’으로 규정하였다.¹⁰⁾ 그리고 유럽의 백인을 게르만인, 로마인, 알레마니인, 골인으로 재분류한 고비노는 그중 조상들의 신체적 특징, 즉 금발과 장두형의 두개골을 물려받은 신체적으로 아름답고 우수한 지적 능력을 타고난 게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이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인종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게르만인은 근대 독일인이 아니었다. 당대 독일인들이 프랑스인보다도 더 혼혈이 심하게 이루어진 인종이라 판단한 고비노는 게르만인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닌 집단은 스칸디나비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1880년대 이전 독일 내에서 고비노의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독일 비교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인도유럽인의 문화가 아시아에서 기원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¹²⁾ 하지만 고비노의 인종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작곡가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¹³⁾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고비노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독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9) Arther de Gobineau, translated by A. Collins, *The Inequality of Human Race* (London: William Heinemann, 1915), p. 117.

10) *Ibid.*, p. 207.

11) Biddiss, *Father of Racist Ideology*, pp. 65-66.

12) Benoit Massin, “From Virchow to Fischer: Physical Anthropology and “Modern Race Theories” in Wilhelmine Germany”, G. W. Stocking Jr. ed., *Volkgeist as Method and Ethic*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p. 127.

13) Gregory Blue, “Gobineau on China: Race Theory, the “Yellow Peril”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1999), p. 115.

고비노가 촉발한 노르만주의는 중부 유럽의 독일어 사용 지역에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당대의 독일인이 순수한 게르만인, 즉 노르만인의 후예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1878년 독일의 인류학자인 포체(Theodor Pötsche: 1825-1899)는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북극해에서 사하라사막까지,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서 바이칼호와 인더스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북해 연안과 발트해 지역에서 아리아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고비노에게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인류학자이자 비교언어학자인 펜카(Carl Penka 1847-1912)는 포체의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는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이들의 요람인 스칸디나비아반도 남부와 함께 발트해 연안, 즉 현재 독일 북부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중부 유럽, 즉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로 이주했다는 가설을 세움으로써 당대 독일어 구사자를 순수한 아리아인의 후예로 포함시키려 했다.¹⁵⁾ 펜카가 제안한 스칸디나비아 기원론은 1890년대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심지어 북미 지역까지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친노르만주의자들이 강조한 스칸디나비아인과 독일인의 친연성에 의해 ‘노르만 인종’은 ‘아리아인’과 ‘인도게르만 인종’의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¹⁶⁾

두 번째 문제는 노르만인이 기원한 시기를 밝힘으로써 당대 독일인의 조상인 노르만인이 유럽 문명의 창조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1886년 펜카는 아리아인이 팽창하기 이전인 석기시대에 이들의 원시 문화가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미 성립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에서 중부 유럽을 거쳐 그리스와 로마로 이주한 아리아인, 즉 노르만인이 이 지역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룩했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후 소수의

14)Giuseppe Sergi, *The Mediterranean Race: a Study of the Origins of European Peoples* (London: Walter Scott, 1901), p. 9.

15)Frank H. Hankins,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A Critique of the Nordic Doctrine* (New York: Alfred·A·Knopf, 1926), p. 56.

16)Stefan Arvidsson, *Aryan Idols: Indo-European Mythology as Ideology and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p. 143.

17)Sergi, *The Mediterranean Race*, pp. 8-9.

노르만 귀족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지배했다는 사고가 독일에 급속히 확산되었다.¹⁸⁾

노르만주의가 유행처럼 번진 1880년대에 비교언어학을 연구하던 코시나는 역사시대 이전, 즉 선사시대 독일인의 조상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고고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취락고고학(Siedungsarchäologie)’으로 대표되는 코시나가 고안한 문화사고고학의 핵심은 ‘공통된 물질문화가 발견되는 지역이 특정 집단(종족)의 영역’이라는 것과 ‘과거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독일인들의 물질문화의 특징을 소급해서 선사시대 독일 민족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고고학적 사고와 노르만주의를 바탕으로 코시나는 1896년에 추적할 수 있는 인도게르만인의 가장 오래된 유적이 기원전 3천 년대 스웨덴 남부, 유틀란트반도와 덴마크의 도서 지역, 그리고 북부 독일의 쉘레스비히홀슈타인과 메클렌부르크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남진과 동진하여 후기청동기시대에 오데르강 유역과 비스와강 유역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러한 코시나의 이주론은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이상적인 인도게르만인을 기준으로 민족은 능동적 상위계층인 “문화민족(Kulturvölker)”과 수동적 하위계층인 “토착민족(Naturvölker)”으로 구분되며, 민족적 차이는 불변하며 영원하다는 것이었다.²¹⁾ 따라서 코시나가 선사고고학을 “탁월한 민족과학”이라 주장한 이유는 바로 고고학을 역사시기 이전 현대 독일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문화의 창조자

18)Hankins,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p. 59.

19)Ulrich Veit, “Gust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43.

20)Gustaf Kossinna, “Die Vorgeschichtliche Ausbreitung der Germanen in Deutschland”,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Volkskundes*, 6(1896).

21)Leo Klejn, “Gustaf Kossinna (1858-1931)”, T. Murray, e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The Great Archaeologists* (Santa Barbara: ABC-Clio, 1999), p. 238.

인도게르만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북쪽, 즉 독일에서 이주한 집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했다고 생각한 코시나는 당시 유럽의 고전고고학계를 지배하던 이론인 동방에서 이룩한 문화적·기술적 혁신이 지중해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ex Oriente lux(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거부한 후 북유럽 지역에서 이주한 노르만 계통의 주민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의 문명을 건설했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코시나의 생각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석기시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출현한 마글레모제문화(Maglemosian Culture)의 담당자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약 1만년 전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북부 유럽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문화의 담당자는 장두형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인도게르만인의 조상인 크로마뇽인 순록 사냥꾼의 후예들과 핀란드인의 조상인 원두형의 인종이었다.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된 온난 기후 최적기에 선-핀란드인들은 동쪽으로 이주하였으나, 원거주지에 남아있던 중석기시대 에르테빌레-엘레르벡 문화(Ertebølle-Ellebek Culture: 6000-4000 BC)의 담당자인 장두형의 선-인도게르만인들은 초기 농경과 동물의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토기를 발명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영국과 북부 프랑스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동쪽으로 이주한 다른 일부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히니아를 거쳐 수메르에 도달했다.²³⁾ 그리고 기원전 3000년대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 거주했던 주류 원주민들이 신석기시대에 형성된 북부 인도게르만인의 직계 조상이었다. 이들은 호전적인 식민주의자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건설한 인종이었다.²⁴⁾

전형적인 노르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코시나는 인도게르만인의

22)Gustaf Kossinna, *Die Deutsche Vorgeschichte: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Würzburg: Kabitzsch, 1912).

23)프릭의 교육지침에서는 이를 ‘제1차 노르만인의 침공’이라 표현하였다.

24)Vere Gordon Childe,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pp. 168-169.

정신적 우월성이 신체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체질인류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러한 코시나의 인종관의 약한 고리를 해결해준 인물이 바로 바이마르 시대와 나치 시대 독일을 대표하는 우생학자 쿤터였다.²⁵⁾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유럽의 인종을 노르만인, 지중해인, 디나르인, 알프스인, 동발트인으로 구분한 쿤터의 인종관의 핵심 중 하나는 인종이 신체적 특징뿐만이 아닌 정신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것이었다.²⁶⁾ 그는 그중 가장 우월한 인종인 노르만인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을 날씬한 장신, 장두와 좁은 얼굴, 장밋빛이 도는 흰 피부, 금발, 그리고 푸른 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노르만인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특징을 창의성으로 규정하였다.²⁷⁾

인종 간의 혼혈과 관련하여 쿤터는 인종 간의 혼혈, 특히 노르만인과 타인종 간의 혼혈에 의해 문화가 타락한다는 고비노의 이론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대의 유럽이 혼혈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도 인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유럽에서 개별 인종이 형성된 시기를 주목하였다. 비록 쿤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석기시대 유럽의 인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는 장두형의 특징을 지닌 노르만인이 구석기시대 북유럽을 유랑하던 크로마뇽인의 후예라 추정하였다.²⁸⁾ 그리고 약 10000년 전, 즉 신석기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유럽에 이미 현재 인종의 조상이 존재했음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쿤터는 북서유럽(노르만인), 브리튼섬,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지중해인), 알프스 산맥(알프스인), 코카서스(디나르인), 러시아(동발트인)가 각 인종의 요람이라 추정하였다.²⁹⁾

25) *Ibid.*, p. 242.

26) Hans Günther, Translated by G. C. Wheeler, *The Racial Elements of European History* (London: Methuen & Co. LTD, 1927), p. 3.

27) *Ibid.*, p. 3 and pp. 50-53.

28) *Ibid.*, p. 94.

29) *Ibid.*, pp. 111-112.

퀀터는 신석기시대가 개시된 후 인종의 이주 과정이 지속되며 혼혈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각 인종 내에 다른 인종의 특징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주 과정의 결과, 가장 순수한 노르만 인종의 요소가 주로 그들의 요람인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와 독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나타나며, 이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노르만 인종의 요소가 감소하지만 지중해 지역, 발칸반도,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도 그러한 요소가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퀀터는 노르만인의 요람이 아닌 지역에서 나타나는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성과 유럽의 사회계층을 연결시킨 ‘인종의 층위(racial layer)’라는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유럽의 역사가 노르만인의 역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그는 지배 인종인 노르만인을 최상위 층위, 그리고 열등한 타 인종을 아래 층위로 위치시킴으로써 당대 유럽의 인종 간의 계서(hierarchy)를 합리화하려 했던 것이었다.³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당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귀족과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며, 또한 창의적인 직종에 종사한다고 주장했다.³¹⁾ 퀀터는 어떻게 신체적 특징이 정신적 특징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럽의 지배층, 즉 노르만인의 창의성이 바로 그들 조상의 육체적·정신적 특성이 핏줄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고비노의 기본 원칙을 계승하여 인종 간의 우열논리를 전개하였다.

퀀터는 ‘인종의 층위’를 인종의 이주와 연결시켜 유럽의 역사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의 창조자인 노르만인의 타고난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고고학자가 아니었던 퀀터는 이를 위해 증거가 비교적 희박한 선사시대보다는 유럽 문명의 정수라 인정받고 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 주목하였다. 퀀터는 당대 독일 고전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30) *Ibid.*, pp. 111-113.

31) *Ibid.*, p. 54.

슈츠하르트(Carl Schuchhardt: 1859-194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원전 3천 년에서 2천 년경 다뉴브강 중류와 상류 지역으로 노르만 부족이 이주하였으며, 이 중 도리아인 전사 집단이 기원전 12세기 무렵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노르만 문명이 에게해 지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인종의 층위는 노르만인 상류층과 토착민인 하류층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시민이 바로 노르만인이었다고 하였다.³²⁾

퀸터는 역시 슈츠하르트를 인용하여 로마의 역사도 기원전 약 2천 년경에 알프스 북부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이주한 노르만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이주하며 상위계층인 노르만인 및 하위계층인 알프스인과 지중해인으로 구성된 인종적 층위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로마로 이주한 이후 귀족(노르만인)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하층인(토착민)의 회의체인 평민회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³³⁾ 퀸터는 이 두 문명의 쇠퇴와 멸망의 공통된 원인을 잦은 전쟁으로 인한 노르만인 귀족의 감소 및 노르만인과 토착민의 혼혈에 의한 타락에서 찾았다.

실제로 슈츠하르트의 연구는 노르만인의 이주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부 유럽 원주민도 문화의 창조자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주민 노르만인의 문화와 원주민의 문화가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그리스와 로마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고 주장하였다.³⁴⁾ 하지만 퀸터는 슈츠하르트의 연구 결과 중 노르만인의 이주 부분만 인용한 후 그의 인종관, 즉 인종의 층위를 혼혈에 의한 타락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흥망성쇠를 구성하였다.

프릭의 교육지침의 핵심인 노르만주의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32) *Ibid.*, pp. 153, 164-166.

33) *Ibid.*, pp. 173-190.

34) Brent Maner, *Germany's Ancient Past: Archaeolog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ince 17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pp. 245-249.

훨씬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학술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탄생, 발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나치 인종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코시나(선사고고학)와 쿤터(고전고고학)라는 점이다. 이 인종주의적 역사관은 나치가 정권을 잡은 직후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III. 1933년에서 1935년까지 독일 고고학계의 상황과 차일드의 반응

차일드가 에든버러대학의 아버크롬비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29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종전과 소련의 탄생 이후 다시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대폭락을 시작으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고, 이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 인정받던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운영되던 독일은 오히려 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를 역이용한 반민주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치가 급부상하였으며, 결국 1933년 1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수상(Chancellor)으로 임명함으로써 나치 정권이 성립하였다.

나치의 집권은 차일드가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스퍼드대학 시절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차일드는 영국의 정보기관 MI5의 공작에 의해 1917년 호주로 귀향하였다. 고향 시드니에서 호주노동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차일드는 1922년 런던 주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표부에서 해고된 이후 선사고고학 연구를 인생의 향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왕립인류학회의 사서로 임용된 1925년 이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나치가 집권한 1933년 8월 앞에서 언급한 「아리아인 이전」에서 히틀러를 언급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대한 침묵을 중단하였다. 차일드는 나치의 집권 이후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보다는 학문, 즉 선사고고학 연구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그렇다면 왜 차일드가 적극적으로 나치를 공격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가 국제사회주의(International Socialism)의 신봉자였기 때문이다. 1917년 MI5는 영국 혁명을 위해 독일의 무제한잠수함작전의 성공을 바랐던 차일드를 친독일주의자로 분류하였지만, 그가 사랑한 독일인들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였다. 당시 차일드는 영국과 독일 양국을 휩쓸고 있던 전체주의적 애국주의의 열풍이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매국주의자로 매도하던 상황에 분개하였으며, 독일의 극좌파 사회주의자 립크네흐트(Karl Liebknecht: 1871-1919)에 깊은 연대감을 표시하였다.³⁵⁾ 이후 차일드는 고향 호주에서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호주노동당에서 활동하였으나 이때 겪은 경험은 오히려 혁명을 꿈꿨던 차일드가 현실 정치에서 떠나는 원인이 되었다.³⁶⁾

차일드는 비록 본격적으로 선사고고학의 연구에 매진한 1920년대 중·후반에 표면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실 세계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당시 호주와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5년 공개된 MI5의 차일드 관련 비밀 문서철 『Childe, Vere Gordon(The National Archives's reference KV 2/2148)』은 차일드가 이미 나치 집권 직전에 사회주의 정치 활동을 개시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MI5는 차일드에 대한 감시를 1922년 이후 중단하였다가 1931년에 재개하였다.³⁷⁾ 이 철에 수록된 1932년 5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차일드가 ‘스코틀랜드 소련협회(The Scottish U.S.S.R Society)’의 의장에 취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차일드가 현실

35)Vere Gordon Childe, “Conscientious Objectors”, *Hermes XXIII*(1) (1917), pp. 69-70.

36)Vere Gordon Childe, *How Labour Governs: A Study of Worker's Representation in Australia*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23); Rajani Palme Dutt, “The Pre-historical Childe”, *Times Literacy Supplement*, 3304(June 34, 1965).

37)MI5가 1922년 9월 28일에 작성한 문서에는 차일드가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밀접한 사이’라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 다시 개입하려고 결정한 시점이 나치 집권 이전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차일드는 1933년 그가 증오하던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정권을 획득한 나치에 반대해 그의 전공 분야인 선사고고학을 통해 인종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차일드가 나치고고학에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한편으로 1920년대 그의 연구에 투영된 인종주의적 사고, 특히 코시나의 영향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실제 1920년대 차일드의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기반하고 있었다. 비록 이 시기 차일드는 ‘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받아들여 동방에서 기원한 앞선 물질문화가 유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방법론은 독일의 문화사고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차일드는 이 시기 오히려 코시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차일드는 1927년 코시나의 ‘취락고고학’에 대해 극찬하였으며, 심지어 1928년에 출판된 코시나의 70세 기념논총에 논문도 기고하였다.³⁸⁾

1929년에 출판한 『다뉴브의 선사시대(The Danube in Prehistory)』에서 정의한 ‘문화’에 대한 개념은 차일드와 코시나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문화를 규칙적인 양식으로 구성된 “토기”, “도구”, “장식품”, “장례 의식”, “주거 형태” 등의 “복합체(complex)”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복합체의 담당자인 “문화집단(a culture group)”을 “민족(a people)”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차일드는 이 “복합체”가 특정한 신체적 유형을 보이는 “인골(skeletal remains)”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민족을 “인종(race)”이라 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³⁹⁾ 고고문화가 인종의 유산임을 인정하였다.

차일드의 사상이 보여주고 있던 모순된 이념, 즉 현실 세계 변혁을 위한

38)Katie Meheux,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Archaeology International*, 20(2017), p. 95.

39)Vere Gordon Childe,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pp. v-vi.

일종의 사해동포주의와 과거 세계에 대한 이상향인 아리아인의 우수성의 불안정한 공존은 결국 나치의 집권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33년 봄 연구를 위해 독일과 중부 유럽을 방문한 차일드는 이해 3월 5일에 치러진 독일 국가의회 선거(Reichstagswahl März 1933) 당시 베를린에 체류했다. 당시 그는 독일의 신정부가 인류학과 역사학을 민족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예견하였다.⁴⁰⁾

1933년 차일드는 비록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인종주의에서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해 10월 18일 에든버러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리아인의 언어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노르만인의 신체에 특별히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⁴¹⁾ 이는 그가 『아리아인』에서 제안하였던 노르만인의 탁월한 신체적 특징과 언어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아리아인의 언어적 우수성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1월에 스승인 마이어스(John Myres: 1869-1954)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일드는 코시나의 취락고고학을 옹호하였다.⁴²⁾ 따라서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인의 요람을 규명하기 위해 고고학자가 될 것을 결정했던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고고학계의 현실은 결국 차일드를 학문적으로 코시나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치를 대표하는 이론가 중 한 명인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 1893-1946)는 문화계와 학계의 장악을 통해 나치의 독재를 뒷받침하려 하였다. 로젠베르크는 고비노와 쿨터를 계승한 노르만주의자로, 노르만인이 지배 민족인 이유를

40) Sally Green, *Prehistorian: A Biography of V. Gordon Childe* (Bradford-on-Avon: Moonraker Press, 1981), p. 85.

41) Vere Gordon Childe, “Aryan Nonsense”, *The Scotsman*(October 19, 1933), p. 11.

42) Meheux,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p. 96.

생물학적·정신적 우월성, 역사적 근원, 지리적 팽창, 그리고 문화적 우수성 등을 들어 합리화하였다. 1934년 6월에 설립된 ‘로젠베르크 관청(Amt Rosenberg)’은 나치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 선전, 문화정책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특히 로젠베르크는 선사·원사고고학을 독일민족의 타고난 우수성을 선전할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간주하였다.⁴³⁾

코시나는 1931년 12월에 사망했으나 그의 학문적 후예들은 나치의 지원에 힘입어 1935년까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 독일고고학계의 주류였던 서남아시아 연구자들과 슈츠하르트⁴⁴⁾ 대표되는 고전고고학자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⁴⁵⁾ 그중 로젠베르크 휘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사고고학자는 라이네르트(Hans Reinert: 1900-1990)였다. 튀빙겐대학 출신인 라이네르트는 학창 시절에 이미 베를린에서 열린 코시나의 세미나에 참가했던 열렬한 노르만주의 고고학자였다. 코시나가 설립한 독일선사고고학회(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Vorgeschichte)에서 활동하던 라이네르트는 1931년 9월 나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다. 라이네르트는 1934년 로젠베르크 관청의 역사·선사부 수장(Reisamtsleiter der Abteilung für Ur- und Frühgeschichte im Amt Rosenberg)으로 임명됨으로써 독일고고학계를 장악하였다.

로젠베르크 관청이 고고학계를 장악한 초기,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나치의 집권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치 집권 이전 독일의 고고학계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사고고학의 유급 교수직은 오직 마르부르크대학에만

43) Henning Haßmann,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75.

44) 슈츠하르트는 나치집권기 독일 고고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Sabine Wolfram, “‘Vorsprung durch Technik’ or ‘Kossinna Syndrome’?: Archae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ext in Post-war West German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186.

45) Bettina Arnold,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244(1990), pp. 467-468.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사고고학을 인종주의의 선전에 핵심 분야로 인식한 나치의 지원에 의해 독일 내 학교, 박물관, 박물관 등에 필요한 고고학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나치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⁴⁶⁾ 아놀드(Arnold)⁴⁷⁾가 “파우스트의 거래(Faustian bargain)”라 정의한 고고학자들과 나치의 협력관계는 1934년에 개시되었다.

차일드는 비록 코시나의 방법론에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1933년에 이미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고고학계는 차일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934년 1월 윌리엄즈-프리먼(J. P. Williams-Freeman: 1858-1943)은 차일드를 공격하고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논문을 『엔티퀴티』 29호에 발표하였다. 1934년 2월 차일드가 마이어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은 나치가 집권하고 있는 독일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인류학과 고고학에 투영된 파시스트적 사고를 증오한다.’고 적혀있다.⁴⁸⁾

따라서 차일드의 사상적인 혼란은 1934년 2월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일드는 마이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프릭의 교육지침을 번역하여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고고학자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이 번역문을 『네이처』에 게재하였다. 차일드는 독일 고고학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럽의 고고학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반파시스트 운동을 개시하였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당시 유럽 내 고고학자 대부분은 독일

46) Haßmann,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pp. 86-90; Heinrich Härke, “Archaeology and Nazism: A Warning from Prehistory”, V. Mordvintseva, H. Härke and T. Shevchenko eds.,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research: Materials of the Humboldt-Conference* (Simferopol - Yalta, 20-23 September, 2012) (Kiev: Stilos, 2014), pp. 34-35.

47) Bettina, Arnold, “‘Arierdämmerung’: Race and Archaeology in Nazi Germany”, *World Archaeology*, 38-1(2006), pp. 13-14.

48) Terry Irving, *The Fatal Lure of Politics: The Life and Thought of Vere Gordon Childe* (Clayton: Monash University Press, 2020), p. 279.

내의 상황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동조하기까지 하였다.⁴⁹⁾

게다가 당시 영국의 정치계는 나치의 독재와 팽창을 묵인하고 있었다. 1935년 3월 히틀러는 베르사유조약의 파기와 독일군의 재군비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두려워한 영국 정부가 나치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Appeasement)을 채택하고 영국-독일 해군조약(Anglo-German Naval Agreement: 1935년 6월 18일)을 체결함으로써 베르사유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일드는 1935년 12월에 발표한 「선사학의 방법론과 목표의 전환(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이후 「전환」으로 약칭)에서 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차일드는 「전환」에서 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종의 선언서로 볼 수 있는 이 글에는 그가 1933년 이후 발표한 나치고고학을 비판한 저술들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인류 문화의 진보에 있어서의 전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트리거가 지적한 ‘일반화 지향적 연구’와 ‘전문화 지향적 연구’의 합일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차일드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치고고학의 근간을 공격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차일드의 나치고고학에 대한 대응

차일드는 독일에서 선사고고학이 아리아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최초의 원고인 「아리아인 이전」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방에서 문명이 시작했을 때 독일인과 앵글로색슨인의 조상은 발트해 연안의 야만인(savages)이었다.

49) Margarita Díaz-Andreu, "Childe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aeolog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2(2009), pp. 97-99.

연도	발표문	발표지	비고
1933	Before the Aryans	The Times, Aug 3	일간지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October): pp.193-203	학술지
	Aryan Nonsense	The Scotsman, Oct 19	일간지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7(28): pp. 410-418	학술지
	Where Did Culture Arise?	The Plebs 25: pp. 268-271	사회주의 계열 월간지
1934	Anthropology and Herr Hitler	Discovery 15: pp. 65-68	대중잡지
	The Teaching of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	Nature 133: pp. 298-299	번역문
1935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I: pp. 1-15	학술지

표1 고든 차일드가 1933-1935년에 발표한 반나치고고학 관련 원고

둘째, 아리아인은 혈연집단이 아닌 언어집단이다. 이러한 차일드의 주장은 인종은 언어가 아닌 혈연집단이라는 것과 북부 유럽에서 기원한 노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라는 노르만주의의 핵심적인 전제에 대한 반론이었다. 1935년 12월까지 차일드는 「아리아인 이전」을 포함해 총 8편의 원고를 통해 나치고고학을 비판하였다(표 1). 그중 학술지에 발표한 세 편의 논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종결정론에 대한 거부: 인간은 문화적 존재

앞에서 언급했던 프릭의 교육지침에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구석기시대에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지침은 두 문화 간의 우열을 논하고 있지 않으나 장두형의 크로마뇽인이 노르만인의 조상으로 인식되었음을 고려할 때 인종 간의

우열이 이미 후기구석기시대에 나타났음을 가정하였다. 특히 쿼터는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 요소가 현대 유럽의 범죄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장두형의 우월성이 이미 후기구석기시대에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르만주의자들이 인종의 형성 요소로서 환경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빙하기의 가혹한 환경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강인한 신체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이 노르만 인종의 직계 조상이라 판단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석기시대 초기 빙하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빙하로 둘러싸여 있던 고립된 지역(ice-free areas)에서 노르만인이 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⁰⁾ 즉 인종, 그중 노르만인의 형성은 환경의 산물이지만, 노르만 인종이 고착화된 이후에는 이들의 능력이 핏줄에 의해 전승된다는 것이었다.⁵¹⁾ 이들의 생각은 멘델의 유전학과 사회진화론의 적자생존 개념이 결합한 우생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다.⁵²⁾ 그리고 나치 시대에 선사고고학은 생물학적 우열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인종의 진화는 바로 열등한 형질의 제거 과정이라는 인종위생학(racial hygiene)의 역사적 기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문으로 기능하였다.⁵³⁾

차일드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순수한 인종 개념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동물의 품종(varieties)과 인간의 인종(race)을 비교할 수 있는데, 품종은 특정한 지역의 제한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연

50) Richard McMahon, *The Races of Europe: Anthropological Race Classification of Europeans*, Unpublished Ph.D Thesis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2007).

51) Amos Morris-Reich, "Race, ideas, and ideals: A comparison of Franz Boas and Hans F.K. Günther", *History of European Ideas*, 32-3(2006), p. 323.

52) Amir Teicher, *Social Mendelism: Genetics and Politics of Race in Germany, 1900-19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 124.

53) 독일의 인종위생학에 대해서는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인문과학연구』, 18집(2007) 참조.

상태에서 품종 간의 상호교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한다.⁵⁴⁾ 차일드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으로써 인간 역시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흑인의 신체적 특징은 아프리카의 열대 기후에 적응한 결과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차일드의 주장은 앞에 언급한 노르만주의자들의 인종 형성 논리와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차일드는 2만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수시로 변동하였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교류함으로써 상호 교배(interbreeding)되어 왔다고 하였다.⁵⁶⁾

아리아인의 형성과 관련하여 차일드는 기원전 3000년경 노르만 문화의 유적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장품이 매납된 무덤들의 두개골을 분석해 보면 장두형과 극단적인 단두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고고문화를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⁵⁷⁾ 결국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순수한 인도계르만인의 선조가 이룩한 문화 역시 혼혈인의 문화라고 보았다.

차일드는 혼혈의 긍정성을 인정하였으나 인간의 상호 교배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생물학 전문가가 아니었던 그는 단지 인간의 신체적 특징, 그중에서도 인골의 형태가 정신적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의 우열을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한 노르만주의의 모순점을 논파하기 위해 차일드는 인간이 기원전 약 2만 5천년 전부터 문화를 사용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라는 동일한 종(species)임을 강조하였다.⁵⁸⁾

54)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October, 1933), p. 195.

55)*Ibid.*

56)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7-28(1933), p. 414.

57)*Ibid.*, p. 417.

58)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 194.

차일드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존재로 판단함으로써 인종위생학자들이 도입한 생물학적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지난 2만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으며, 복잡한 두뇌와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⁵⁹⁾ 즉,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의 우수한 신체적 특징에 의해 형성된 문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문화는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하게 하는 도구이다. 추위와 적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동물의 경우 털이나 뿔과 같은 신체 기관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간은 불, 의복, 무기 등의 신체적 특징이 아닌 문화 요소를 통해 대응한다.⁶⁰⁾

2. 문화는 언어에 의해 계승된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신경계는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지만, 이 반응의 경험이 곧바로 형질화되어 후세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동물의 경우 획득한 형질이 생존에 유리할 경우 누대에 걸친 자연선택에 의해 후세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발달된 두뇌와 신경계에 의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선대의 경험을 바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다.⁶¹⁾

3. 문화는 '인종'이 아닌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이다. 개별 문화는 동일한 전통,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한 공동체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에는 선사시대 이후 앵글로색슨인, 데인인, 그리고 노르만인 등이 침공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이들의 혼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통의 언어와 제도, 그리고 물질문화를 공유한다. 문화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소통 수단인 언어를 통해 계승되고 발전한다. 따라서 문화 담당자의 명칭을 '인종'이 아닌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을

59)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p. 411-412.

60) *Ibid.*, p. 412.

61) *Ibid.*

의미하는 사회학적인 용어인 ‘민족(people)’으로 대체해야 한다.⁶²⁾

위의 내용을 보면 차일드는 인간의 문화를 크게 ‘공통문화’와 ‘개별문화’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공통문화’는 호모 사피엔스가 외부적 요소를 접했을 때 두뇌와 신경망이 조정하는 신체 외적인 기관 또는 도구라 정의할 수 있다. 차일드⁶³⁾가 인간도 유인원의 후손인 동물로 정의했음을 고려할 때, 그는 문화를 사람속(Homo)의 신체적 진화 과정에서 획득된 독특한 생물학적인 형질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차일드는 최종 진화 단계인 호모 사피엔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문화, 무엇보다도 도구의 사용을 통해 인간이 동물들과는 다르게 환경과 대응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소위 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신체적 형질과 연결된 정신적 능력의 우열이 환경에 대해 생물학적인 적응 방식으로 후기구석기시대에 나타났다는 나치고고학자들의 추정에 대한 반론이었다.

‘개별문화’는 고고문화와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다른 공동체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집합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물질문화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차일드는 개별문화를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혼혈집단의 생활양식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노르만주의자들의 인종 개념, 즉 인종은 언어집단이 아닌 혈연집단이라는 정의를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 개념인 인종과 사회적 개념인 문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차일드의 생각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생물학적 종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과 인간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이동하여 형성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 문화의 개별성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일드 고고학의 특징인 ‘일반화지향성’

62) *Ibid.*, pp. 199-200;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7; 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T. C. Patterson and C. E. Orser Jr., ed.,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New York: Altamira Press, 2004), p. 29.

63) *Ibid.*, p. 411.

과 ‘전문화지향성’의 합일은 결국 나치의 인종주의 고고학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체계화되기 시작된 것이었다. 이 체계화 과정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진화가 아닌 진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2. 문화의 진보(progress)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진보하여 왔는가? 라고 묻는 것은 물론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오로지 긍정적인 답변밖에 없다. 진보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가를 말해주는 것과 진보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⁶⁴⁾

차일드는 「전환」에서 위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진보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고 선언하였다. 차일드는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로 인식되지만, 그는 실제 인류사의 사회경제적인 발전단계를 설명할 때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는 진화를 생물종의 형성 과정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했으며, 인간의 경우 호모 사피엔스의 성립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인 문화의 진보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발전지향적인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역사관은 노르만주의, 즉 유전학과 사회진화론을 결합함으로써 가장 우수하고 순수한 아리아인인 노르만인이 지속적인 혼혈에 의해 퇴행되어 왔다고 한 주장의 종착점인 나치의 퇴보적인 역사관을 반박한 것이었다. 나치의 역사관은 호모 사피엔스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난 인종의 형성과 이에 파생된 우열인자의 출현을 긍정하고, 이 열성인자가 혼혈을 통해 노르만인에게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노르만인이 소멸된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나치의 역사관에는 당대 독일인에게서 열등한 형질을 제거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종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었다. 차일드는 순수한 인종공동체의 재현을

64) 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 37.

당대 독일 민족의 운명으로 제시한 나치에 직면하여 인간의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다는 발전지향적인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차일드는 문화가 진보하는 방향이 생물의 진화 과정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은 종의 생존을 위해 진화한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개체의 수가 증가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하면 그 종은 결국 멸종한다. 이와 비슷하게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 역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동물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대에 걸친 유전적 형질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신체 외적인 기관인 문화를 통해 즉시 대응함으로써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가 진보한다면 인구수는 증가할 것이다.⁶⁵⁾

민족을 ‘문화민족’과 ‘토착민족’으로 구분하여 선사시대 노르만인만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코시나와 달리, 차일드는 모든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특성인 문화를 통해 사회가 일반적으로 (universal) 발전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관점은 단계지향적인 시기구분론에 잘 나타난다. 특히 차일드는 소련을 방문한 후에 발표한 「전환」에서 도구의 발달과정을 기반으로 한 삼시대법에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역사가 구석기시대(식량채집)-신석기시대(식량생산)-청동기시대(노동의 전문화)-철기시대로 진행된다는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전환」에서 차일드는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⁶⁶⁾ 즉, 식량 생산 경제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식량을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생산력이 증대되며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삶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조직의 복잡화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이를 통한 문화의 진보는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에 유리한

65) *Ibid.*, pp. 38-39.

66) *Ibid.*, p. 33.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제안하였다.⁶⁷⁾

선사고고학의 전문가인 차일드는 동일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문화집단을 같은 시기로 분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차일드는 석기의 형태를 기반으로 쿡선장(Captain James Cook: 1728-1779) 시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문화와 기원전 5천년 전 나일강 유역의 타시안족(Tasian)의 문화를 동 시기인 신석기시대의 단계로 정의하였다.⁶⁸⁾ 이는 한편으로는 마오리족의 문화가 당대 유럽에 비해 낮은 단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계경제와 사회조직이 선사시대를 포함한 다른 신석기문화를 영유하는 집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각 인간집단의 유사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차(time lags)’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⁹⁾ 이러한 시차가 발생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호모사피엔스의 종적 특성인 언어를 매개체로 한 경험의 공유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차일드는 문화 진보의 근본적인 요소로 경험의 풀(pool)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축적에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 집단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교류함으로써 이 과정이 가속화되었다고 제안하였다.⁷⁰⁾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물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차일드는 선사시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문화사고고학 전문가로서의 차일드는 주민의 이주를 강조했던 나치고고학자들을 반박하고 문화의 전파가 경험의 풀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떻게 인간 사회를 발전시켰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67) 차일드가 제안한 사회 발전 단계론은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진화를 이끌어 낸다는 1960년대 미국의 신진화론(Neo-evolutionism)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차일드는 기술의 발명과 혁신을 통해 자연의 개발과 통제한다는 인간 사회의 내적 메커니즘을 강조한 반면에 신진화론자들은 문화의 진화가 대체로 생태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8) *Ibid.*, pp. 26-27.

69) *Ibid.*, p. 26.

70)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2.

그는 구대륙의 고고학적 증거는 ‘민족들(peoples)’이 끊임없이 물품을 교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의 거래 과정을 통해 사고와 발명이 전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경험의 풀이 확대되고 각 민족들이 창조한 지식과 도구가 공유된다고 제시하였다.⁷¹⁾ 이 지점에서 차일드가 18세기 마오리족을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차일드는 마오리족이 외부와 비교적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 사회에 문화적 지체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일드가 어디를 선사시대에 가장 선진적인 문화가 발생한 지역으로 판단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스칸디나비아 남부와 독일 북부 지역이 아니라 인도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유역을 포함하는 동방이었다. 차일드는 기원전 3000년대 이 지역에서 야금술, 문자, 수레, 산수, 조각, 관개시설 등으로 상징되는 문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석기시대에 교역과 전파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동방이었기 때문이었다.⁷²⁾ 특히 차일드는 문명을 ‘민족의 국경을 초월하는 집단적 전통의 산물’로 정의함으로써⁷³⁾ 문화는 특정 인종의 산물이며 혼혈은 결국 문화의 타락을 불러온다는 나치고고학의 근본적인 전제를 붕괴시키려 하였다.

이 지점에서 고려할 사항은 이 시기 차일드의 ‘전문문화지향적 연구’, 즉 문화사적 방법론이 역사의 특수성과 개별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차일드는 퇴보의 역사관을 반복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가 진보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고고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차, 즉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의 공존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차일드는 이 문제를 선진적인 문화의 전파에 의해 후진적인 지역에서 경험의 풀이 확대된다는 기능주의적

71) *Ibid.*, p. 417.

72) *Ibid.*, pp. 417-418; 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 203.

73)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8.

전과론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차일드는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강조함으로써⁷⁴⁾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문화 요소의 전파에 의해 유럽에 문명이 발생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기원전 3천년 전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야만적인(savage) 수렵 채집 경제인 사냥과 어로에서 기원한 노르만인의 문화는 마오리족과 마찬가지로 미개한(barbarous) 것이었음에 반해, 유럽에서 최초로 발생한 문명인 당대 크레타섬의 미노스 문명의 담당자는 비인도유럽어 사용자인 아시아인들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2천년대의 복잡한 고고학적 증거는 노르만인이 그리스로 남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인도유럽인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한 직후 시작된 미케네 문화 단계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상당히 빈약하고 파괴적이다. 이후 이 문명인들을 침공했던 아리아인의 언어를 쓰는 인도와 중동 지방(Hither Asia)의 이주자들이 동방의 위대한 발견인 농경, 야금술, 항해술 등을 그리스 반도를 포함하는 알프스산맥 아래의 유럽 지방에 전파함으로써 유럽은 미개 단계를 벗어났다.⁷⁵⁾

차일드는 남부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부 유럽의 문화도 동방에서 기원한 선진적인 문화 요소에 의해 청동기시대에 접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개인인 노르만인이 이주 과정을 통해 선진적인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차일드에게 있어서 문화의 진보는 인종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자연적인 법칙이었다. 즉, 그는 종적동일성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 문화가 이룩한 앞선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문화 전파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1933년에서 1935년까지 차일드는 자신의 진보 지향적인 역사관을

74)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 41.

75)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p. 201-203.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1936년 출간한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에서 그가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한 동방에서 인간이 어떻게 문화의 진보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한 「노르만 문화의 유산(The Antiquity of Nordic Culture)」을 시작으로 그가 가장 선진적인 문물로 판단한 청동기를 중심으로 에게해, 발칸반도, 카프카스, 다뉴브강 유역,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차 편년을 수립하는데 진력을 다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요소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어떤 루트를 거쳐 발트해와 북해 지역까지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문화의 북부 유럽 기원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론하였다.

V. 맺음말

차일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3월에 작성한 『여명』 제3판의 서문에서 “정치적 신조(political dogma)”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선사고고학 연구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차일드의 고고학 연구 역시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대 유럽인들은 나치 집권 초기 이들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반파시스트였던 차일드는 1933년에 이미 인간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치의 집권이 결국 근대 유럽 문명을 파괴하고 다시 “암흑시대(The Dark Age)”로 되돌릴 것을 두려워하였다.⁷⁶⁾ 그리고 이 인종주의적 전체주의 집단이 선사고고학 연구를 이용해 인종 간의 우열을 증명하고 과거 독일민족이 이주한 영역을 바탕으로 영토의 확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을 때, 국제주의자였던 차일드는 이를 적극적으로 논파할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76)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0.

사실 차일드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미 선사시대 때 동방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으며 이곳에서 전파된 앞선 문물에 의해 유럽이 문명화되었다는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나치의 등장을 그의 연구가 대 전환되었던 계기로 보기보다는, 그가 선사고고학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유지해 온 인종주의적 시각을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나치고고학의 기본 전제에 대한 대척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1935년까지 차일드는 인간은 종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점, 문화는 인종이 아닌 사회적 유산이라는 점, 문화의 확산이 우수한 주민의 이주가 아닌 선진적인 물질문화의 전파에 일어난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노르만주의 고고학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1936년부터 인간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며, 문화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그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역사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차일드는 계급투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가 주장한 지식의 축적에 의한 인류의 사회경제적 진보 과정은 교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설정한 경제결정론적 발전 단계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는 차일드가 어떻게 나치고고학에 대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 주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haewoon.park@gmail.com

주제어(Key words):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 구스타프 코시나(Gustaf

Kossinna), 노르만주의(nordicism), 나치고고학(Nazi archaeology), 일반진화론(universal evolutionism), 문화사고고학(culture-historical archaeology)

투고일: 2021.03.29, 심사일: 2021.05.03, 게재확정일: 2021.05.04.

<국문초록>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박 해 운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는 20세기 전반 선사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였다. 차일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문화사적 방법론과 일반진화론적 시각을 혼용하여 인류사의 전개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일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가 1935년 소련에 방문한 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도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인류역사의 진보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한 계기는 소련 방문이 아니라 나치의 등장 때문이었다.

1920년대 독일의 문화사에 기반하여 유럽문명의 기원과 전파과정을 추적하던 차일드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주의의 신봉자였다. 당시 코시나(Gustaf Kossinna)로 대표되는 독일의 선사고고학자들은 19세에 등장한 노르만주의(Nordicism)를 기반으로 순수한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인 독일인의 선조 노르만인들이 선사시대에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북부 독일 지역에서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들의 이주에 의해 유럽에 문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고고학이 나치의 등장과 함께 독일 정부의 공식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차일드는 그의 연구에 영향을 끼친 코시나의 시각을 배격하고 인간의 종적 동일성을 주장하며 인류의 일반적인 진화과정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차일드는 노르만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선사시대 노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동방(the Orient)의 선진적 문화적 요소가 유럽에 전파되었음을 문화사적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Gordon Childe's Refutation on the Ideolog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Nazi Archaeology, 1933-1935

Park, Haewoon

Vere Gordon Child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rchaeologis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rom the mid-1930s onwards, Childe began to explain the way of the progress of human history by coalescing two antithetical methods, culture-historical approach and universal evolutionary perspective. Most studies on Childe's works have suggested that he adopted the marxist-type evolutionary theory after his visiting the Soviet Union in 1935. However,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momentum of the change that Childe insisted the progress of the human history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azi regime in 1933 rather than his contact on archaeologists in the Soviet Union.

In 1920s, Childe was a culture-historian influenced by the tradition of German archaeology represented by Gustaf Kossinna. However, The Kossina-type archaeology embedded with racism became the official discipline in the German school under the Nazi regime. In these circumstances, as a socialist advocating internationalism and anti-racism, Childe argued the universal process of the human progress. Nevertheless, Childe did not deny the methodological usefulness of culture-historical approach to explain the direction of the human culture. By emphasizing the diffusion of the advanced cultural elements originated in the Orient to Europe, Childe could refute the fundamental presumption of archaeologists in the Nazi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Germany that Scandinavia and northern Germany was the cradle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참 고 문 헌

1. 사료

MI5, 『Childe, Vere Gordon』, The National Archives's Reference KV 2/2148.

2. 단행본

Arvidsson, Stefan, *Aryan Idols: Indo-European Mythology as Ideology and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Biddiss, Michael, *Father of Racist Ideology: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Count Gobineau* (London: Cox & Wyman LTD, 1970).

Maner, Brent, *Germany's Ancient Pasts: Archaeolog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ince 17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Childe, Vere Gordon, *How Labour Governs: A Study of Worker's Representation in Australia*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23).

Childe, Vere Gordon,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 1936).

Childe, Vere Gordon,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Childe, Vere Gordon,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Childe, Vere Gordon,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1st editio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5).

Childe, Vere Gordon,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3^d editio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39).

Childe, Vere Gordon, *The Most Ancient East: The Oriental Prelude*

- to European Prehistory*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Knopf, 1928).
- Gobineau, Arther de, Translated by A. Collins, *The Inequality of Human Race* (London: William Heinemann, 1915).
- Green, Sally, *Prehistorian: A Biography of V. Gordon Childe* (Bradford-on-Avon: Moonraker Press, 1981).
- Günther, Hans, Translated by G. C. Wheeler, *The Racial Elements of European History* (London: Methuen & Co. LTD, 1927).
- Hankins, Frank H.,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A Critique of the Nordic Doctrine* (New York: Alfred·A·Knopf, 1926).
- Irving, Terry, *The Fatal Lure of Politics: The Life and Thought of Vere Gordon Childe* (Clayton: Monash University Press, 2020).
- Kossinna, Gustaf, *Die deutsche Vorgeschichte: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Würzburg: Kabitzsch, 1912).
- McMahon, Richard, *The Races of Europe: Anthropological Race Classification of Europeans*, Unpublished Ph.D Thesis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2007).
- Sergi, Giuseppe, *The Mediterranean Race: a Study of the Origins of European Peoples* (London: Walter Scott, 1901).
- Teicher, Amir, *Social Mendelism: Genetics and Politics of Race in Germany, 1900-19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3. 논문

-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인문논총』, 65집(2011).
-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인문과학연구』, 18집(2007).

- 최몽룡, 「차일드(Childe)와 신석기혁명」, 최몽룡·최성락 편 『인물로 본 고고학사』 (서울: 한울, 1997).
- Arnold, Bettina,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244(1990).
- Arnold, Bettina, “‘Arierdämmerung’: Race and Archaeology in Nazi Germany”, *World Archaeology*, 38-1(2006).
- Baudou, Evert, “Kossinna Meets the Nordic Archaeology”, *Current Swedish Archaeology*, 13(2005).
- Benes, Tuska, “From Indo-Germans to Aryans: Philology and the Racialization of Salvationist National Rhetoric, 1806-30”, S. Elgen and M. Larrimore eds., *The German Invention of Rac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 Blue, Gregory, “Gobineau on China: Race Theory, the “Yellow Peril”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1999).
- Childe, Vere Gordon, “A Labour Premier Meets His Master”, *Labour Monthly*, 6(June 1924).
- Childe, Vere Gordon, “Aryan Nonsense”, *The Scotsman*(October 19, 1933).
- Childe, Vere Gordon, “Before the Aryans”, *The Times*(August 3, 1933).
- Childe, Vere Gordon,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T. C. Patterson and C. E. Orser Jr. ed.,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New York: Altamira Press, 2004).
- Childe, Vere Gordon, “Conscientious Objectors”, *Hermes XXIII*(1) (1917).
- Childe, Vere Gordon, “G. Kossinna Ursprung und verbreitung der Germanen in vor- und frühgeschichtlicher Zeit”, *Man* 27(1927).
- Childe, Vere Gordon,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28(1933).

- Childe, Vere Gordon, "On the Date and Origin of Minyan War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35-2(1915).
- Childe, Vere Gordon,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1933).
- Childe, Vere Gordon, "Retrospect", *Antiquity*, 126(1958).
- Childe, Vere Gordon, "The Antiquity of Nordic Culture", W. Koppers, ed., *Die Indogermanen-und Germanenfrage, Wiener Beiträge zur Kulyurgeschichye und Linguistik* 4(1936).
- Díaz-Andreu, Margarita, "Childe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aeolog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2-1-3(2009).
- Dutt, Rajani Palme, "The Pre-historical Childe", *Times Literacy Supplement*, 3304(June 34, 1965).
- Frick, Wilhelm, "The Teaching and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 *Nature*, 130(1934).
- Haßmann, Henning,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Härke, Heinrich, "Archaeology and Nazism: A Warning from Prehistory", V. Mordvintseva, H. Härke and T. Shevchenko eds.,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Research: Materials of the Humboldt-Conference* (Simferopol - Yalta, 20-23 September, 2012) (Kiev: Stilos, 2014).
- Klejn, Leo, "Gustaf Kossinna (1858-1931)", T. Murray e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The Great Archaeologists* (Santa Barbara: ABC-Clio, 1999).
- Kossinna, Gustaf, "Die Vorgeschichtliche Ausbreitung der Germanen in Deutschland",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Volkskundes*, 6(1896).
- Massin, Benoit, "From Virchow to Fischer: Physical Anthropology and 'Modern Race Theories' in Wilhelmine Germany", G. W. Stocking Jr. ed., *Volkgeist as Method and Ethic* (Madison: The University of

- Wisconsin Press, 1996).
- Meheux, Katie,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Archaeology International*, 20(2017).
- Morris-Reich, Amos, “Race, Ideas, and Ideals: A Comparison of Franz Boas and Hans F.K. Günther”, *History of European Ideas*, 32-3(2006).
- Veit, Ulrich, “Gust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Williams-Freeman, J. P., “Race and Culture”, *Antiquity*, 29(1934).
- Wolfram, Sabine, “‘Vorsprung durch Technik’ or ‘Kossinna Syndrome’?: Archae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ext in Post-war West German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연재 ■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양재혁

쓰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체는 죽어야만 한다.
그것이 역사의 윤리이다. 역사는 지식 체계의
도움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역사는 이야기된다.

미셸 드 세르토¹⁾

I. 머리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현재의 팬데믹 세계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첨단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과거와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의 막대한 부와 안락을 산출하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불안도 함께 동반한다. 인공지능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원하지 않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과 사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환경은 서구 근대의 기초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1)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p. 384.

구성하는 ‘과학’이 선도하는 ‘진보’와 그것이 생산한 ‘질서’로 구성되는 안정되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체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과 전지구적 재해를 산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은 근대 서구가 전망한 사회 발전의 정상적 궤도에서의 탈선 또는 이탈이라기보다는 그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지적한 주체/객체, 사회/자연, 담론/사물의 대분할에 이어 역사적으로 서구와 비서구라는 대분할이 형성된 서양 근대에서 과학은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과학은 비정상적인 대분할적 사유방식에 기초하면서도 그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다시 말해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다. 과학은 가치, 윤리, 주관, 감정 등과 관련된 정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이라는 객관적 세계를 다루면서, 그 세계의 운영 원리, 법칙으로 불리는 보편적 질서를 수립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바이러스, 빈부격차 등의 자연적·사회적 문제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대로부터 간직하여 온 진보라는 신화를 지금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구 사회의 전근대/근대, 과거/현재, 객체/주체, 문명/비문명, 서양/동양 등의 구분을 고정적으로 수용하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인식은 ‘진보의 역사를 이끄는 과학’이라는 신화의 기반을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지구 생태계 위기, 기후 문제 또는 지구 온난화, 인공지능, 무역 분쟁, 질병, 유전자 조작, 미세먼지 등등의 문제는 과학, 정치, 사회, 윤리, 경제라는 어느 하나의 구획 안으로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혼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세계는 이분법적 단절적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hybrid)들이 증식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 역시 단지 인간과 인간의 활동 또는 개발과 구분되는 자연 세계의 문제, 곧 바이러스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바이러스를 사회와 분리된 자연의 세계에 국한하고 그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태도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재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현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하이브리드 스타일”²⁾이 필요하다.

20세기 말 인간 사회와 자연 간의 분리적 사유에 반대하며 과학에서의 진리와 더불어 자연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사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연구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을 ‘사이보그’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면서 하이브리드들이 확산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실재’ 세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사이보그 개념은 “유기체와 기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존재”를 가리킨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Cyborg)는 더 이상 인간/비인간 또는 인간/동물, 인간/사물 등의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실체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객체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의 이분법적 구분이 현실 세계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구분이 더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실체와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 사회 공동체에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낳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러웨이는 인간과 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문화적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범주들의 경계선 위에 있는 잡종적인 하이브리드 실체, 곧 “이상한 경계물(odd boundary creatures) – 원숭이,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 다시 말해 “괴물들”에 주목한다.³⁾ 해러웨이에게 사이보그는 실재와 픽션의 혼종물로서, “사이버네틱 유기체, 기계와 유기체의 하이브리드, 픽션의 창조물인 만큼이나 사회적 실재의 창조물이다.”⁴⁾ 오늘날의 팬데믹 재난을 낳았을지 모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문제를 비롯하여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현실 문제들은 인간/기계 또는 자연/사회라는 분리적이고

2) Bruno Latour, *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2015), p. 13.

3) Donna J. Haraway,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pp. 1-4.

4) *Ibid.*, p. 149.

단절적인 사고로는 다룰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실체들로 구성된 혼종적 관계의 산물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 기술 시대는 수많은 ‘하이브리드’ 존재들과 함께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환경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범주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문학적, 특히 역사학적 전망을 통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해 보인다. 서구 근대성이 세운 분리의 신화는 역사학을 비롯한 전통적 학제에서 여전히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 역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사상가로 잘 알려진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전통적 역사학에게 던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혼종학: 타자에 관한 과학

미셸 드 세르토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와 같은 대표적인 현대 프랑스 사상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이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그의 작업에 관한 관심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사회학 분야에서 세르토가 논의하였던 ‘일상생활’, ‘문화’, ‘저항’, ‘횡단성’ 등과 같은 주제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세르토의 고유한 개념, 곧 ‘전략/전술’, ‘장소/공간’과 같은 개념들은 문화사회학의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지평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세르토는 역사가, 철학자, 기호학자, 신학자, 정신 분석가 그리고 문화사회학자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지적 관심 영역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실천했다. 미셸 드 세르토의 경력이 보여주는 이러한 학제적·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작업 전체에 공통적인 주제, 곧 ‘타자’에 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르토는 타자에 관한 적절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료에 기반을 둔 전통적 역사학은 물론, 역사서술과 역사 방법론을 넘어 문화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제와 연관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세르토는 자신의 작업을 타자에 관한 과학, 곧 혼종학(hétérologies)을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에게 “‘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기본적인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프랑스의 모든 이론적 작업 중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은 문화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저항의 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학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세르토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포스트구조주의 작업 주제와 상당한 연관을 지닌다. 마크 포스터(Mark Poster)가 거론한 “언어에 주어진 특권, 경제적 문제들과 대립된 것으로서의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주제화, 단일한 저자 주제에 대한 비판, 전체화하는 범주와 폐쇄적 위치에 대한 거절, 역사의 위대한 시대(근대성)가 종말로 가고 있으며, 아직 여전히 구분하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출현하고 있다는 생각”과 같은 주제들은 세르토의 작업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르토의 작업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주체를 규정하는 데 이론적인 주저함의 결과로서 저항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 반해”, 세르토는 주체와 저항의 문제를 분명하게 자신의 연구 주제로 인정한다. 미셸 드 세르토는 자신의 작업이 출발하였던 지점은 맑스주의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미셸 드 세르토는 포스트구조주의 기본 개념들 또는 주장들에 의지하면서도 맑스주의 개념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했던 역사에서의 인간의 ‘행위(Agency)’라는 개념이다. 세르토는 자신의 포스트구조주의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행위’ 문제를 역사서술의 분야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세르토에 따르면 권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행위자는 권력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전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고유한 실천을 수행한다. 권력 기술의 단순한 적용 대상으로서의 행위자 대신에 권력의 실행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위자의 가능성, 곧 권력의 이해로부터 누락되는, 따라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세르토의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보통 개인의 일상생활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세르토는 ‘행위’ 개념을 통해 서구 근대가 수립한 반석 중의 하나인 ‘주체’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물론 세르토가 가정하는 주체는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 근대가 탐닉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가 천착하는 일상생활, 역사서술, 실천, 타자 등의 목직한 주제들에 관한 세르토 고유의 논의는 ‘주체’ 문제에 관한 의심과 재인식에 바탕을 둔다. 미셸 푸코와 비교하자면, 세르토는 푸코와 마찬가지로 “현대 역사서술의 주요 경향(근대 역사서술의 과거에 대한 리얼리즘적 가정, 전체화하는 틀, 경험주의)”에 분명한 비판을 표명하면서도, 역사학계 외부에서 작업하는 푸코에 비해 “푸코보다 훨씬 더 일관되게 역사적 담론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세르토의 일상생활 문화 연구는 사회 혁명이나 격변을 위한 거대 전략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르토의 연구는 “사회적인 것이 봉합되지 않은 성격, 시스템에 의한 일상생활의 완전한 식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대중문화의 비합리성을 한탄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대중문화가 항상 이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고 파악하는 맑스주의 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⁵⁾

5) Mark Poster, “The Question of Agency: Michel de Certeau and the History of Consumerism”, *Diacritics*, Vol. 22, No. 2(1992), pp. 94-107. 이런 점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생활 연구는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설계하는 전략이 만드는 장소는 루이 알튀세르의 ‘호명’이 이뤄지는, 개인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르토의 권력 및 전략에 관한 논의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하여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세르토

다른 학제와 비교할 때 미셸 드 세르토에 관한 역사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6년 사망 이후 망각 속에 묻혀 있던 세르토는 2002년 가을 그에 관한 저서들이 새롭게 출간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⁶⁾ 서구 근대 유럽의 타자에 관한 미셸 드 세르토의 연구를 지탱하는 기반은 소위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추상적이고 이론적 사유 또는 ‘언어학적 전환’과 같은 언어와 담론에 대한 강조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 명사들로 가득찬 방대한 규모의 문서 자료이다. 다시 말해 세르토의 작업은 실재와 격리된 담론 또는 언어에 대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연구가 아니며 살로 이뤄진 역사적 실체 또는 구체적 삶들이 남긴 역사적 문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셸 드 세르토가 남긴 학문적 성과의 방대함과 ‘타자’ 개념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지난한 탐구 과정 그리고 의지할 만한 연구 성과의 상대적인 부족은 그의 작업을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세르토의 사유는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를 구성한다. 국내 역사학 분야에서 역사 쓰기, 일상생활과 문화, 권력과 신비주의 등과 같은 미셸 드 세르토의 주요한 연구 주제를 대부분은 거의 모두 소개되었지만, 미셸 드 세르토 연구는 한 개인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⁷⁾

가 생각하는 ‘저항’의 의미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 6)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78(2003), p. 145. 2002년 이후 출간된 미셸 드 세르토의 저서와 미셸 드 세르토 관련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Michel de Certeau, Dominique Julia, Jacques Revel, *La politique de la langue* (Paris: Gallimard, 2002), Michel de Certeau, *Histoire et psychanalyse entre science et fiction* (Paris: Gallimard, 2002) avec une préface inédite de Luce Giard, “Un chemin non trace”, Franç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 (Paris: La Découverte, 2002), Christian Delacroix, François Dosse, Patrick Garcia, Michel Trebitsch (dir.),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histoire* (Paris: Ed. Complexe, 2002), Michel de Certeau, “histoire/psychanalyse. Mises à l’épreuve”, *Espaces Temps*, No. 80-81(2002).
- 7) 세르토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와 근대초 신비주의」, 『프랑스사연구』, 제13호(2005); 장세룡, 「미셸 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미셸 드 세르토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셸 드 세르토라는 난해한 사상가의 작업을 국내 학계에 충실하게 소개하였다는 소중한 의의와 함께 막중한 과제 역시 남겼다. 국내에 소개된 미셸 드 세르토의 사상 또는 이론은 세르토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연구자들에게는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으로 비춰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 미셸 드 세르토의 복잡한 문장 구성과 복합적 의미들로 구성된 비유적 표현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르토의 작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의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 장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의 <America>

미셸 드 세르토의 ‘타자’에 관한 실제 역사 연구는 16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대를 다룬다. 이 시기는 서구 유럽의 근대와 구분되는 ‘양시앙 레짐(Ancien Régime)’ 시기로 규정되어 근대 유럽 이전의 단절된 과거로

세르토와 정신분석의 역사학」, 『대구사학』, 제74집(2004);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프랑스사연구』, 제9호(2003).

단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은 역사가들은 ‘근대 초기(Early Modern)’라는 시대 개념을 통해 근대 유럽의 탄생이 과거와의 단절이라기보다는 근대 이전 사회 요소들의 새로운 배치로 이해함으로써, 근대 유럽과 그 이전 시기 간의 명확한 단절을 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세르토의 타자 연구 작업에서는 서구 근대 유럽의 탄생 과정을 단절과 연속 어느 한편으로 규정하지 않고, 물질적 자본주의 형성 또는 지성사적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유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된 동방 시리아의 공주 ‘에우로페(Europe)’를 이야기하는 그리스 신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유럽’이라는 용어가 서구의 정체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서구가 자신의 타자, 곧 아메리카 대륙의 이질적 문명과의 조우 또는 정복의 시기이다. 낯선 타자와의 만남은 근대 서양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단어를 필요케 하였으며, 문명의 담지자로서 서양은 자신을 유럽이라 명명하며 스스로 유럽인으로 인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타자를 비유럽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근대 서구 유럽의 시작은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을 이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의 권두에 실린 한 삽화⁸⁾가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갑옷을 입고 십자군의 모습을 한 근대 서구 유럽 남성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와 그의 이름을 따라 ‘아메리카’로 불리게 될 나체의 여성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판화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8) 장-테오도르 드 브리(Jean-Théodore de Bry)의 *l'Americae decima pars* (Oppenheim, 1619)라는 작품에서 장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가 탐험가(A. Vespucci)와 ‘아메리카’(Amérique)라 불리는 여성 인디언의 만남을 그린 우화(참조. J. Amsler, *La Renaissance* (Paris: Nouvelle Librairie de France, 1955), p. 89 ; deuxième tome de L. M. Parias, *Histoire universelle des explorations*). https://snappygoat.com/free-public-domain-images-america-engraving_nova_reperta/7—FgO_TJ0iZgPi1d9oha4rLRcN94CW8YdV2s-vb4X3U.html#0,0,d43bde3fdd7ee05fdd899b3ad2b0207272149bd2 (검색일: 2021년 4월12일).

형성되었던 것은 낯선 야만의 ‘타자’만이 아니라 이성적·과학적·남성적 ‘유럽’의 정체성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럽’은 이 최초의 순간 이후 지속적으로 아메리카를 ‘비유럽적인’ 타자로 형상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며, 아메리카 여성은 앞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고, 오로지 서구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역사 쓰기를 통해서만 대신 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지고 쓰여지는 것이 서구 근대의 역사이다. 따라서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은 서구 유럽 근대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역사서술: 타자의 해석학(l’herméneutique de l’autre)

미셸 드 세르토에게 근대성이 탄생하고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근대성의 의미를 확정하여 어떤 실체를 가정하고 그것의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과는 구별된다. 세르토의 ‘혼종학’이 제기하는 ‘타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역사, 문학, 종교 그리고 정신분석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세르토의 연구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루스 지아르(Luce Giard)에 따르면 그러한 ‘타자에 관한 과학’이 가능하다고 세르토가 생각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타자의 과학’은 세르토의 작업 전체가 지향하는 인식 가능성의 기반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에 이르는 종교사에 대한 세르토의 연구는 항상 통일된 설명과 포괄적인 이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세르토는 일관되게 ‘절대적’ 또는 ‘총체적’ 지식에는 회의적이었다.

세르토는 체계화하려는 욕망을 거부한다. 총체화하는 지식을 거부한다. 완결된 과학 또는 완전한 이론을 포기하는 이런 한계의 이점은 대상과 질문의 양식 그리고 연구의 기준들에 대한 선택에서 그에게 부여되는 자유이다. 타자의 과학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서 비판을 받았지만 세르토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욕망의 대상이다.⁹⁾

9) Luce Giard, “Epilogue: Michel de Certeau’s Heterology and the New

세르토에게 역사의 출발점은 ‘실재’라 불리는 과거라기보다는 현재이다. “역사책은 두 계열의 데이터에서 출발해 구축된다.” 한편으로 어떤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존재하며, 이 관념은 과거가 남긴 자료와 연관을 지으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만든 통로를 따라 운반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서 자료(documents)와 ‘고문서archives’가 있다.” 세르토는 『루땡의 마귀들림』(*La Possession de Loudun*)을 앞서 말한 관념과 사료의 중간 지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셸 드 세르토가 역사 작업을 통해 밝히려는 것은 “한때 생생한 통일성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⁰⁾

세르토에게 역사는 부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거리 또는 분리를 조건으로 탄생한다. 부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는 결코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세르토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가 역사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리를 통해 역사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와 현재의 절단 그리고 분리가 역사학의 존재 조건이다. 부재하는 과거 실재라는 조건으로 탄생한 세르토의 『루땡의 마귀들림』은 그의 역사 연구 대상과 더불어 연구 방법론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루땡의 마귀들림』은 1632년 흑사병으로 14,000명의 주민 중 3,700명이 사망하였던 루땡시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초자연적·악마적 원인에서 발생한 재앙으로 간주된 “흑사병은 도시 사회에 타격을 가하면서 그 정신적·지적 구조를 뒤흔든다.”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신비주의적 광신과 고행에 빠지며, 하늘의 고집스러운 침묵 앞에서 절망하여 불경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다.”¹¹⁾ 혼란과 회의가 지배하는 도시의 한 수녀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루땡의 마귀들림』

World”, *Representation*, no. 33, Special Issue: The New World(Winter, 1991), pp. 217-218.

10)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3, Nouvelle édition en 1980)/미셸 드 세르토, 이충민 옮김, 『루땡의 마귀들림』 (파주: 문학동네, 2013), 19-20쪽.

11)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25-27쪽.

은 순수한 이론적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감정과 신념을 지닌 수많은 등장인물들로 구성된다. 마귀들림의 희생자인 수녀들은 물론, 마귀들림의 가해자로 판명된 마법사, 마귀들림 사건을 규명하려는 의사, 법관, 성직자, 관료들은 마귀들림 실제 사건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림 사건 흐름에 관여하는 사회적 변화, 곧 국가 이성이 종교 권력을 제압하는 시대적 변환을 증언한다. 미셸 드 세르토는 ‘마귀들림’이라는 고유한 시대에 고유한 장소에서 벌어진 고유한 사건을 통해 역사가의 작업을 설명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가에게는 루뎅의 마귀들림 사건에서처럼 사회의 위협을 제거하도록 요청받는 구마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역사가는 레비스트로스가 인간을 먹는(식인) 사회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인간을 토해내는 경향으로 규정했던 사회(우리의 사회)에 속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먹는 사회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개인들을 흡입·섭취하는 것이 이 힘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이 힘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사회는 정반대의 해법을 택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든 최종적으로든 [...] 특별하게 준비된 시설에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다.¹²⁾

미셸 드 세르토는 역사 서술이 지닌 구마의식을 설명한다. “인식론적·사회적 기준들의 불확실성과 그러한 기준들을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루뎅에서 가동된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다른 ‘마법사들’을 상대로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어떤 그룹은 마법사들을 축출함으로써 자신을 규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17세기에 이러한 축출 현상은 “루뎅의 ‘무대’ 만큼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가시적이지 않기에 그만큼 더욱 효과적인 수천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고 말한다. “타자라는 독이 종교 언어에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 사회적 치료술과 사회적 억압은 모습만 달리한다.”¹³⁾

12)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383-384쪽.

13)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383-384쪽.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의 모든 작업은 ‘실재’에 대한 정복 시도이다. ‘실재’는 라캉의 용어로서 세르토는 단어들로 읊길 수 없으면서 항상 문화적 코드라는 프리즘을 통해 불가피하게 인식되는 감지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라는 사실로부터 실재에 대한 정복은 말 그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르토는 근대 서구 학자들이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역사서술”을 그것의 모순어법”, 말하자면 쓰여질 수 없는 것을 쓰는 행위라는 것을 근대 서구가 주변화시킨 타자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¹⁴⁾

세르토는 서구 근대 유럽의 산물로서의 역사학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타자의 학문으로서 근대 역사학이 실행하였던 고유의 ‘타자화’ 작업을 규명하는 연구에 다름이 없다. 근대 역사학은 기업의 상품 생산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는 주체로서 그리고 죽은 자는 연구의 대상으로 정립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주체 역사가는 다양한 형태의 타자성과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제공된 타자화(alteration)를 통해서만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가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만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말은 역사가의 탄생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역사가의 현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물론 세르토는 이 만남이 현재에서 이뤄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르토는 역사가 주체는 타자의 무대 또는 장면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가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무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타자의 무대는 과거, 곧 이미 지나갔기에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에 자취를 남긴 과거에게 제공되는 장소이다. 역사가는 타자와 관련된 연극 무대를 만드는 존재이다. 물론 이 연극 무대는 과거 실재와 관련된 것이지 과거 실재 자체는 아니다. 타자는 역사가 주체의 존재 조건이다. 서구 남성 베스푸치의 신대륙 발견이 서양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스푸치와 대립되는 존재, 곧 아메리카 여성의 존재가 필요하다. 아메리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4) W. Warren Wagar, 'Review The Writing of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Apr., 1990), p. 453.

서구 남성의 과학은 아메리카라는 침묵하는 신체를 대신하여 아메리카에 관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셸 드 세르토 작업을 분석하는 주요 연구자 중의 한 명인 프랑수아 도스(François Dosse)에 따르면, 세르토는 “역사 서술 작업을 어제의 언어와 역사가의 현대의 언어 사이에 위치시켰다”. 도스는 세르토가 자신의 실제 역사 작업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이끌었으며, “사건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성(devenir/becoming)임”을 증명하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세르토의 역사 연구는 “이야기되는 사실들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과 인과관계를 추구하며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가졌던 역사가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사건이 “남긴 흔적을 연구하고 흔적들을 항상 개방된 의미로 구성된 것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17세기 종교사가로서 예수회의 사료를 전착하던 미셸 드 세르토는 과거의 불가능한 부활과 대결한다. 물론 세르토는 과거의 확인과 재구성이라는 전통적인 역사가의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현재에 되살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미술레적인 환상 또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세르토의 역사 서술 작업이 보여주는 해박하고 세밀한 연구는 과거의 진실에 대한 확신보다는 “과거의 부재와 타자성”이 느껴지는 “해안”으로 비유될 수 있다.¹⁵⁾

그것[과거]은 내게서 빠져나간다. 또는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항상 시간 속에 분산된 그 순간에 역사가의 탄생이 시작된다. 이 부재가 역사적 담론을 구성한다.¹⁶⁾

15)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pp. 145-147.

16) Michel de Certeau, “Histoire et structure”, in *Recherches et Débats* (1970), p. 168. 다음에서 재인용.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p. 146.

세르토의 저서에서 역사가의 작업에 관한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는 해변, 더 정확하게는 해변의 파도는 역사가에게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웅성거림(un murmure)”을 생산한다.¹⁷⁾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한 부채로부터 역사적 담론이 시작된다. 과거와 연결을 보장하는 사료들, 과거의 사건들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찾고 분석하는 역사가는 현재에 사라진 과거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회피하는 과거를 인정해야만 한다. 세르토는 다가갈 수 없는 과거라는 인식에서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는다. 부채는 역사 담론의 숙명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세르토에게 부채, 곧 타자성은 역사학이 숨겨야 할 치욕이나 치부가 아니라 역사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대상 자체이다.¹⁸⁾

IV. 역사 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서구 근대 이래 역사 쓰기는 죽은 자들이 남긴 문서를 해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 역사가와 이미 죽어 만날 수는 없지만 해독되어야 할 글들을

17)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 15. 역사 쓰기에 대해 세르토가 제시한 ‘해변’과 ‘파도’의 비유는 세르토와 입장을 달리하며 역사학의 ‘실재’ 재현 임무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흥미롭다. 노라는 『기억의 장소 1. 공화국』에서 “살아 있는 기억의 바다가 물러갔을 때 해변에 남아 있는 조개”가 자신이 수립하고자 하는 ‘기억의 장소’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세르토의 ‘해변’과 ‘웅성거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노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 세르토식의 역사 쓰기의 경향이 역사를 죽은 것에 대한 학문으로 화석화시켰다고 비판하는 피에르 노라가 세르토의 비유적 표현을 차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조개’로 구성되는 작업이 역사임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르토의 ‘해변’ 비유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르토의 저서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를 1975년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의 <Collection Bibliothèque des Histoires> 기획으로 출판한 이가 피에르 노라였기 때문이다. Pierre Nora(dir.), *Les Lieux de mémoire* (3 tomes: *La République/La Nation/Les France*) (Paris: Editions Gallimard, 2005)/ 피에르 노라의 지음, 김인중·유희수·문지영·양희영 옮김,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서울: 나남, 2010), 42쪽; Franc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 (Paris: La Decouverte, 2002), p. 264.

18) Brayan Reynolds and Joseph Fitzpatrick, “The Transversality of Michel de Certeau: Foucault’s Panoptic Discourse and the Cartographic Impulse”, *Diacritics*, vol. 29, no. 3(Autumn, 1999), p. 77.

써서 남긴 자 간의 채울 수 없는 단절 또는 간격으로부터 만들어 진다. 세르토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으로서의 역사 쓰기를 혼종학으로 부른다. 현재의 주체로 가정된 역사가가 죽은 타자에 관해 생산한 담론, 곧 혼종학(hétérologies)으로서의 역사서술은 자신의 고유한 담론을 유지하는 지식과 그 담론을 가능케 하고 지탱하는 무덤 속 사자(死者) 간의 분리가 작동하여 구성된다.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서술이 작동하는 이 분리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

세르토는 『역사 쓰기』 전체에 걸쳐 ‘역사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개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혼종학으로서의 역사 쓰기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학문 활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투입되어 변환되는 공장의 상품 생산 작업 과정과 같은 복합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장소’, ‘시간’, ‘의미’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란 주제로 구성된 『역사 쓰기』는 세르토를 역사서술에 관한 프랑스의 저명한 이론가 미셸 푸코, 자크 랑시에르와 같은 반열에 서도록 만든 저서이다. 세르토의 기본적 역사서술론은 『역사 쓰기』의 1부 ‘장소의 생산’에서 그 핵심적인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세르토의 역사서술에 대한 난해하고 복잡한 분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때 세르토가 제시한 공장에서의 작업(opération) 개념을 상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르토에게 역사가의 작업은 공장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공정 또는 작업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산업적 활동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폴 리쾨르(Paul Ricœur) 역시 세르토의 ‘역사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용어를 차용하여 역사와 기억 그리고 서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도 한다. 세르토는 이 역사서술 작업 과정을 다시 세 가지로, 곧 ‘사회적 장소(un lieu social)’, ‘실천(une pratique)’, ‘쓰기(une écriture)’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성격을 특유의 난해한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세르토에게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의 산물이다. 역사 쓰기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생산의 장소를 가진다. 여기서 ‘장소’는 지식의 객관적 인식을 보증하는 자리(place)라기보다는 역사가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제적 또는 현실적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역사학계가 역사가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강제하는 연구 풍토일 수도 있으며, 역사가가 속한 학교 또는 연구소와 같은 실제 기관이거나 연구재단이 공고하는 각종 사업과 같은 제도적 기관일 수도 있다. 세르토가 말하는 사회적 장소는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서적이거나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연구 행위에 개입하면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에서는 빠져 있는 “지식의 제도(une institution du savoir)”¹⁹⁾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역사학이라는 학제가 작동하는 곳으로서의 ‘장소’를 의미한다.

세르토는 역사의 진실을 주장하던 실증주의 시대는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 또는 발굴하는 특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 쓰기의 장소에 관해 사유한다. 역사가가 작업하는 역사 쓰기의 장소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결정과 선택이 일어나는 곳이다. 역사 쓰기 장소에 역사가 개별적 주체와 그가 연구하는 대상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허구에 불과하다. 사실 이곳에서는 역사가가 활동이 이뤄지는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규칙이나 법률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대 과학의 수립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대 학제들의 수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의 대학을 거치면서 역사학은 다른 학제와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법이자 과학적 연구의 법이라는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 역사 쓰기 장소에서 역사가는 집단의 규칙과 역사학의 과학적 연구라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세르토의 역사 쓰기 장소는 역사가가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는 역사가의 담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하여지지 않는 것(le non-dit)’을 구성한다.²⁰⁾ 따라서 역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순수 학문일 수 없다.

19)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82.

20)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79-84.

세르토는 프랑스 역사학에서의 “지식(un savoir)과 장소(une place) 간의 은밀한 관계”에 관한 글레니송(J. Glénisson)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글레니송은 보고서에서 프랑스 역사서술은 대학의 고위 교수직에 있는 소수의 교수들이 연구를 관리하며, 대학 고위직으로의 교수 승진에 맑스주의로부터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지난 4세기 이래 역사학의 과학적 진화에 역사학 제도 또는 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프랑스 역사학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광신적 애국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라틴 지역에 대한 연구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재정적 이유로 과도하게 민족주의적 이해관계를 강조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사회의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중립성’, ‘순수성’ 또는 ‘객관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²¹⁾

역사 연구는, 개인적 철학의 효과 또는 지나간 “실재”의 재출현이라기보다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자동차처럼 특정하고 집단적인 제조 복합체 *complex*와 관련된 다. 역사 연구는 한 장소의 산물이다.²²⁾

세르토가 역사 쓰기가 사회의 특정한 장소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단순히 역사 쓰기가 무엇인가 형성되는 과정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역사 쓰기 ‘장소’에서 ‘생산’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허용된 것’만이 역사 쓰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역사 쓰기 장소에는 ‘허용된 것’과 함께 ‘금지된 것’이 작동하여 역사 고유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세르토는 역사 쓰기는 말 또는 담론이라기보다는 실천(une pratique),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²³⁾ 실천이라고 말한다. 역사

21) *Ibid.*, p. 85.

22) *Ibid.*, p. 88.

23) 세르토는 두 가지 종류의 역사 만들기를 언급한다. 먼저 부분관사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는 일반적으로 역사가가 수행하는 역사 쓰기 작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관사 역사 만들기(faire l’histoire)가 있으며, 이는 역사가의 작업이라기보다는 ‘군주’의 작업이라고 세르토는 말한다.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의 영역본에는 두 가지 역사 쓰기를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영역본에서는 ‘faire de l’histoire’를 ‘making of history’

쓰기가 실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세르토는 역사 쓰기는 역사를 생산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역사 쓰기는 고유한 도구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역사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역사 쓰기는 무엇보다도 어떤 대상을 분리하고 정리하여 자료로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세르토는 ‘문화적 분배 또는 분류(*la répartition culturelle*)’라고 부른다. 문화적 분류 행위는 자료를 단순히 수용한다기보다는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역사 쓰기 실천은 시대에 따라 고유한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 쓰기 작업은 고정된 모델이나 정형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 쓰기는 시대의 변화와 무관한 이상적인 모델이나 원형을 지닌 학제가 아니다. 역사에서 자연적 요소들은 문화적 환경으로 변환된다.

역사가는 자연을 인공화한다. 그는 자연을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따라서 인간의 자연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역사가의 기술들은 역사가를 정확히 이런 절합에 위치시킨다. 이 실천의 수준에 위치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과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자연의 사회화와 사회적 관계의 “자연화(또는 물질화)” 간의 결합을 만난다.²⁴⁾

세르토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의

로 ‘faire l’histoire’를 ‘making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하고(*The Writing of History*, p. xxvii), ‘faire de l’histoire’를 ‘making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한다(*The Writing of History*, p. 19). 한편 ‘faire l’histoire’를 ‘produce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한다(*The Writing of History*, p. 7).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의 영역은 정관사 역사가 아닌 부분 관사 역사라는 점이다. 역사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이야기 모두가 정관사 역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역사 만들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분관사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를 의미한다. 세르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역사 만들기를 구분하며 역사가의 작업을 설명한다. “역사가는 정관사 역사를 만들지 않으며(*il ne fait pas l’histoire*), 역사가는 단지 부분 관사[일부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il ne peut que faire de l’histoire*). 이 부분 관사는, 그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서술적 분석을 할 수 없었을 지위(*position*)에 대해 그가 차지하는 몫(*part*)을 나타낸다. 역사가는 단지 권력의 “결에” 있을 뿐이다.” *Ibid.*, p. 22.

24) *Ibid.*, p. 98.

역사학은 과거에 실천되었던 고전적 모델, 곧 자료에서 출발하여 해석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전복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로 인해 오늘날 역사가가 다루는 정보량은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 세르토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와 같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작업하던 역사가의 작업이 “회귀성”(과거의 잔재)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종합(현재의 이해)에 이르렀다면, 현대의 역사가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제공하는 막대한 양의 정보량에 대한 형식화(현재의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잔재들”(한계의 지표 그리고 이를 통한 그 작업의 생산물인 “과거”의 지표)를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역사가는 자료들을 수용한다기보다는 자료를 구성한다.

역사가는 더 이상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역사가는 더 이상 지구사(une histoire globale)라는 천국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역사가는 그로부터 획득된 합리화를 주위를 돌게 된다. 역사가는 변방에서 작업한다. 이 점에서 역사가는 배회자가 된다.²⁶⁾

이처럼 세르토는 역사에게 과거에 신화화되었던 총체화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실천 이론을 모색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백 년 전만 해도 역사적 지식은 모든 사회의 변화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를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재현된 과거는 역사가의 오늘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지어진 간격, 곧 역사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등장하는 “옛날은 오늘과 같지 않았다”는 구절은 ‘과학적’ 역사 연구의 결과이며 구성된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르토는 이제 총체적 사회를 재현하려는 과학적 연구는 불가능하며, 과거와 현재 간의 간격을 극복될 수 없는 역사학의 한계이자 기반임을 인정한다.

셋째로 세르토는 역사서술 작업이 ‘쓰기(une écriture)’ 실천임을 강조한다.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에서 수행하는 실천의 산물이다. 어떤

25) *Ibid.*, p. 109.

26) *Ibid.*, p. 109.

실천인가?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에서 실천하는 쓰기이다. 쓰기란 무엇인가? 세르토에 따르면, 쓰기는 “쓰기의 형성(*la construction d'une écriture*)”이며, 넓은 의미로는 “기표의 조직(*une organisation de signifiants*)”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점으로의 낯선 이동(*un passage à bien des égards étrange*)”이다. 우선 역사 쓰기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사물들의 시간은 담론적 시간 속으로 유연하게 흡수된다. 역사 쓰기는 텍스트로의 구성이며, 역사가가 특정 사회적 장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천과는 다른 시간적 차원(담론적 시간 차원)을 지닌 담론으로 구성된, 곧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결로 구성되는 과거에 관한 편집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르토가 역사 쓰기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으로 쓰기를 제시한다는 사실로부터, 세르토의 역사 쓰기가 기호의 자의성이나 텍스트의 폐쇄성을 주장하는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세르토의 역사 ‘쓰기’는 단순히 담론은 외부 실재와 구분되어 그것을 반영한다는 소박한 언어에 대한 반영이론과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세르토의 쓰기는 의미의 체계라기보다는 과거에 관한 작업(*une opération*)이자 실천으로서, 죽은 자를 무대에 올리는 “재현-문학적 연출(*la représentation-mise en scène littéraire*)”이다. 역사 쓰기는 실제 역사가가 수행하는 연구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 현재에서 과거로의 진행이 아니라 역사 쓰기는 역사가가 가정한 ‘시작’에서 출발하여 연대기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역사 쓰기의 텍스트는 과거 사건의 실제적 발생 연대기와도 구분되는 쓰기의 진행 규칙을 가진다. 다시 말해 역사 쓰기는 원래 실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말로 구성되는 구조를 드러낸다.²⁷⁾

세르토는 역사 쓰기를 장례 의식으로 비유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쓰기는 죽은 자에 대한 매장 의식의 역할을 한다. 쓰기는 죽은 자를 담론 안으로 초대한다. 한편, 쓰기는 현재에 고유한 공간을 연다. 과거를 무대에 올리는 것은 과거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27) *Ibid.*, pp. 119-120.

“쓰기는 과거를 매장하기 위해서만 과거에 대해 말한다”. 다시 말해 쓰기는 과거만을 위한 칭송과 같은 담론 생산이 아니라, 과거를 매장함으로써 현재에 무엇인가 만들고 공헌하기 위한 담론 생산이다. 따라서 세르토에게 쓰기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사자(死者)에 대한 무덤이다.²⁸⁾

‘역사는 쓰기이다’라는 세르토의 주장은 역사 쓰기가 언어적 제약을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작업으로서 그 담론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그기능은 두 측면으로 명시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 용어의 민족지학적이며 유사종교적 의미에서 쓰기는 **장례 의식**이라는 역할을 한다; 쓰기는 죽은 자를 담론으로 안내하며 그를 몰아낸다. 다른 한편, 쓰기는 **상징화** 기능을 가진다; 쓰기는 사회가 언어로 과거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자리 잡도록 허용하며, 그렇게 현재에 고유한 공간을 연다: 과거를 “표시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가능성들의 공간을 재분배하고 부정적으로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²⁹⁾

세르토가 말하는 역사가의 쓰기는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을 만든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수행적 쓰기이다. 한편 역사가의 쓰기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과거를 쓰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그런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현재의 가능성들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쓰기는 따라서 죽은 자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념하며, 그와 동시에 그의 부재를 확인하는, 곧 그를 몰아내고 제거하는 이중적 의미에서 죽은 자에게 무덤을 조성하는 작업 또는 노동이다.

28) *Ibid.*, p. 140.

29) *Ibid.*, pp. 139-140.

역사가의 작업은 역사가의 현재의 장소에서 생산되는 담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분할과 단절이 만들어 낸 공백을 채운다. 사실 세르토의 설명을 따르자면 순수한 현재 또는 순수한 과거는 역사가의 작업에서 상상할 수 없다. 역사가의 작업에서 현재와 과거는 근본적으로 혼종적인 작업 안에서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재료 ‘과거’가 순수한 ‘현재’라는 이름의 역사 공장에 도착하여 순수한 ‘현재’ 역사가의 작업을 거쳐 역사 담론이라는 순수한 ‘현재’ 상품이 생산된다는 생각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역사서술 작업의 산물로서의 역사적 담론은 과거에 관해 말하면서 현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부연하자면 역사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사가는 작업 시작 이전에 이미 과거에 ‘오염’되고, 역사가가 자료를 다루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작하려는 역사가의 책상 위에 놓여진 문서 자료들을 순수한 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제’, ‘선택’, ‘관련 자료’, ‘수집’, ‘역사가’ 단어들은 현재의 ‘오염’을 나타내며, 문서고에 보관되었다가 역사가에게 선택된, 과거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 자료’도 마찬가지로 과거 작성 시점 이후 다양한 ‘현재’의 과정을 통해 선택·보존·처리라는 ‘오염’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서구가 가정하는 과거와 현재의 엄격한 분할에 기초하여 과거 진실 또는 진리를 현재에 재현하는 역사가의 작업은 상상 또는 이상의 세계에서 가능할 뿐이다.

V. 결말

역사 쓰기에 대한 미셸 드 세르토 분석 작업을 서구 근대성과 관련지어 평가하자면, 그것은 서구 근대 역사학의 민족지학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총체성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따라서 넓게 보자면 세르토의 작업은 서구 근대성 형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해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총체적인 과거를 수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세르토는 근대 서구의 대문자 역사에서 주변화된 타자들의 장소에 주목한다. 세르토는 역사가를 자주 배회하는 자, 걸어가는 자 또는 여행자로 비유한다. 낯선 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가는 출발할 때의 여행가와는 다른 존재이다. 세르토 특유의 삼각 구도는 역사서술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발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곧 부재하는 죽은 자와의 만남 그리고 귀환으로 이뤄지는 세 개의 꼭지점들이 만드는 여정이 역사가의 작업 경로이며 아메리코 베스푸치와 아메리카 나체 여성의 만남 역시 그러한 삼각 구도로 형성되는 동일한 궤적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귀환한 베스푸치는 출발 이전의 베스푸치와는 다르다. 죽은 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 개의 지점을 통해 세르토는 서양의 근대 역사는 죽음에 기반을 둔 쓰기 실천임을 보여준다. 역사 쓰기는 현재에 부재하는 자들을 호출 또는 창조하여, 현재에서 말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역사 쓰기는 이 부재자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역사 쓰기는 죽음을 조건으로 삼으며, 그와 같은 과거와의 단절로부터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쓰기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현재(역사가)와 죽음(사자)의 만남이다.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의 동판화에서 나체의 여성 아메리카는 호출되어 임무를 마치면 서구 남성이 마련한 침묵의 자리로 돌려보내지듯이, 죽은 자는 역사가로부터 호출되어 삶을 부여받고 증언을 하고, 이후 역사가가 마련한 침묵의 무덤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세르토는 역사의 모든 작업은 과거를 호출하여 진실을 말하게 하고 다시 죽음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과거에 대한 ‘정복’ 사업이라고 말한다. 정복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재와 과거 간의 죽음 또는 단절의 경계를 삭제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쓰기 용어 자체가 모순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작업이다. 그러나 서구 유럽은 근대 이래 계속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금도 역사는 쓰이고 있다.

미셸 드 세르토는 지속적으로 역사 쓰기의 모순 또는 ‘역설’을 환기시킨다.

세르토에 따르면 근대 서구 역사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과거 사이의 결정적인 구별, 단절 또는 차이와 함께 시작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죽은(지나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선을 그려야만 자신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근대 서구는 죽음에 집착한다. 과거를 죽음의 무덤에 가두고 자신과 뚜렷하게 구별하는 ‘단절’로부터 근대 서구 역사는 시작된다. 세르토에게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죽음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장소로서, 산 자 또는 부재하는 죽은 자, 그 누구만의 고유 영역도 아니며 삶과 죽음의 하이브리드적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이다. 세르토에게 역사 쓰기는 “죽음에 관한 작업이자 죽음에 반하는 작업(travail de la mort et travail contre la mort)”³⁰⁾이다. 이와 같이 근대 서구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인식론에 대항하는 세르토는 역사란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결합하는 혼종적인 하이브리드 작업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세르토는 서구 근대의 역사를 대문자 역사가 아닌 죽음에 집착하는 서구 고유의 역사로 비판적으로 다시 쓰는 대담한 기획을 시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mistoire@naver.com

주제어(Key words):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역사 서술(Historiography), 타자(Other), 혼종학(Heterology), Simulation), 하이브리드(Hybrid), 근대성(Modernity)

투고일: 2021.04.14, 심사일: 2021.05.12, 게재확정일: 2021.05.13.

30) *Ibid.*, p. 19. 인용 구절은 *L'écriture de l'histoire*의 영역본에서는 ‘A labour of and against death’로 번역된다. 다시 말해 역사가의 ‘travail’를 ‘노동’을 의미하는 ‘labour’로 번역하고 있다. ‘travail’는 ‘작업’과 ‘노동’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대체로 ‘travail’를 ‘작업’으로 번역한다.

<국문초록>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양재혁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는 수많은 ‘하이브리드’ 존재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더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어느 한 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들과 그것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론적 태도를 요구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 태도로는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확인한 ‘하이브리드’ 사상가로 잘 알려진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전통적 역사학에게 던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르토에게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산 자 또는 죽은 자 그 누구만의 고유 영역도 아니며, 삶과 죽음의 혼종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이다.

<Abstract>

Re-reading(or Re-writing) Michel de Certeau's
Historiography in the Hybrid Era

Yang, Jaehyuk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re producing numerous 'hybrid' beings. Most problems facing contemporary society consist of hybrid beings and their interconnection network, which could not be limited to a specific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science, etc. It requires us to have a new epistemological attitude, which means that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could not be handled by the conventional epistemological frameworks.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the new 'hybrid' thinking being thrown at traditional historians by Michel De Certeau, a historian well known as 'hybrid' thinker who identify the cracks of dichotomous modernity of the West. For Certeau, history is a place where the present living historians meet the dead. Also it is neither a place for the living nor for the dead, but a new place, and time as well as meaning itself created by a hybrid combination of life and death.

참 고 문 헌

1. 미셸 드 세르토 저서

La Correspondance de Jean-Joseph Surin, texte établi et présenté par Michel de Certeau, préface de Julien Green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6).

L'Absent de l'histoire (Paris: Mame, 1973).

La Possession de Loudu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3, Nouvelle édition en 1980)/미셸 드 세르토, 이충민 옮김, 『루땡의 마귀들림』 (과주: 문학동네, 2013).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La Fable mystique : XVIe et XVIIe siècle (Paris: Gallimard, 1982; réédition en 1995).

L'Ordinaire de la communication, en collab. avec Luce Giard (Paris: Dalloz, 1983).

L'Invention du quotidien, 1: Arts de faire et 2: Habiter, cuisiner, éd. établie et présentée par Luce Giard (Paris: Gallimard, 1990, 1re éd. 1980).

Le Lieu de l'autre: histoire religieuse et mystique (Paris: Le Seuil, 2005).

La Fable mystique : XVIe et XVIIe siècle, tome 2 (Paris: Gallimard, 2013).

2. 국내 참고 문헌

이승철, 「후기자본주의에서의 권력 작동 방식과 일상적 저항전술에 관한 연구 : 기 드보르[Guy Debord]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와 근대초 신비주의」, 『프랑스사연구』, 제13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호(2005).

_____, 「미셸 드 세르토와 정신분석의 역사학」, 『대구사학』, 제74집 (2004).

_____,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프랑스사연구』, 제9호(2003).

조민아, 「위험하고 위태로운 당신의 몸, 그 몸으로 신학하기-미셸 드 세르토(1925-1986)」,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제991호(2011).

3. 국외 참고 문헌

Jean Amsler, *La Renaissance* (Paris: Nouvelle Librairie de France, 1955).

Jeremy Ahearne, *Michel De Certeau: Interpretation and Its Othe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Questions of Cultural Policy in the Thought of Michel de Certeau (1968-1972)”,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William Barbieri, “The Heterological Quest: Michel de Certeau’s Travel Narratives and the “Other” of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0, No. 1(2001).

Philippe Boutry, “De l’histoire des mentalités à l’histoire des croyances: La possession de Loudun”, *Le Débat*, No. 49(1988).

Ian Buchanan, “Heterophenomenology, or de Certeau’s Theory of Space”, *Social Semiotics*, vol. 6, no. 1(1996).

Ian Buchanan, “De Certeau and Cultural Studies”, *New Formations*, vol. 31(1997).

_____, *Michel de Certeau : Cultural Theorist* (Londres: Sage, 2000).

Philippe Carrard, “History as a Kind of Writing: Michel de Certeau and the Poetics of Historiography”,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Roger Chartier, “Michel de Certeau: History, or Knowledge of the Other”, *On the Edge of the Cliff: History, Languages and Practices*, ed. Roger Charti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Claire Colebrook, “Certeau and Foucault: Tactics and Strategic Essentialism”,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Maria Letizia Cravetto, “The Emancipation of Thought: On the Work of Michel de Certeau”, *Diogenes*, Vol. 199, No. 3(2003).

Kathryn Crim, “The Ghostly Gait of Michel de Certeau”, *QUI PARLE*, Vol. 24, No. 1-2(2016).

Christian Delacroix, François Dosse, Patrick Garcia et Michel Trebitsch,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e l’histoire* (Bruxelles: Complexe, 2002).

Franç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 (Paris: La Découverte, 2002).

_____, “Paul Ricœur, Michel de Certeau et l’Histoire: entre le dire et le faire”, conférence à l’École nationale des chartes, mardi 22 avril 2003.

_____,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78(2003).

Luce Giard al., *Le Voyage mystique: Michel de Certeau* (Paris: Cerf, 1988).

_____, “Michel de Certeau, historien”, *Le Débat*, No. 49(Marche-April 1988).

_____, “Epilogue: Michel de Certeau’s Heterology and the New World”, *Representation*, No. 33, Special Issue: The New World(Winter, 1991).

Graham Giles, “The Concept of Practice, Enlightenment Rationality and Education: A speculative reading of Michel de Certeau’s The

- Writing of Histor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6, No. 3(2014).
- Stephen Hartnett, “Michel de Certeau’s Critical Historiography and the Rhetoric of Map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31, No. 4(1998).
- Ben Highmore, “An epistemological awakening: Michel de Certeau and the writing of culture”, *Social Anthropology-Cambridge-*, Vol. 15, No. 1(2007).
-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1).
- Jacques Le Brun, “Michel de Certeau, Historien de la spiritualit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91, No. 4(2003).
- Emmanuel Le Roy Ladurie, “Le diable archiviste”, in Emmanuel Le Roy Ladurie, *Le territoire de l’historien* (Paris: Gallimard, 1970).
- Emmanuel Lincot, “Penser l’inter-culturalité à partir de Michel de Certeau”, *Transversalites*, No. 100(2006).
- Éric Maignet, “Les trois héritages de Michel de Certeau. Un projet éclaté d’analyse de la modernité”,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Vol. 55, No. 3(2000).
- Régis Marion-Veyron, “L’antipsychiatrie revisitée par l’œuvre de Michel de Certeau/The anti-psychiatry approach reexamined through the work of Michel de Certeau”, *L’évolution psychiatrique*, Vol. 69, No. 1(2004).
- Sharon M. Meagher, “Philosophy in the streets Walking the city with Engels and de Certeau”, *City*, Vol. 11, No. 1(2007).
- Jon P. Mitchell, “A fourth critic of the Enlightenment: Michel de Certeau and the ethnography of subjectivity”, *Social Anthropology*, Vol. 15, No. 1(2007).
- Jürgen Pieters, “New Historicism: Postmodern Historiography between Narrativism and Heterology”, *History and Theory*, Vol.

- 39(2000).
- Philippe Poirrier, *Les Enjeux de l'histoire culturelle* (Paris: Seuil, 2004).
- Jacques Revel, "L'histoire au ras du sol", Giovanni Levi, *Le pouvoir au village: Histoire d'un exorciste dans le Piémont au XVIIe siècle* (Paris: Gallimard, 1989).
- Bryan Reynolds, "The Devil's House, 'or worse': Transversal Power and Antitheatr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England", *Theatre Journal*, Vol. 49, No. 2(May, 1997).
- Brayan Reynolds and James Intriligator, "Transversal Power: Molecules, Jesus Christ, The Greatful Dead, and Beyond", Manifesto Conference,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y 9, 1998.
- Brayan Reynolds and Joseph Fitzpatrick, "The Transversality of Michel de Certeau: Foucault's Panoptic Discourse and the Cartographic Impulse", *Diacritics*, Vol. 29, No. 3(Autumn, 1999).
- Mark Poster, "The Question of Agency: Michel de Certeau and the History of Consumerism", *Diacritics*, Vol. 22, No. 2(Summer, 1992).
- Dominique Salin, "Michel de Certeau et la question du langag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104, No. 1(2016).
- Sue Saltmarsh, "Michel de Certeau, everyday life and policy cultures: the case of parent engagement in education policy",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Vol. 56, No. 1(2015).
- Jerrold Seigel, "Mysticism and Epistemolog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heory of Michel De Certeau", *History and theory*, Vol. 43, No. 3(2004).
- Richard Terdiman, "The Response of the Other", *Diacritics*, Vol. 22, No. 2(Summer, 1992).
- _____, "The Marginality of Michel de Certeau",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 François Trémolières, "Michel de Certeau. Le travail de l'œuvre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 Michel de Certeau, La Fable mystique II”, *Critique*, Vol. 72, No. 828(2016).
- Pierre Vallin, “Michel de Certeau, Des notes de lectur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91, No. 4(2003).
- Torbjörn Wandel, “Michel De Certeau’s Place in History”, *Rethinking History*, Vol. 4, No. 1(2000).
- Graham Ward (ed.), *The Certeau Reader* (Oxford: Blackwell, 2000).
- _____, “Michel de Certeau’s “Spiritual Spaces””,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 _____, “The Weakness of Believing: A Dialogue with de Certeau”, *Culture, Theory and Critique*, Vol. 52, No. 2-3(2011).
- W. Warren Wagar’ Review on Michel De Certeau’s The Writing of Hsitory, translated by Tom Conl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Apr., 1990).
- Wim Weymans, “Michel de Certeau and the Limits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History and Theory*, Vol. 43, No. 2(May, 2004).

호모미그란스 회보

■ 2021년 이주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주제: <이주의 시대: “움직이는 문화”>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장소: 온라인 진행 (Google meet) URL : <https://meet.google.com/qxg-spfh-nwg>

후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 1부 > 학술발표 11:00~14:00

사회: 신영헌(한성대학교)

인사말 황혜성(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단장)

발표 1. 김예리(서울대학교): 로마, 나성(L.A.), 그리고 서울: 영화 <수상한 그녀>에 나타난 이주의 문화

토론: 조충환(홍익대학교)

발표 2. 김수철(건국대학교): 음식과 일상적 다문화주의: 공생을 향하여

토론: 하홍규(숙명여자대학교)

<2부> 학술발표 14:00~15:45

사회: 문종현(세종대학교)

발표 3. 이창호(한양대학교): 이주민 삶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건강: 국내 미등록 이주민 및 난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박동성(순천향대학교)

발표 4. 구지훈(창원대학교): 이탈리아 68부대의 한국전쟁 민간기여: 경인선 탈주 사고를 중심으로

토론: 김지영(숭실대학교)

<3부> 생생한 현장이야기 15:45~16:45

사회: 홍상현(한성대학교)

생생한 현장이야기 1. 오선영(다문화 전시기획자)

생생한 현장이야기 2. 장영선(다문화TV 사장)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 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 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 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 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 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 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 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 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

2015년 8월 15일 개정

제1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반각)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에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 (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 홍길동√편,√ 『서양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2),√12쪽.

(예2) 홍길동, 「그리스인의 역사서술」, 허균 편, 『서양고대사 강의』 (서울:길동출판사, 1996), 12쪽.

(예3) Gary Kates, ed., The French Revolution: Recent Debates and New Controvers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12.

(예4) J. S. Morrill, “The British Patriarchy? Ecclesiastical Imperialism under the Early Stuarts”, A. Fletcher & P. Roberts, eds.,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 「호레이쇼 열저와 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1996), 12쪽.

홍길동, 『프랑스 근대사 연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2쪽.

(예2) 木畑洋一, 『帝国のたそがれ: 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 (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6年).

(예3) 草光俊男, 「東アジアの構築: 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 『史学雑誌』, 3 (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 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p. 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Église-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pp. 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p. 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연도), 인용 페이지의 순으로 기입 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p. 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p. 364.

(예3) 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pp.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같은 책, 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로 표시한다.

(예)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Ibid.

- Ibid., p.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서울: 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15쪽.

(예2)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p. 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 J. Hobsbawm,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길동출판사, 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제 1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제 4 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원고에는 국문 초록, 영문 초록, 핵심 주제어(Key Word), 필자의 e-mail 주소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표기).
 - (2) 초록의 분량은 250 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 (3) 논문 말미에 필자의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 (4) 투고원고에는 자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1 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

다.

.

부칙

-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일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의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의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연구윤리

제20조 본 회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는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위원회라 칭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임원 중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개정 이전 회칙>